



國家와 民族의 부름에

1973년의 새아침은 분명 우리의 영광스러운 앞날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전진의 역사적인 새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 우리는 세계사적인 전환점에 서서 민족 생존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10월유신의 뜻을 이루어 민족통일의 길을 다져야 할 사명을 짊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새 역사의 일꾼이 된다는 결의와 태권도인으로서의 긍지를 살리고 책임을 다하는데 보다 투철해야 할 것이다.

물어켜 볼 때 지난 한해는 우리 민족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될 역사적인 1년이었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 10월유신까지, 그리고 새로운 정치 체제와 사회질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세와 결의로 새시대의 흐름을 맞고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태권도가 맞은 새해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난 한해가 조용한 정지(整地)의 해였다고 한다면 새로운 한해는 힘찬 도약과 이륙(離陸)의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지난해 집념의 결실로 ① 태권도의 國技化 ② 중앙도장의 完工 ③ 태권도교본의 발간 ④ 일선 사범의 재교육 ⑤ 승단심사의 단일화 라는 5대사업을 모두 완수했다.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한 태권도의 중주국으로서 위신을 세우고 국내외 모든 태권도인의 요람을 마련 했으며 태권도 세계화의 발판을 찾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힘과 技와 수양의 차원을 높여 태권도의 知性을 기르는 한편 체제화된 기술과 질서확립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활발한 사업을 추진 하기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 태권도는 힘을 자랑하는 무지막지한 力士가 아니라 「이름」을 갖고 체육 예술 과학을 함께 조화시켜 태권도의 品格을 높일 수 있는 지성인이며 나라의 일꾼을 요구하고 있다.

벽돌이나 송판 몇장을 깨뜨려 힘을 과시하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부터 우리의 태권철학을 정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태권도협회는 지도자의 체질개선을 위하여 벌써 여덟차례나 지도자 강습회를 가졌고 이를 모체로 하여 앞으로 태권도 대학을 세울 계획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태권도를 통해 신조의 정기를 찾고 국위를 떨쳐 왔지만 이제부터 안으로 조

앞장서는 태권도인이 되자

대한 태 권 도 협 회

회 장 金 雲 龍

국통일을 향해 역량을 기르고 단합을 이루기 위해 태권도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 국가와 시대의 요구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겠다.

무릇 태권도 정신의 체계화, 그리고 태권도인의 조직화, 이것이 어찌 태권도의 발전만을 위한 과업이겠는가.

우리 태권도 정신이야말로 민족단합의 전위가 되며 민족주체성의 저력을 형성한다고 자부하고 싶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는 변화의 시대이며 발전의 시대이며 동시에 경쟁의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의 「리듬」 속에서 우리는 변화에 적응하고 발전에 앞장서고 경쟁에 이기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꿈은 바로 우리의 손이 미치는 가까운 거리로 육박해 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 시간과 거리를 더욱 단축 시키기 위해 슬기로운 노력과 용기있는 행동 그리고 협동하는 자세로서 매진하자』고 대통령 각하께서도 말씀하셨다.

우리 태권도는 지난해 이루어 놓은 굳건한 바탕위에서 이제부터 힘찬 도약을 서둘러야 한다.

오는 5월이면 세계 20여개국의 태권도인이 서울에 집결하여 우리의 요람인 國技院에서 제 1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연다. 이 잔치는 바로 종주국의 전통과 역량을 과시하고 세계에 태권도의 위력을 재인식시키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의 전통을 만들고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영광이 없는 자에게 기념할 것이 없고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제를 이루어 약진 또 약진하는 영광의 대열에 모든 태권도인이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세계선수권대회를 계기로 세계를 우리 품에 끌어 드리고 시대와 태권도인의 요망에 의하여 세계태권도연맹을 창설할 계획이다.

명실상부한 세계태권도의 결합이 비로소 우리 힘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제 영광의 꽃불은 우리 손에 넘겨졌다.

슬기와 힘을 모아 꿈의 頂上에 꽃불을 올리자. ♣



強耐한 民族性

태권도는 우리 祖上들이 心身을 鍛鍊하고 外勢의 侵入을 물리치기 爲해, 멀리 三國時代에 創案되어 險難했던 數千年의 우리 民族 鬭爭史와 더불어 連續히 繼承되어 온 韓國固有의 國技라 하겠습니까.

특히 新羅의 三國統一 大業과 임진왜란 및 其他 國難을 克服하는데 있어서 태권도는 韓國固有의 武藝로서 또한 民族文化의 遺産으로서 不可缺한 要素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民族이 不撓不屈의 強耐한 民族性을 培養하고 嚴格한 禮節을 崇尚하는 자랑스러운 傳統을 繼承한 것도 이 태권도를 비롯한 崇高한 尙武精神에 緣由되었다고 確信합니다.

나는 이 機會를 利用하여 그동안 諸般 難關속에서도 우리 태권도界를 끊임없이 育成發展시키고 보살피은 大韓태권도協會 關係官들에게 甚深한 謝意와 慰勞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科學文明이 高度로 發達한 現今에도 跆拳道 修鍊者가 우리 國內에만도 1百50萬名이나 있고 世界 37國에도 活潑하게 擴大, 普及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事實은 이 태권도가 얼마나 個人과 國家에 切實히 必要하며 心身을 淨化시키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科學的인 武藝라는 것을 立證하고 있습니다.

歷史的인 越南派兵以後 이 태권도는 敵 艦襲作戰에 크게 奏効하였으며 軍人과 民間師範들이 海外에서 拳무인 活動을 展開함으로써 友邦親善 外交와 國威宣揚에도 커다란 寄與를 하고 있습니다.

培養은 跆拳道 精神으로

國 防 部 長 官

劉 載 興

現下, 韓國政勢는 北韓과 27年間の 武力對決에서 對話를 通한 對決로 轉換하여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自主의인 國力の 培養은 그 寸刻을 다투는 課題로 登場하였으며 「핀헨·올림픽」에서 慘敗한 敎訓을 거울삼아 온 國民 個個人이 강인한 心身을 鍛鍊하여 이를 效果의으로 組織化하고 集大成하여 「스포츠즈」中興을 時急히 이룩해야 할 重大한 時點에 있습니다.

이에 태권도協會는 勤勉 自立 및 協同의 旗手가 되어 國家의 要請에 副應할 것을 闡明한 것은 반갑고 鼓舞的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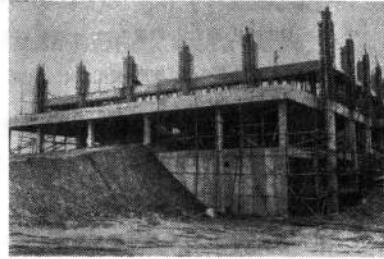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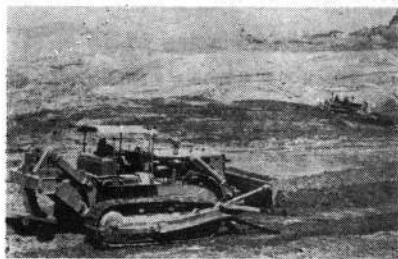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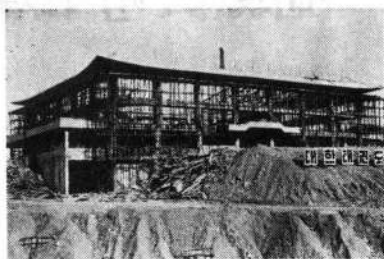
특히 태권도協會는 이제 隊列을 整備하고 雄大한 「맘모스」 태권도 中央道場을 竣工하여 그 活動을 大幅 強化하게 된대 對하여 大韓태권도協會 金雲龍 會長에게 甚深한 謝意와 뜨거운 激勵을 보내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民族의 純粹한 固有遺産이며 透徹한 愛國愛族의 精神의 支柱인이 태권도 技術을 더욱 啓發하고 發展시키며 汎國民的으로 日常生活에서 더욱 擴大普及시키고 海外 구석구석까지 傳播시킬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 懇切합니다.

現在 強力히 推進되고 있는 總力安保態勢의 確立과 새마음 運動에도 이 태권도는 큰 보탬이 되리라 確信하는 바입니다.

우리 韓國의 國技인 태권도가 繼續하여 강인한 國民性的의 涵養과 國防 및 外交에 繼續 큰 寄與를 俾 주시기를 期待하는 바입니다. ♣

태권도 중앙도장



1백50만 태권도인이 잠망태은 숙원의 태권도중앙도장이 착공 3백76일만인 1972년 11월 30일 하오 2시 서울 성동구 역삼동 76번지 현장에서 金 雲龍 회장과 金 鍾泌 국무총리, 沈 相裕 문교차관, 梁 鐸植 서울특별시장, 金 澤壽 대한체육회장이 개관 『테이프』를 끊음으로서 역사적인 문을 열었다.

이날 金 鍾泌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국태권도는 이제 태권도 발전의 요람이 될 중앙도장까지 갖게되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으며, 이 도장을 발판으로하여 앞으로 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국위 선양과 국민체위 향상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본협회 金 雲龍 회장은 식사에서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의 면모를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현재 40개국에 파견 되어있는 해외사업들을 통하여 세계전역의 태권도인을 초청, 명실상부한 세계선수권대회를 73년 5월에 개최키로 했다』고 밝히고 『승단심사를 단일화

하고 일선 사범을 재교육하여 기술면에서도 세계에 앞장서는 태권도 본산의 참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자리에서 金 雲龍 회장은 중앙도장의 이름을 국기원(國技院)이라고 명명(命名)했다.

영동구릉(永東丘陵) 위에 우뚝 솟은 중앙도장은 이날 내외귀빈을 포함한 3천여 태권도인을 모아 연무시범을 가짐으로써 그 기세는 천지를 진동시키는데 했다.

준공식을 마친후 각계각층의 인사들은 金 雲龍 회장의 안내로 도장 내부시설을 돌아보았으며 하오 3시부터는 준공을 축하하는 「락테일·파티」가 베풀어졌다.

그동안 공사에 투입된 예산 총규모는 1억5천만원에 달하고 이 막대한 공사비를 충당하기까지 金 雲龍 회장이 국내유지물의 협조를 얻고 사재까지 들여 예산문제를 해결했다.

국대의 정세가 변화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시기의 역사(役事)였으므로 金 雲龍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국기원 개관되다!



의 고층과 에로는 컸었다.

2천3백평의 대지위에 세워진 이 도장은 지하1층 지상 3층 높이의 철근「콘크리트」건물로서, 연건평 1천1백89평(1층 6백76평, 2층 3백22평, 3층 1백11평 지하실 85평)에 경기장시설 이외에도 강의실, 합숙실, 휴게실, 「샤워」실, 「라커·룸」 등을 갖추고 난방시설도 완비되어 있다.

경기장 면적은 2백27평으로 태권도를 비롯하여 「레슬링」 「핸드볼」 「배드민턴」 씨름 「복싱」 등 거의 전반에 걸친 실내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종합체육관이며 관람석은 3천에 이른다.

3백76일의 대공사를 담당한 보성산업주식회사(사장 韓致錫)는 6년 전부터 국내 건설업체의 총아로 등장하여 한국기술연구소, 「그레이·하워드」 정미공장, 동양고속 정미공장 및 대소 「아파트」를 건립함으로써 그 기술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베터런」 회사다.

그러나 중앙도장의 공사에는 부근의 수원(水源)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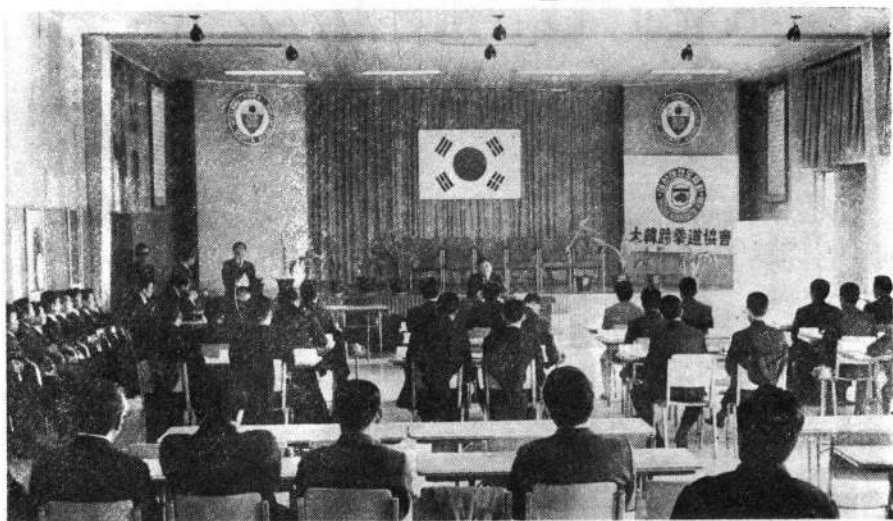
발이 낮아져 물을 많이 사용하는 「씨멘트」 공사에 고층이 있다고 공사현장 소장을 담당했던 공 영준(孔泳俊)씨는 회고했다.

도장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와 이 광노 교수는, 「한국 태권도의 위세를 과시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건축에 담고져 한국 고유의 열이 담긴 청기와를 지붕에 덮고, 태권도 8괘형에 부합하는 8개의 원주기둥을 건물 정면에 배치하는 등 완벽한 태권도 도장의 모습을 갖추는데 힘썼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렇다할 도장이 없이 외국의 수련지망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안타까움과, 태권도 종주국을 찾아오는 외국의 태권도인에게 소개 자랑할 수 있는 태권도 성역(聖域)을 완성 했다는것은 태권 반만년 만에 맞게되는 최대경사가 아닐 수 없다.

태권의 「백카」에 성역이 완성되고 「코요한」에 해당하는 교본이 발간된 1972년도는 길이 역사에 기록 될 것이다. ♣

宿願完結! 1972년도



본협회 1972년도 정기 대의원총회가 중앙대의원 및 시, 도지부 대의원 23명(제일지부, 경북지구 불참)이 참석한 가운데 73년 1월 14일 오전 11시 체육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지난 한해의 살림을 정리 결산하고 내일의 새사업계획을 세우는 총회장의 분위기는 희망에 가득차 있었으며 이자리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모습은 자랑스러워 보였다.

金 회장을 정점으로하여 일사불란한 행정체제를 갖추고 태권도의 급자탑 중앙도장을 세웠으며, 교본발간, 예의규범 제정, 심사단일화, 태권도의 국기화, 장학제도의 설립 태권도誌 발간 등의 사업을 완성한 지난해의 업적은 우리 태권도계만이 아니라 한국 체육사(體育史)에 일찌기 볼 수 없는 빛나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마치 이날의 총회는 그 업적을 이루어 놓은 회장에 경의를 표하는 기념축하잔치 같은 인상이었다.

金 雲龍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해는 국내외에 변화가 많았고 우리 태권도계에도 종주국의 기반을 닦기 위한 준비가 꾸준히 진행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시대와 국가의 태권도계에 요청하는바가 무

엇인가를 깨닫고 중앙도장을 세운것으로 종주국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태권도인 전체의 체질 개선과 자질향상을 이루면서 지도자교육, 단원 심사제도 시행 등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

이제 종주국의 자리를 굳히는 준비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부터 태권도 미래상을 구축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국기 태권도의 지위 확보를 위한 진지한 토의를 해줄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李 啓光 감사는 1972년도 수지결산 감사보고에 앞서 『1672년도는 무언(無言)으로 실천하시는 회장님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중앙도장의 건립 등 많은 업적을 남김에 대해 다같이 감사의 인사와 박수를 보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72년도의 수지결산을 보고

수입= 2천3백19만8천7백6십1원.

지출= 2천1백65만9천8백5십5원.

잔고= 1백53만8천9백60원.

으로 일반회계, 태권도誌 발행 등 그 회계상 하등의 하자(瑕疪)와 차질(蹉跎)없이 처리되었다고 보고했다.

定期 代議員 總會



한편 72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보고를 보면 협회 기본사업으로 승단심사 42회, 국내경기대회 10회, 심판 및 지도자교육 14회, 임원 해외파견 2회 태권도지 발간 4회, 태권도교본발행, 사법 및 선수해의파견 23건 (14개국 41명)으로 예년에 비해 훨씬 활발했고 지도자교육에 중점을 두었음을 나타냈다.

金 雲龍 회장은 72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보고를 끝내고 의장석을 하단했다.

총회는 전북대의회 전 일섭 씨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사업계획심의회에 들어갔다.

임 윤규 사무총장은 예년의 사업과 비교하여 변동된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충설명했다.

① 이제까지 초년부와 일반부로 양분해서 실시하여 혼란을 가져 왔던 승단심사를 73년도부터는 심사단일화에 따르는 새로운 방안으로 3종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심판강습회를 이수한 자에게 3급 2급 1급의 심판 자격증을 부여한다.

③ 중앙도장 완공을 계기로 세제선수권 대회를 개최한다.

이상의 보충설명에 대해 전 일섭, 임시 의장은 심판

자격증과 사법자격증발급 계획이 태권도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내일의 발전을 눈앞에 보는듯 하다고 말했다.

여러 대의원의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가 계속 되고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 계획이 검토되었는데 이날 중요 질의와 답변 내용을 간추려 보면—

[문] 지도자교육 수강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수되며 어떻게 쓰여지는가?

[답] 시설의 사용료나 강사를 초빙하는 강사출강료에 쓰여졌고, 교재용 인쇄물과 기념품을 만드는데도 적지않게 지출되었다.

중앙대회와 지방대회의 경우는 그 비용산출이 원격한 차이를 보이므로 강습회비가 유효적으로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금년 후반기에는 강습회비를 대폭줄여 받거나 아주 천폐하라는 회장님의 방침에 따라 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문] 금년 10월 부산에서 거행될 전국체전에, 서울의 심판 전원이 참가할 것인가 또는 심판자격원이 없는 부산 현지 임원들을 교육하여 기용, 해결할 것인가?

[답] 전국체전까지 불과 9개월을 남겨 놓고 있으며

로 이제 심판원을 대량으로 양산(量産)하여 대회를 치르는 것은 무리한 일이 될것이다. 현지인을 양성하여 절반정도 충당하고 종전에 심판을 담당했던 「버터런」 급을 절반정도 기용하여 시행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문〕 심판자격을 부여할 강습회 시기는 언제쯤인가?

〔답〕 73년부터 시행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 시기는 좀더 세부계획을 검토한 후에 결정 될 것이다.

앞으로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 빠른 시기에 그 절차를 발표 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은 업 윤규 사무총장의 답변이 끝나자 사업계획회의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어 예산회의에 들어간 대의원들은 미리 배포된 유인물을 세밀하게 분석검토하고 의문나는 점만을 지적하여 질의했다.

〔문〕 유단자 등록금으로 작년에는 2백2십만원이 들어 왔는데 금년에는 그 수입이 제외된것은 무슨 이유인가?

〔답〕 금년도부터는 심사제가 단일화되므로 심사급 이외에 기타 불필요한 경비는 삭제된 것이다.

〔문〕 중앙도장 관리비가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73년도 한해 동안에 50만원 밖에 쓰지 않을런지?

〔답〕 오늘 심의하는 전반의 예산이 가공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제 중앙도장의 운영비는 그 10배가 들어 갈런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운영의 모를 기하여 유요적절하게 움직여 나갈 방침이다. 50만원의 예산은 최소의 경성비에 해당될런지 모르겠으나, 아직도 엄청난 2차시설보완 공사를 하여야하므로 최소한으로 운영비를 줄인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오늘 심의하는 전반의 예산이 고정되어있는 금액이라 해도 필요에 따라서 부득이 한것은 특별찬조를 받거나 회장님의 협조를 받는것이 기존의 시책이었다. 작년 해외파견의 경우, 생각지도 않은 10일간의 어린이선수단 월납파견이 있었고, 세계일주시찰을 위해 협회회원 2명이 파견 되었었다.

이러한 활동은 그 충분한 필요성을 인정한 회장님의 배려에서 2백만원 혹은 그 이상의 특별지원을 받아와서 이루어진것이며 결코 년초에 책정되는 협회 예산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음을 설명해 둔다.

이 밖에도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시 필요한 2천여만원의 자금확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대의원들은 1백50만 태권도인은 사망과 최무참을 지니고 회장

단에 무조건 의회치 말고 한사람이 단돈 백원씩이라도 각출하여 우리의 큰 뜻을 이루자고 역설하기도 했다.

다음은 73년도 임원개선의 순서.

여기서 대의원들은 거창한 사업을 완수한 金雲龍 회장은 2년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회장단에 전권을 맡겨, 계속사업을 추진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업 윤규 사무총장은 작년도 정기총회에서 집행부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 집행부를 개선했으므로 그 잔여 임기를 끝낸 것으로 유권해석, 규정에 따라 회장을 다시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의 전형방법이 어떠했든 국내 태권도의 전폐에 없는 업적을 남긴 金雲龍 회장이 계속 회장을 맡아 사업을 추진해주어야 한다는 지배적인 의견에 따라 만장일치로 金雲龍 회장을 재선하고 이사진 구성도 일임, 아무런 파란없이 임원개선을 끝냈다.

대의원들의 박수 갈채속에 의장석에 다시 앉은 金雲龍 회장은 다음과 같은 취임인사를 했다.

오늘 태권도의 앞날을 위해 여러분이 진지한 토의를 하여준데 감사할 따르는 바입니다. 앞서 개회사에서 말씀드린대로 지난 한해 태권도를 국기문화하여 명실상부한 종주국으로서의 체모를 갖추기 위한 준비에 정열을 기울였음이나다 금년은 또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의 첫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임원과 대의원들 그리고 일선 사범들이 다같이 단합하여 하나하나 어려운 일을 풀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도장만 지어가지고는 명실상부 한 종주국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중앙도장이 숭단심사와 경기, 교육등 여러가지 태권도 발전의 기틀이 되고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할것임에는 틀림 없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몇 사람이 하던 태권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시대와 국가가 요청하는 국기로서, 또한 역사가 입증하는 종주국으로서의 힘을 과시, 국기 태권도의 정통(正統)을 찾기 위해 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회 임원들, 특히 李鐘佑 기술심의회장의 노력으로 완성이 태권도교본의 발간은 태권도전통에 또 하나의 발판을 이룩한 것이며 이러한 사업들의 완성을 위해 세계무대 속에 계속 침투하고 태권도의 주도권을 잡는것이 시급합니다.

금년 최대사업계획의 하나로 세계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고 국제조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가 기술면에서도 세계무대의 주도권을 갖고있음을 보여야겠으며 그러기 위하여는 계속

적인 연구와 조직적 체계론과 기술적 방법론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태권도가 국기로서 국민학교 교과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이마당에 있어서의 기술개발은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국가가 요청하는 것은 단일한 교육방법이 아니고 연구에 따른 창조된 새로운 태권도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때문에 자질향상을 위한 일선사범의 교육이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고 그 기초 작업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선사범의 교육은 재래의 주먹구구식 교육을 탈피하여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체계있는 방법론이 주입된 것이어야 되겠고, 앞으로 나아가서 태권도 대학이나 전문연구소로 진전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일심사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각관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각관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기술개발에 있어 중앙도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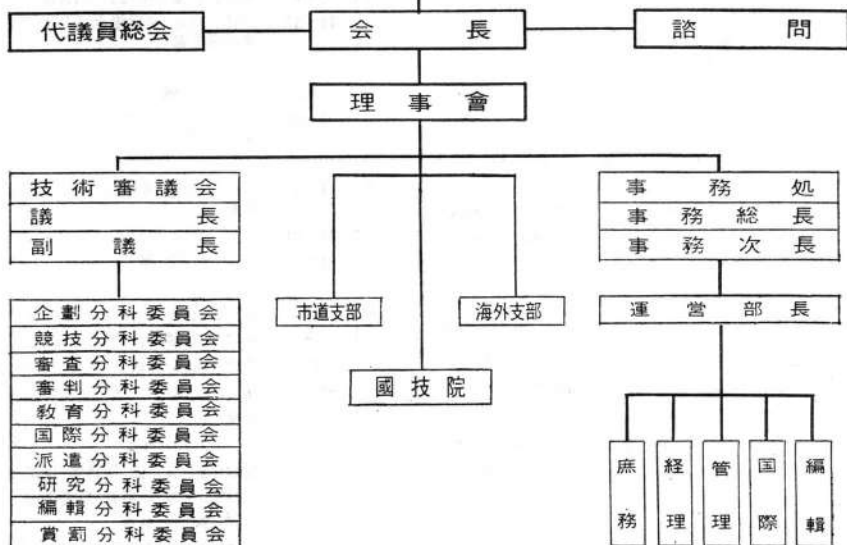
이러한 현실적 여건에 비해 소수의 불만이 있더라도 『태권도의 발전』이라는 대전제앞에 단합된 힘을 보여 태권도 미래상 구축에 많은 공헌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것으로 취임사에 대신하는 바입니다.

1973年度 事業計劃表

月	日	事 業 名
1	1~30	全國 指導者 教育
2	11 25 1~28	全國 審判員 教育 第15回 少年部 審査大會 全國 指導者 教育
3	1 2~4 9~11 30~4月1日	第52回 全國 昇段 審査大會 第2回 全國少年 스포츠大會 서울 豫選大會 1973年度 全國 新人 選手權 大會 世界 跆拳道 選手權大會 韓國代表팀 團體 및 個人選拔選拔大會
4	5 8 15 27~29 1~30	第1回 全國 高段者 昇段 審査大會 第16回 少年部 昇段 審査大會 全國 審判員 教育 第8回 大統領旗 爭奪 團體 對抗大會 全國 指導者 教育

5	4~6 11~13 20 25~27	第2回 全國少年 스포츠大會 第4回 全國 國民學生 및 女子部 個人 選手權大會 第53回 全國 昇段 審査大會 第1回 世界 跆拳道 選手權大會(團體 및 個人戰)
6	1~3 23~24 1~30	第11回 全國 中·高·大學 團體 對抗大會 第5回 駐韓 外國人 選手權大會 全國 指導者 教育
7	1 8 17 20~22	第17回 少年部 昇段 審査大會 第54回 全國 昇段審査大會 第2回 全國 高段者 昇段 審査大會 第8回 全國 中·高·大學 個人選手權大會
8	1~5 12 19 1~31	全國師範 資格證 所持者 補修教育 第18回 少年部 昇段 審査大會 全國 審判員 教育 全國 指導者 教育
9	2 5~9 21~23 30	第55回 全國 昇段 審査大會 서울特別市 體育大會 兼 第54回 全國 體典 서울 豫選大會 1973年度 全國 國民校 및 女子部 優秀選手 選拔大會 第3回 全國高段者 昇段 審査大會
10	5~9 14 28	第54回 全國體育大會 第19回 少年部 昇段 審査大會 第56回 全國 昇段 審査大會
11	4 11 23~25 1~30	第4回 全國 高段者 昇段 審査大會 全國 審判員 教育 1973年度 全國 優秀選手 選拔大會 全國 指導者 教育
12	2 9 1~31	第20回 少年部 昇段 審査大會 第57回 全昇 國段 審査大會 全國 指導者 教育
1 2 12	其 他	① 海外 跆拳道 師範 派遣 ② 跆拳道選手, 任員 海外派遣 및 招請 ③ 跆拳道誌 發刊 (年4回) ④ 優秀選手 獎學金 支給 ⑤ 跆拳道 敎本 發刊

大韓跆拳道協會機構表



1973年度 任員名單

(1973. 1. 17)

理 事 會				諮 問 委 員			
職 位	姓 名	備 考		職 位	姓 名		
會 長	金 雲 龍	留		諮 問 委 員	韓 相 國	徐 仁 錫	
副 會 長	朴 普 照	"		"	盧 相 直	梁 潤 世	
"	朴 武 昇	新			全 錄		
"	鄭 仁 永	新					
理 事	李 載 處	留					
"	金 鴻 來	"					
"	李 敏 廈	"					
"	尹 錫 憲	"					
"	張 翼 龍	"					
"	朴 容 昆	新					
"	金 鳳 均	新					
"	崔 珏 圭	留					
"	韓 基 旭	留					
"	韓 鳳 洙	"					
"	崔 淳 吉	"					
"	趙 錫 來	新					
"	金 永 奎	"					
"	嚴 雲 奎	留					
"	李 鍾 佑	新					
"	金 泰 鎬	"					
監 事	李 金 光	留					
"	李 田 鉄	"					
事 務 處				技 術 分 科 委 員 會			
事 務 總 長	嚴 雲 奎			技 術 審 議 會 議 長	李 鍾 佑	秀 石 天	
事 務 次 長	崔 東 熹			副 議 長	洪 鍾 南	鍾 秀 石	
				企劃分科委員會委員長	李 高 在	鍾 南 在	
				副 委員長	崔 寅 寅	崔 寅 寅	
				競技分科委員會委員長	金 永 順	金 永 順	
				副 委員長	韓 永 順	韓 永 順	
				審查分科委員會委員長	金 張 泰	金 張 泰	
				副 委員長	李 永 順	李 永 順	
				審判分科委員會委員長	池 永 相	池 永 相	
				副 委員長	李 龍 雨	李 龍 雨	
				賞罰分科委員會委員長	李 白 金	李 白 金	
				副 委員長	李 全 金	李 全 金	
				國際分科委員會委員長	李 玄 九	李 玄 九	
				副 委員長	李 洪 九	李 洪 九	
				派遣分科委員會委員長	李 友 海	李 友 海	
				副 委員長	李 正 炳	李 正 炳	
				教育分科委員會委員長	李 洪 永	李 洪 永	
				副 委員長	李 義 元	李 義 元	
				研究分科委員會委員長			
				副 委員長			
				編輯分科委員會委員長			
				副 委員長			
國 技 院				事 務 局 長			
				事 務 局 長	李 炳 路		

1973年度 跆拳道協會 任員 名單



회 장 金 雲 龍



부회장 朴 普 熙



부회장 朴 武 昇



부회장 鄭 仁 永



이 사 韓 基 旭



이 사 李 載 高



이 사 金 鴻 來



이 사 李 敏 夏



이 사 尹 錫 憲



이 사 張 翼 龍



이 사 金 鳳 均



이 사 韓 鳳 洙



이 사 朴 容 昆



이 사 崔 珪 圭



이 사 嚴 雲 奎



이 사 崔 淳 吉



이 사 趙 錫 來



이 사 金 永 一



이 사 李 鍾 佑



이 사 金 泰 鎬



감 사 李 啓 光



감 사 田 哲

1973년 제1차 이사회 개최

1973년도 대한태권도협회 새집행부 첫 이사회가 2월 16일 오후 6시 대한체육회 제1회의실에서 金雲龍 회장을 비롯한 13명의 이사와 한 상국 위원등 3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해 태권도 종주국으로 발판을 굳히는 데 적극 참여했던 이사들은 73년도의 새 목표달성을 위해 보다 활기있고 의욕적인 모습이었다.

72년도 보다 한층 강화된 새이사진은 2명의 부회장을 보강하고 최각규씨(재무부 차관보)와 조석재씨(동양나이론사장) 박용곤씨(동양매주 전무이사) 김영일씨(국제청 기피관리관)등 4명의 이사를 증원하여 대망의 73년도 태권도협회 전반사업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 金雲龍 회장은 「내일의 전통과 영광을 쌓는 작업에 모두가 참여하여 줄것을 당부하고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5월 이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데 협력하여 줄것을 요청했다.

이어 李炳路 본 협회 사무차장으로부터 중앙도장(국기원)준공, 제1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준비 현황, 태권도 교본 발행에 대한 보고와 자시, 도지부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각종 회비수수로 징수 승인에 관한 설명을 듣고, 중앙도장의 내장공사를 위해 각 이사들이 적극적 협력 모금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어 제1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준비 현황보고에서 2월 16일 현재 「오스트리아」, 「홍콩」, 「핀란드」, 「자유중국」, 미국(서부지부), 「프랑스」, 일본, 서독, 「엘살바도르」, 「우간다」, 「하와이」, 「말레이지아」, 「월남」, 「콜롬비아」가 참가 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여비보조와 찬조금 거출문제를 논의했다.

金雲龍 회장은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여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없지 않으나, 중앙도장이 완성되고 세계무대에서 종주국으로서의 힘을 과시하는데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자랑스러운 전통을 만들고 후대에 길이 기억될 영광의 대열에 참가하자」고 역설했다.



金회장은 특히 시국과 국가가 요청하는 태권도인의 사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대회는 반드시 성공하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태권도교본 발간 회계보고에 대해 金雲龍 회장은 세계무대에서 계속적인 주도권을 장악해나가는 데 반드시 조직적 체제론과 분석적방법론에 입각해서 우위를 유지해야하며, 기술개발과 자질향상, 국내외 태권도인의 요구, 그리고 시대적 요청에 의해 교본이 발행된 것이라고 교본 발간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설명했다.

이사회는 회의안건 상정순서에 따라 시, 도지부협회 임원인준에 들어가 협회규약 10조4항에 의거한 10개 시, 도지부 가운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부산, 제주지부 임원 인준은 회장에 위임했다.

이어 협회 사무처가 입안한 각종회비 수수로 징수에 대한 토의를 갖고 국제사범자격증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해외사범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부족한 재원은 이사들이 보충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국제사범자격증 수수료 인상안을 부결, 종전대로 발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내도장 단체가입비는 개인교육 수강요금에도 못미치는 모순을 갖고 있음을 지적, 과거의 2천원에서 1백50% 인상된 5천원으로 인상을 했다.

따라서 이날 각종 회비와 수수로 징수승인은 72년도의 선을 그대로 유지토록 결의하고 단체가입금만 인상을 했다.

1973년도 각 시·도·지부 임원명단

<강원도 지부>

회 장: 신 철 군 유 원 선
부 회 장: 조 성 일 경기사사: 김 우 영 배
전무이사: 윤 영 철 경기사사: 김 인 하
총무이사: 유 연 용 김 수 박
이 사: 김 관 언 김 노 근
회 장: 최 춘 영 박 환
회 장: 한 배
감 사: 이 회 철 홍 현 석

<충청북도 지부>

회 장: 정 갑 순 김 종 선
부 회 장: 정 익 용 총무이사: 이 근 수
전무이사: 김 용 경기사사: 심 규 완
경기사사: 정 만 순
기획이사: 이 기 인
이 사: 원 복 재
사 감: 윤 승 회 정 해 열 한 봉 석
소 창 열

<충청남도 지부>

회 장: 고 인 환 하 중 상 한 민 교
부 회 장: 노 일 환 하 중 상 한 민 교
전무이사: 박 창 락 총무이사: 김 민 중
경기사사: 이 정 명 재무이사: 양 호
심외이사: 정 구 진 기회이사: 이 필
공보이사: 전 병 규
이 사: 이 진 중 박 현 동 임 한 조
이 사: 이 승 준 박 원 규 정 주 윤
김 태 수 박 복 원 정 준 식
감 사: 강 정 구 이 중 철

<전라북도 지부>

회 장: 권 용 수 설 명 회 오 영 군
부 회 장: 전 일 성 설 명 회 오 영 군
전무이사: 유 병 용 총무이사: 오 정 상 윤 택
경기사사: 허 우 인 일 인 수 오 정 상 윤 택
이 사: 윤 석 구 윤 진 일 최 송
윤 박 규 인 김 형 찬
문 승 년 김 형 찬
사 감: 박 인 수 정 삼 진

<전라남도 지부>

회 장: 이 광 재 차 관 식
부 회 장: 박 정 서 차 관 식
전무이사: 김 종 득 총무이사: 조 태 열
경기사사: 김 우 일 기회이사: 추 현 식
시설이사: 유 호 평 심외이사: 박 준
제책이사: 김 안 수

이 사: 김 만 석 하 귀 웅 임 준 모
현 점 식 김 민 철 황 정 남
안 영 순 이 원 교 이 명 호
이 사: 조 행 남 김 주 훈

<경상북도 지부>

회 장: 이 승 빈 이 홍 근 이 동 주
부 회 장: 최 용 찬 이 홍 근 이 동 주
전무이사: 최 남 훈 총무이사: 최 규 열
경기사사: 김 정 훈 경기사사: 이 중 호
심판이사: 이 무 용 윤영이사: 박 동 찬
이 사: 박 두 규 최 남 교 최 훈 준 철
박 보 회 서 남 교 최 훈 준 철
박 원 기 서 김 준 만 김 준 철
박 영 래 고 활 명 은
감 사: 최 말 교

<경상남도 지부>

회 장: 추 화 식 윤 태 원 이 도 재
부 회 장: 정 중 중 윤 태 원 이 도 재
전무이사: 김 태 운 총무이사: 배 영 석
경기사사: 송 진 경 재무이사: 한 창 열
심외이사: 정 우 식 기회이사: 이 승 화
시설이사: 김 위 수
감 사: 조 회 삼 김 태 건

<부산 지부>

회 장: 안 광 성 조 영 수 이 도 윤
부 회 장: 예 훈 해 조 영 수 이 도 윤
전무이사: 박 래 순 총무이사: 이 호 일
경기사사: 임 명 식 기회이사: 최 명 화
심외이사: 강 일 규 재무이사: 이 상 조
시설이사: 손 영 봉 조 중 덕 최 훈 식
이 사: 손 석 성 진 수 조 배 규 최 남 주
박 유 종 만 유 일 중 만 유 일 중 만
감 사: 이 만 섭 정 원 표

<제주 지부>

회 장: 유 원 철 이 동 회 이 명 길
부 회 장: 김 두 은 이 동 회 이 명 길
전무이사: 고 정 일 총무이사: 좌 봉 화
경기사사: 정 건 중 경기사사: 고 원 금
기회이사: 현 봉 석 심외이사: 원 금 봉
이 사: 광 화 일 고 명 선 김 상 만
이 창 조 고 용 문 김 영 하
이 문 조 고 용 문 김 영 하
감 사: 박 성 관 조 남 기

내일을 펼쳐다

1973년 10개 분과 위원회의 새로운 계획을 들어 본다.

◎ 기획분과위원회



위원장 高 在 天

에서 一人一技 교육으로 태권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군(軍)에서 전제 사병이 수련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유신적 총화의 체적으로 이끌어 나가 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펼쳐야 되겠다.

그리고 누구에게 태권도를 배워도 그 품세는 동일한 것이 되도록 협회 품세를 널리 보급토록 전력을 경주 할 것이다.

군부에서 실시하는 품세와 일반인이 배우는것 그리고 해외사범의 품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을 조장하는 위험조차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심사의 단일화에 따라 시일이 경과하면 자연히 해소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협의 총화를 이루는 시기의 단축은 빠른수록 좋은것이기 때문이다.

◎ 경기분과위원회



위원장 金 仁 錫

더욱이 세계 전역에서 사용하는 경기방식이 같다고 볼수 없었으니, 이번 기회에 「물」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보급하여야 되는 사명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 된다. 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대표자회의를 자주 열어

태권도를 전국민의 일상생활에 주입시켜 생활화 하도록 협회의 기간조직(基幹組織)을 동원할 방침이다.

문교부가 태권도를 각급학교 정규교과 과정에 삽입한 후에 많은 학교

사전교육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그리고 모든 국제경기가 영어로 용어를 쓰고 있으나 이번 경기는 종주국의 주체성을 살려 “계속” “갈려” “그만” “차려” “감점” “시작” “경례” 정도의 용어는 우리말로 시행토록 하겠다.

일본 유도의 실력원인이 기술만 넘겨주고 주체성을 고려치 않은데 있음을 생각할때 이번 1회대회는 경기의 전통을 확립하고 계속적인 세계태권도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될것으로 생각한다.

특기 할것은 금년도 사업계획표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해외파견 선발대회가 수시로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경기가 있을 때마다 「물」을 충분히 활용치 못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는데 이번 세계 대회를 계기로 충분한 인식이 되도록 주의깊게 관찰하여 주기 바란다.

◎ 심사분과위원회



위원장 金 順 培

향상을 꾀했고, 심사는 어린이, 소년, 일반으로 구별하게 되었다.

특히 4단 이상의 고단자 응심자는 그 권위와 자질을 높이는 의미에서 3가지의 품세를 완벽히 할수 있는가를 보고 2회전의 실전(實戰) 겨루기를 한다든 승단토록 그 판문을 좁혀 놓았다.

한편 심사신청도 무제한 받아 들이지 않고 인원을 제한조절 하게 된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고 할수 있겠다.

이러한 협회의 신중한 심사의 개혁방안에 따라 서류

승단심사가 단일화 됨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일은 확대 강화 되었다.

승단심사에 있어, 과거에는 한가지 품세를 가지고 자격의 유무를 가리던 것을 2개의 품세로 늘어 응심자의 자질

실사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끝으로 좌관에서 단종을 발급하는 행위는 일제 금합본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차없이 응분의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강조하는바다.

● 상법분과위원회



위원장 李 龍 雨

조류에 맞닥처 새로운 전통을 세우고자 한다.

첫째의 과업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승단실사 단일화의 철저한 시행완성이 그 목표다.

승단실사단일화는 협회가 이루어놓은 많은 사업가운데 복잡한 과정을 극복하면서 성공시킨 사업이기에 그 비중의 큰것임을 강조하는 바다.

고로 73년도는 협회 이외의 어떤 판(館)이나 도장에서 승단 여부를 운운하여 위반행위를 범하거나, 협회가 정해는 금액 이상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우리는 승단여부를 놓고 금품을 요구하여 신성해야할 師弟의 道마저 그릇치고 사회의 규탄을 받는 많은 사례를 보아왔다.

이러한 부정을 일소하고 두터운 공신력과 명량한 기풍을 전파 시키려는 의도가 실사의 단일화로 귀착된 이상, 구태의연하게 길서를 문란케함은 마땅히 응분한 조치를 취해 나갈것이다.

둘째로 세계로 도약의 목표를 세워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협회의 방침에 위배되는 어떤 종류의 크고 적은 행위도 낱낱이 색출하여 수치를 가할 것이다.

새 전통을 만들고, 새역사를 이루는 길은 멀고도 험하며, 나 하나뿐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소승적(小乘益) 관념이 대계(大計)를 망치는 일임을 경심하여주시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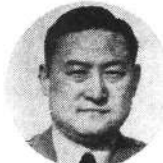
여하든 모든 일은 信賞必罰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냉철하고 믿고 나갈 것이다. 오직 이 질단이 모든 태권도인을 위한 공영의 질임을 믿으면서.....

● 국제분과위원회

태권도가 6대주 5대양 곳곳에 보급되고, 세계의 태권 동호인이 한자리에 모여 유열을 가름하는 대회를

여는 1973년. 이 해에 협회의 국제분과위원장을 맡은 본인의 사명은 실로 막중한것임을 자인치 않을 수 없다.

특히 金 雲龍 회장께서 년초에 피력하신바 있는 국제태권도연맹의 결성은 국기 태권도로 굳건한 자리를 다지고 세계로 시야를 돌리는 용비(雄飛)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위원장 白 駿 基

남게 되므로 국제분과위원회의 활동 범주가 넓고 깊게 유지 되어야할 줄 안다.

본 위원회는 국제간의 기술의 교류를 돕는 한편 국가간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코리아」이 가는 곳에 태권도가 있고 태권도를 심은 곳에 민주 혼(魂)을 꽃피우는 국위선양의 사도, 해외 사범들에게 불신양면의 지원을 서슴치 않을 것이다.

해서 세계에 펼쳐있는 태권도인이 조직적인 체제를 이루어 太宗主國의 단합된 힘을 과시해 나가도록 힘쓰겠다.

● 파견분과위원회



위원장 李 敎 允

현재 국내에서는 일선 지도사범의 자질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 국한할 문제가 아니고 해외로 나가는 사범들의 훈련과 품격향상을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해외의 많은 사범들은 국내에서 파견되는 사범들의 철저한 훈련을 요청해온바 있다.

언어를 익히지 못한 사범이 훌륭한 실력을 갖고도 표현의 부족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고생만 심하게 하는 막한 처지의 사범들이 있는가 하면, 기본품새도 제대로 할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중주국사범의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일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파견은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금년도「싱가폴」파견전형 시험에 李聖洙 사범이 많은 지원자를 물리치고 합격하여 현지로 떠났다. 이때

의 시험이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었다는 말이 있으나, 그렇게 하므로서 정선(精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절실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해외파견전형은 엄격히 규제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국인 사범이 기반을 타고, 일단 성공을 거둔 지역은 중북하여 파견치 않을 방침이며 가끔씩 미개척 국가로 편향 파견할 생각이다.

◎ 교육분과위원회



위원장 玄友泳

태권도는 무도의 가치와 경기로서의 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 「스포츠」와는 달리 차원 높은 道의 세계를 터득하고, 경기에 활용하여 응용할 수 있는 고도의 극기심을 요구하는 경기이다. 자칫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고 극단적인 상황을 몰아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필요하며 지도자나 일반수련인을 막론하고 끝없는 배움이 계속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많은 수련인을 교육에 참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일선지도사법들에게만 교육을 실시해 왔다. 72년도와 73년 3월 현재까지 1천3백명의 4단이상 의 고단자들이 교육을 끝냈으며 그들은 제각기 향리의 도장에 돌아가 배워간 이론과 실기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시기가 지나면 국가와 시대의 요청이 변하고, 경파한 시기만큼 퇴색한 교육자리에 실증도 느끼게 될것이다. 해서 사범자격 초지자들도 보수교육을 실시키로 확정하고 하기방향이 시작되는 여름으로 시행기를 돌렸다.

한편 5월에 있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대비하여 심판위원들의 특별교육을 수시로 전개하여 이론과 실기를 스스로 할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 자질을 부여키로 했다.

명실공히 태권도 중추국의 중앙도장 다음 국기원이 개편되었고, 교수의 초빙도 대한체육회 「코치·아카데미」의 교수진으로 구성, 그 권위 또한 높아졌다.

특기할 일은 금년도 부르는 피교육자에게 정수된 수강료는 피교육자를 위해 사용 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수월히 넘길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협회의 재정이 든든하지 않고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단안인 것이다.

모든게 金雲龍 회장님의 배려에 의한 시책들로서 깊이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뜻을 기려 우리 교육분과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그대로 이행하며, 체제화된 이론 및 기술을 탐구하며 올바른 지도자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훌륭한 태권도인의 육성은 국가와 시대가 요구하는 절실한 것이고, 이 대열에 참가하는 일야말로 영광의 행진대열에 참가하는 뜻 깊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 연구분과위원회



위원장 洪正杓

본 제도에 오로것 등은 의회의 완성이라 하겠다. 金雲龍 회장께서 기회가 있을때 마다 「내실을 갖춘 무도인이 되라」고 강조한 것은 「연구하고 공부하는 무도인이 되라」는 말로 풀이 될수 있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구하며 개발하는 창조적 자세를 잠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줄 안다.

금년에는 72년부터 시도하면서도 시급하고 커다란 사업들이 해결을 보는 동안 진전을 못보았던 호구의 개량문제를 매듭짓고 싶다. 그리고 우리 민족사와 함께 전승되어온 민족의 무예를 재 발굴하는 작업을 서두려야겠다.

찾아보면 史記의 구석구석에 얽힌 기록되어 있는 태권도의 史料들을 사가(史家)의 무관심으로 잊히고 있어져가는 이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가(史家)도 모르는 무예의 전통이기에 우리 손으로 우리가 개발하여 제승하는 것은 무도인의 사명인 것이기에 더욱 중요한 일이다.

다음은 겨루기와 격파에서 필요한 힘을 과학적인 수식으로 산출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사방법을 정리해야겠다.

근대 「스포츠」의 모든 분야가 과학화를 꾀하는 마당이니 태권도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진척 되어야겠다.

세계 「마라톤」을 제패하였던 한국이 과학화한 외국에게 「바톤」을 넘기고 또다시 선무를 잡지 못하는 것과 같은 전철을 우리 태권도에는 경계해야 한다.

끝으로 기존 일선사범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기술의 교류를 돕는 연구회도 갖어 봤으면 좋겠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은 기존기술을 검토하고 정리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순서가 될것으로 생각되어 지는 때문에.....

● 심판분과위원회



위원장 裴永基

수련경력과 활동경력을 검토하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서 3급으로부터 1급에 이르는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선수권대회에 임하여 심판부를 강화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계획검토되어 온바있다. 5월 이전에 약 3회에 걸친 특별교육을 시행하게 될것이며 이 기회야말로 심판의 자질향상을 돕는 마지막 훈련이 될것이다.

또한 배심원 교육도 병행하므로써 심판과 배심원 사이의 견해차를 좁혀 놓고 원만한 경기운영을 맡기려는 할리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정을 기하고 편견을 배제 할것이며 대회때마다 시비가 되기 쉬운 심판의 문제는 해소될것으로 확신 한다.

심판의 품격은 그 어느 부분보다 권위가 있어야하고 승부의 판정을 내리는 배심원의 권위 또한 높아야겠다.

이런 문제들의 운영에 그 단체의 사활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수술과 시정을 못해내므로써 파탄을 겪는 단체는 숫하게 많은 것이다.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가운데 인기가 높았던 모험회는 금년 「씨즌」부터 심판위원을 전인 선수출신의 젊은이로 구성하리만치 심판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우리 태권도협회는 세계선수권대회를 맞아 모든 심판과 배심원을 재정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은 큰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세계 전역에서 모여드는 태권도인들은 종주국 심판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그것은 곧 세계태권도의 기류를 형성할 것이므로 이 기회에 심판위원들은 종주국의 품격향상에 스스로 사명감을 느끼고 활동해 주기 바라는 바이다.

민고 신뢰할 수 있는 의연한 심판의 모습! 그것은 새로운 태권도 전통과 자손만대에 기별할 유산들을 성공적으로 쌓아 올리는 요소가 될것으로 믿어 관계제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는 바이다.

● 편집분과위원회



위원장 李永燮

英文 「태프리트」와 독일어 「캠프리트」에 이어 「스케인」이 가온 출간될 예정인 73년도는 협회출판부의 분주한 활동이 예상되는 해다.

한편 제간으로 발행되는 태권도誌의 질과 양의 발전은 타 협회 활동을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서 이번 7, 8호 합본호에서는 창간호의 2배에 달하는 「페이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국내는 물론 해외의 사범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배드하고 있어 용기를 내어 더욱 좋은 내용으로 풍부한 읽을 거리와 연구논문들을 게재해 나갈 생각이다.

편집에 있어서도 젊은이들이 좀더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면을 할애하며 독자들의 소리를 게재하는 '난을 만들어 태권도인 모두가 참여하는 대화의 광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흔히 책을 만드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구별되기 쉬운 전문지의 편안을 심분 고려하여 그 문호를 개방토록 하겠다.

많은 제간 전문지의 운명이 5원을 채우지 못하고 그치는 국내 독시제의 「징크스」를 깨고 誌명 10호를 바라보게 된것은 태권도誌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자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는 바이다.

현대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의사전달의 시대이니 만큼 1억50만을 헤아리는 태권도인의 교양과 전문지의 사명은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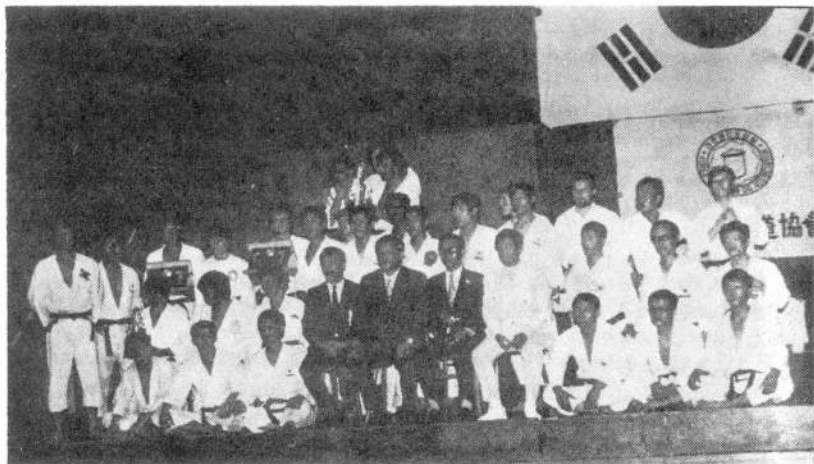
또한 태권도「誌」는 읽고 버리는 책이 아니고 읽고 또 읽으며 음미하여 소화하는 품위있는 전문지로 「메뉴」를 구미고 싶은 것이 간절한 소망인 것이다.

실제로 창간호를 위시하여 과월호를 찾는 독자의 수가 많은 것은 전문지가 아니고서는 찾기 힘든 현상이다.

벌써 오래전에 창간호와 2호는 절품되고 나머지 것도 여분들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유료구독의 경우처럼 창간호의 값이치가 높아가고 있는 이 현상이야말로 태권도誌의 밝은 앞날을 예견할 수 있는 현상이라 하겠다. ♣

세계 태권도 시찰기



技術審議會議長 李 鍾 佑

西獨 「원헨」

세계 1천 5백 체육인의 갈채 속에 끝 낸 연무시범 대회

우리 한국과 똑 같이 단일민족이 분단된 국토에서 살고 있는 서독이 미화(美貨) 5억「달라」 이상을 투입하여 세계민족과의 친선과 인류의 구원한 발전을 다지는 「올림픽」 경기장을 세운 「원헨」.

우리 임원이 이곳에 도착한 것은 서울을 떠나 東京에서 일박한 후 26시간을 「젯트」여객기에 시달린 8월 14일이었다.

전후(戰後)의 폐허를 황금의 국토로 만든 독일국민, 그들의 노력과 정성이 담긴 곳곳의 풍물은 우리가 담고 싶은 것 일색이었다.

이들은 우리는 부(富)를 세계에 과시라도 하는양 「올림픽」 경기를 위한 시설들은 그 유래가 없는 호화무비의 것으로 꾸였고 참가국이 많은 것과 비례하여 굉장한 수의 관람객이 몰려 들었다.

마치 인류의 전시장울 벌여 놓은듯 각양각색의 얼굴이 모두가 신기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스포츠즈」의 열렬한 「팬」이거나 선수 또는 임원의 자격으로 온 사람임을 생각할 때 이번 시범대회가 이들에게 어떤 형태로 「어필」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런 막중한 사명감을 피부로 느끼며 보다 효과적인 「메몬스트레이션」을 위한 현지사범과의 2일간에 걸친 최종예행과 계획검토로 대한 태권도협회가 주최하는 최초의 해외 시범대회의 막을 올렸다.

1972년 8월 16일.

「원헨」의 중심가에 자리잡은 「슈바이빙거·브로이」 백화점 홀에서 1천 3백명의 관람객이 운집한 가운데 태권도 연무시련이 벌어졌다.

이 자리는 이 상구 주독참사, KBS-TV 최규락「아나」, 오 광섭 대한체육회이사, 이종택 대한체육회 운영부장 외에「유럽」취재를 위해 이곳에 온 다수의 취재기자들과 교도들도 눈에 띄었다. 시범을 보인 대부분의 사범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독일 혹은「유럽」여러나라에 파견되어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던 사범들이 주축이 되어 있었으나, 한국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다가 유학생으로 와있는사람 혹은 기술자나 광부 가운데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정선되어 묘기를 보임으로써 이날 참관인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고「앵콜」을 청하기도 했다.

대회 제2일에 속개된 시범은「유럽」참가 각국선수단 및 임원들로서 3백명의 내외 인사가 이날의 대회를 참관 하였다.

김 태수 대한체육회회장, 조 동표 일간「스포츠」편집부장, 연 병해, 서울신문체육부장 주 상점 前복싱연맹부회장 외 사견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26명이 연두시범을 벌였다.

이날의 시범이 끝났뒤 대한태권도협회가 파견한 우리일행이 소개되자 지금까지 소위 국제연맹이란 단체에 등록되었던 서독의 태권도협회는 기술교류에 대한 협정을 제의했다.

우리는 권재화 사범으로 부터 서독협회 측의 책임있는 답변 설명을 듣고 신중히 검토한 끝에 서독주재 한국영사관에서 그 협정서 가조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로서 엄 윤규 사무총장과「하인즈·막스」독일유도협회 태권도부 전구대표는 국제적인 태권도 운동의 진흥과 이에 관련되는 모든 실무에 있어 앞으로 우호적인 면에 서로 협력하여 같이 일한다는 확신의 도달이라는 내용의 합의서에「사인」했다.

이것은 하나의 중주국에 두개의 단체가 있다고 착각하여온 여러나라 태권도계에 이해를 주게된 크고 효과적인 계몽의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이날 오후 5시 서독주재 사범들의 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협회의 현황보고와 기술에 대한 강좌를 가진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협회의 동향을 신속히 알려 줄 것.
2. 국제연맹 형에 대한 처리는 순차적으로 협회형으로 전환할 것.
3. 승단심사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보아 줄 것.
4. 한국태권도의 발전을 위하여 단결합동 할 것.
5. 월례회(친목회 형식)를 가질 것.

이상의 협회가 이루어짐으로써 해외의 한국사범들간의 불협화음이 불식(拂拭)되고 협조「무드」가 조성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과거 일본「가리메」나 유도사범들에 의해 지도를 받아 고단자가된 서독인 사범이 도장을 개설하자 일본인 사범을 모두 추방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범들의 결속 없이는 이와같은 불행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독일은 미국과 같이 장기거주자에 배출어지는 영주권제도가 없으므로 그들의 요구 없이는 단 하루도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헨더캡」이 있으므로 서독에서의 사범활동은 더욱 조직적 단결을 요하게 된다.

독일인 운영의 도장에 고용되어 있는 사범이 증거를 살릴 수 없고, 소신껏 활동할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8년전에 도둑(渡竊)하여 태권도의「불」을 이루는데 주역이 되었던 권재화, 김광용 사범은 독일인의 인식한 국민성과 고용주의 횡포에 염증을 느낀 미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가오보면 서독의 태권도 보급이 만만치 않음을 짐작할만하다.

서독, 이곳은 40명의 사범이 75개 도장에서 2만2천5백명을 지도하는「유럽」태권도의 가장 큰 시장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려운 조건이 많아 독일인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단합되지 않는 한「유럽」에 심어 놓은 태권도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원헌」연무시범자 명단

서 윤남, 이 경명, 이 광영, 장 기혁, 서 영철, 김 만금, 이 금이, 김 광용, 김 태현, 송 천수, 장 광명, 김 만금, 송 찬호, 조 복남, 박 금식, 정 종일, 이 종규,
독일인 남자 4명, 여자 2명, 어린이 2명.

「오스트리어」

「오스트리어」는 일행의 시찰예정에 포함되어 있었으

나, 그곳에서 태권도보급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 경명 사범과 장 기현, 서 영철 사범이 「핀헨」 시범에 참가함으로써 서독의 서 윤남 도장에서 현지 「브리핑」을 받는 것으로 「오스트리아」 순방계획은 변경되었다.

현재 「오스트리아」 태권도협회는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듯 보였으나 그 대부분의 수련생이 대학생이란 점을 감안할 때 협회지부가 정식발족을 보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 저명인사를 참여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수 밖에 없다.

「오스트리아」 젊은이들의 수련열의는 대단 했다. 또한 이 경명 사범이 귀국하여 지도자강습회를 받고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물」에 따른 대회들 「유럽」지역에서는 최초로 여는등 태권도연구의 열은 어느지역보다 높았다.

5월의 세계선수권대회에 대비하여 이들은 1년전부터 맹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이 물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현지 한국사범 3명은 「핀헨」 시범을 계기로 힘을 모으게 되어 한때는 잡음도 없지 않았으나 순조롭게 해소 되것은 순방 시찰의 수확의 하나였다.

프 랑 스

「프랑스」는 일본 「가라데」의 아성으로 이관영 사범이 홀로 고전하고 있었으나 영사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이 관영 사범이 성실히 보급을 수행하여 「유럽」에서 가장 유망한 보급대상 지역으로 「크로즈」업되었다.

제 아무리 여건이 좋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사범의 개

인능력이 우수하지 못하면 성공하기는 힘들다. 어려운 여건을 이겨 나가고 싸워이기는 사범의 활동이야말로 태권도 세계화의 꿈을 실현하는 첩경의 길이 될것이다

이 관영 도장은 여류 휴가로 수련생 대부분이 「파리」를 떠나 도장수리 중이었으므로 지도상황을 볼 수 없었다.

스 페 인

「파리」에 체류하는동안 「스페인」·「발레로니아」 지방에서 자영(自營)의 도장을 경영하고 있는 조 홍식 사범이 찾아와 이곳의 현황을 청취하였다.

일본 상품이 세계시장으로 쏟아져나가 세계 구석구석에 그들의 상표가 붙어있지 않은 곳이 없듯 그들의 상품과 함께 세계 곳곳에 「가라데」를 전파(傳播)해 놓았다.

때문에 태권도가 「가라데」의 텃세(?)를 이기고 뚫고 들어가기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가라데」가 그 뿌리를 굳히고 있는 「스페인」수도 「마드리드」에 한국사범 김 재원, 윤 여봉, 그리고 조 윤준, 조 용식 형제가 들어가 「가라데」의 아성을 깨뜨리기 위해 작고(刻苦)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조용준, 조 용식 형제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밖의 사범들에 활약은 아직 크게 눈에 띄이지 않고 있다.

「발레로니아」에서는 조 홍식, 전 영태, 최 원철, 김 일홍, 정 권수 사범이 명 활약하여 전 영태와 조 용식 두 사람은 자기소유 도장을 크게 차려놓고 부족한 일손을 한국에 요청, 조 홍식 사범의 실제(實弟) 조 영주(趙英柱)를 데려 갔고 도장 확장 계획이 추진 중이다.

美 國

미국은 「스포츠즈」 인기목의 최다(最多) 보유국이며 올림픽 종목 이외에도 「야게리칸」·「풋볼」·야구, 농구, 복싱 등으로 세계 「스포츠즈」의 메인선(曳引線)역을 담당하고 있으나, 인구 비례로 따져보면 「스포츠



츠」를 하는 국민이기 보다 「스프로츠」를 즐기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활방식과 개인주의 인습(因習)이 육체의 쇠약을 가져오고 있어 태권도가 차지하는 가치성은 일익(日益)증대 되고 있는 터였다.

우리 일행이 미국에서 볼 수 있었던 몇개의 도장은 놀라울 정도의 규모로 세워져 있었고, 한국에서 들은 바대로 화려한 생활을 하는 사범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일부 사범들의 생활은 실로 처참할 정도였다.

그들은 본국에서 태권도의 체계있는 지도를 받지 않았거나 제대로 실력은 갖추어도 언어불통에서 오는 의사표현 부족으로 불행을 가치는 무도파(無謀派)들이다. 이 피해가 훌륭한 다른 사범들의 활동에 까지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8월 29일 「뉴욕」의 서윤식당에서 본국입원 망미환영회 자리에는 김 기황, 조 시학, 신 현욱, 전 제배, 김 상수, 이 재복, 전 인문, 김 인목, 김 기중, 정 석중 권 오익, 장 서중, 김 경주, 장 영준, 김 일주 사범들 미국 동부지역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여러 사범들이 참석하여 주었다.

이 자리에서는 언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사이비(似而非) 태권도인의 규제문제가 거론 되었다.

이것의 현실을 보고 본국에서 실시되는 지도자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겠다는 소신을 굳히게 되었다.

8월 30일 전미국(全美國) 태권도연맹 간부들과 회합을 가졌다. 이날 회합의 내용은 품세에 대한 교재용 8「미리·필립」배부, 품세지도강사 파견, 기술용어, 간편화 등에 대한 요청과 협회활동의 무대를 해외로 확대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요청들이었다.

이런 점으로부터도 태권도 세계화의 실현을 위해 해외활동의 주역이 되고 있는 사범들에 대한 지원과 협회공보활동의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

특히 제간으로 발행되는 태권도誌는 해외 사범들이 본국의 변화를 관찰하고 협회동향과 정보를 입수하는 유일한 전문지로서 큰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들이 요구하는 영문삽입, 만화 제제등 연구과제를 얻게 되었다.

「유럽」 및 美國 시찰 소감

비단 「유럽」과 미국으로 국한된 문제라기보다 해외 전지역의 사범활동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확인하게 된 이번 시찰은 협회가 결성된 이래 가장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해외조사라는 점과 중중국 면도대신을 위한 金雲龍 회장의 폭 넓은 시책시행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물경 1천1백3십8개의 도장에서 7백9십명의 파견사범이 지도하는 44만2천명의 해외 수련생에 관한 문제는 국내 태권도인 이상의 중대한 관심사이다.

해외사범의 활약에 태권도 세계화의 성패(成敗)가 결려 있다고보아도 과언은 아니며, 해외사범들은 국위선양의 사도로서 아니 세계를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차원 높은 의의를 지닌 외교사절의 소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여행을 통하여 절감케된 문제점은 「유럽」과 미국지역을 막론하고 한국의 무도가 한국적 사교방식과 한국의 예의범절과 상이한 형태로 보급되고 있다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모두가 한국적 사상과 기술을 지도한다고 명분을 세웠을뿐 실제 본인의 생활과 사상이 「유럽」 혹은 미국의 생활 습성에 흡수되어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묘한 형태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심각히 고려되어야할 문제라고 본다.

태권도가 서구인들에게 「어필」하는 「포인트」가 “동양적인 또는 한국적인 신비를 내포한 『무도』라는데 있고 이때문에 호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잊혀가고 있는것 같다.

궁지와 주권이 결여된 사범의 모습에서의 무도는 한낱 「쇼」에 불과한 것임을 재인식 할 필요를 느꼈다.

일본의 「가라테」를 표방한 「포스터」를 내걸고 한국인연하는 태도는 빨리 시정되어야 할 문젯점이다.

태국기를 걸고 우리말 구령으로 지도하고도 외연하게 성공을 거둔 사범들의 자랑스런 모습을 볼때 우리는 경의를 표하게 된다. 우리 태권도의 내일은 바로 이런 자세속에 밝아오는 것이다.

중국인의 남은 옷(長衣)에 대국의 긍지가 서려있고 화교(華僑)들의 중국語에 애국의 충정이 보이듯, 명성(名聲) 보다는 청신하고 고귀한 정신을, 성공 보다도 스스로의 명예(名譽)를 중시하고 자신의 모습을 한국의 모습으로 투영(投影)할 수 있는 풍조(風潮)가 생겨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미국에 사는 사범의 자제들이 모국어를 모르는 것이 이상치도 않아진 이 불행이야말로 바로 태권도가 아닌 한국무예의 전통이 산화(散化)하는 모습이 아닐까?

고독하고 쓰라린 역정(歷程) 속에서 태권도의 씨를 뿌린 빛나는 업적을 오늘에 남긴 여러 사범들에게 참다운 태권도 정신 밑에 이념과 긍지가 명백한 한국의 얼굴 심어 주기를 다시한번 강조하며 이 길에 세계를 지배하는 최선의 걸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끝으로 세계 순방의 길을 열어주신 金雲龍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 드리는 바이다. ♣

자랑과 수치

==「아메리카」·「멕시코」記行==

日刊「스포츠투데이」체육부장

李 台 永



해외여행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나는 지난번 美洲 지역을 여행하면서 우리민족이 자랑할 수 있는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어느때 보다 심각히 생각해 본적이 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우기를 우리는 세계제일의 금수강산을 가졌고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임을 자부한다고 했지만 과연 오늘 우리의 현실이 금수강산과 예의지국을 자랑할만한가 스스로 반문하게 된다.

또한 우리의 선조가 슬기롭고 용맹스러운 열과 찬란한 문화예술을 남겼다고 하지만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만큼 오늘의 우리의 존재가 뚜렷치못함을 어떻게 하랴.

그래서 해외에 나가「코리아」이라고 하면 전통문화도 자주역량도 없는 후진국의 하나라고 무시할 당할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런 나라도 있다는 태도의 질문을 받고 볼때 해지기도 한다.

우리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들었고「빌슨」보다

더 뛰어난 명장(名將) 충무공을 가졌는가하면 석굴암과 같은 빛나는 예술작품과 면면히 이어져 오는 신라 화랑의 정신이 있다고 외쳐본들 한국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는 그들이 이 사실을 그대로 믿어줄 까닭이 없다.

역시 세계는 크고 넓다. 이러한 세계를 대할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微微)하며 다른나라 다른 민족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래도 미국인들은 그들이 들고있는 우방이라고해서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단편적으로나마 알고있지만「멕시코」인들에게는「스페인」말 그대로『요·노세』(나는 모릅니다)라는 한마디로 표현된다.

안다는건 한국이 분단국가이며 20여년전 남북의 동일민족간에 처절한 전쟁을 빚었고 지금은 남북간의 대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베트남」전쟁에 파병(派兵)하여 용맹을 떨쳤다는 등의 기본적인 상식 뿐이다. 좀 관심이 있는 지식층 인사들은「무엇때문

에 제임령이 선포되었느냐」고 국내사정을 묻기도하고 『한국인속에술단의 공원을 보고 감탄했다』고 추켜주기 도 한다.

아무튼 한가지 분명한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면보다는 부끄러운 면이 더 많이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과 반응은 나를 실망케했다. 실망정도가 아니라 화를 터뜨릴 때도 있다.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몹시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여행에서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를 방문했을 때 나는 호듯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나의 일행(한국 남녀 배구팀)이 공항에 도착하자 일행을 마중나온 「멕시코」인 한사람이 악수를 청하면서 『웰컴 스트롱·코리안』이라고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나는 「스트롱」이란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반문해보니까 이런 설명이였다.

그가 미국 유학중 한국 유학생의 태권도 시범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한국인이 얼마나 용기 있고 강인한가를 알았다는 것이다. 그는 아마도 태권도를 신기(神技)처럼 생각했던 모양이였다. 그위로 그는 미국서 태권도를 배워 당시 1년 남짓 수련한 그 기술을 지금도 큰 자랑으로 삼고있다고 했다.

그의 설명으로 나는 「멕시코」에도 한국인 태권도 사범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며칠뒤 한국과 「멕시코」간의 친선배구 마지막 경기가 벌어진 자리에서 한국사범을 만났다.

이름을 文大元씨(39세) 「멕시코」에서 하나뿐인 태권도 사범이다. 그의 인격이나 실력은 전혀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이 먼곳 외딴땅에 와서 한국을 빛내고 있다는 그걸이 대견스러웠다.

처음으로 「멕시코」를 개척한 그의 활약성을 들어보면 53년부터 미국 「텍사스」에서 태권도를 지도했던 文 사범은 「멕시코·가라메」 협회의 초청으로 69년 「멕시코」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일본 「가라메」 산하에 있었으나 태권도의 기술이 뛰어나움을 인정받아 「코리안·가라메」라는 이름으로 도장을 차리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수련생의 수는 해마다 늘어 3년이 지난 72년에 이르러 9개의 지관(支館)을 두고 2천5백명을 배출했다. 또한 72년 「멕시코·오른·가라메」 선수권대회에 처음 그의 지도를 받은 태권도 선수들이 출전하여 태권도와 「가라메」의 실력대결이 벌어졌는데 두가지 「스타일」의 1술을 절충하여 만들어진 규칙에따라 경기를 진행, 태권도 선수들이 「트로피」의 80%를 차지했다.

文 사범은 『멕시코인들이 격정적인 면이 있고 한국인의 기질과도 흡사하여 「가라메」 보다는 태권도를 더 좋

아하는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멕시코인들도 이제는 태권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멕시코」 전국을 휩쓴 한국남녀 배구팀의 국위선양도 컸지만 참주지를 홀로 개척한 文 사범의 민간사절로서의 공헌도 결코 경시한 수는 없다. 그야말로 「스트롱·코리안」을 실증(實證)하고 태권의 기합소리와함께 한국의 얼을 이역에 심고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태권도가 너무 잘 알려져 있다. 『한국 사람은 모두 그렇게 힘이 세나』든가 『당신도 태권도를 할줄 아느냐』고 질문받기도 여러번이였다.

미국은 철두철미한 자본주의 사회요 인간이 물질화되어가는 고도문명국가다. 그런 체제속에서 도(道)를 찾는다든지 좀 어울리지않는다. 그들에게 태권도가 신비롭게 보여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태권도는 하나의 술(術)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할 것 같다.

미국에 있는 많은 한국인 사범들은 그들에게 바로 「술」을 전수(傳授) 하는것을 업(業)으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정신자본의 기업화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미국의 한국태권도 사범중에는 태권도라는 「비즈니스」에 머리를 써서 축재(蓄財)한 경우도 적지않다. 이것도 하나의 외화획득의 방법이며 한국선전의 「미디어」가 된다는점에서 자랑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미국 서부의 대도시 「로스앤젤리스」에는 전인구의 8%



에 해당하는 6만여명의 교포가 살고있다. 이가운데 부동산산업, 쉽게 말해서 부덕방을 해서 「밀리어비어」(백단장자)가 된 사람도 있고 한국식당을 열어 재미를 단단히 본 사람도 있지만 태권도 재벌이 탄생할남도 멀리 않은것 같다.

8년전 유학생으로 이곳에 발을 딛은 徐泳益 사범(34세)을 만났다. 두달전 서부지역을 무대로하여 조직된 美 태권도 연방의 회장직에 선출되었으니 그의 비장과 영향력이 대단할것만은 분명하다.

주위사람의 평가를 듣지 않아도 徐 사범의 머리가 있는 지도자임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버뱅크」·골든가(街)에 있는 새 도장으로 안내하여 그의 이론과 실기지도를 직접 보여주었다. 그의 지도는 이론을 바탕으로하여 힘에 의한 기술에 철학과 예술을 도입함으로써 수련생들에게 색다른 흥미를 느끼게 하는것 같았다.

설교조의 열변을 마치고난 그는 반쯤은 신 목소리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저 맹목적인 힘의 과시만은 안통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러자면 이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도방법을 개선해서 머리를 써야지요. 태권도가 「미즈네스」를 잘하면 미국인들에 보다 파고들어가 일본 「가라데」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상임태권도의 권위자이기도 했다. 6년사이엔 2개

의 도장을 갖고 매달 7천「달러」의 회비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니까 한해에 몇만「달러」를 버는셈이 된다. 일본 「가라데」 사범의 수입보다 훨씬 낫다고 한다.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이 잘싸웠다는가 서독에간 한국 광부들이 부지런히 일한다는가 「아프리카」에서 한국인 의사의 주가가 높아가고 있다든가 하는것 보다도 훨씬 자랑스럽고 흐뭇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자랑속엔 부끄러움도 있다. 미국에 있는 태권도 사범들의 실태를 보면서 나는 어떤 불만스러운 의문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따져 묻기도 했다.

그것은 첫째로 주제성에관한 문제, 둘째로 내부분열에 관한 문제, 셋째로 주역 구구식 맹목에 관한 문제였다.

첫째의 문제는 명칭에 관한것. 어째서 태권도가 「가라데」를 능가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모두가 한결같이 「가라데」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냐는 점이다. 미국땅에 「가라데」가 먼저 뿌리를 박고 그들에게는 「가라데」가 국제공용어로 인식되어있고 따라서 「가라데」라는 「타이틀」이 아니면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심정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 태권도가 크게 번창하여 「가라데」를 능가할 정도가 되었다면, 또한 앞으로 미국이 태권도의 지배 아래 놓일 것이라는 전망이라면 지금 당장의 불편과 불리가 있더라도 태권도라는 이름을 강조하여 그들의 인식을 바꾸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구차하게 「코리언·가라메」니, 「가라메」(태권도)니 하는 주석을 달 필요가 있는가 묻고싶은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태권도사범들이 하나로 뭉쳐지지않고 저마다 뿔뿔히 흩어져 제가끔 내가 제일이라고 뽐내며 남을 무시하고 혈투는 좋지못한 타성을 직접 목도하고 개탄치 않을 수 없었다. 동부와 서부에, 그리고 같은 「뉴요크·시티」 안에서까지 세계 또는 미국 태권도 연맹이 난립하여 서로 정통성을 고집하기도하고 사범간의 친목은 커녕 행정적인 연락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고보면 한국태권도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수련지도의 손이 모자라서 보조원을 데려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백「미터」도 안떨어진 바로 이웃에 새로운 도장을 차리고 나가서 회원들을 뺏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셋째로는 상당수의 한국사범들이 자신의 경력을 울림고 마치 연금술사(鍊金術士)와도 같이 주력구구식의 지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론도 없고 창의성도 없는 그런 맹목의 지도는 위험스러운 것이다.

언젠가 한국사범이 어느 흑인에게 힘에 의한 기술만을 가르치고나서 그 흑인의 도전을 받고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보니 태권도 자승자박(自勝自縛)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태권도의 생명은 어느 도(道)라는데 있다. 그리고 예(禮)는 태권도의 「물」이다. 『도』와 『예』는 정신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것을 이론으로 체계화하는 데 반드시 철학이 따라야 한다고 믿어온 터였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한국의 자랑이라는 태권도의 「이미지」를 흐려놓았다고 단정할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점이라는데 대해서는 재론이 있을 수 없다.

미국에서 만난 어느 한국인교수 한분은 태권도가 국위선양을 하고있다는 화제끝에 이런 이의를 제기했다.

『나는 한국을 해외에 과시하는데 태권도를 내세울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 한국군이 세계빛이라고 할때 도마찬가지였다. 우리민족이 세계에 자랑할만한것이 도무지 싸움뿐이라니 서글퍼진다. 외국인들은 한국인을 가르켜 싸움잘하는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나는 이러한 무력적인 것보다도 우리의 고려자기와 석굴암과 칠성대와 같은 문화유물을 그리고 춘원 이광수씨, 「도회지」·오페라의 유인상제와 같은 문인·예술인을 자랑하고 싶다』

그러나 이에대한 태권도 사범의 반박이 보다 수궁이 갔다.

『확실히 우리 선조들은 빛나는 문화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오늘을 보라. 무엇이 계승되었는가. 고려청자나 이조 백자는 당대에서 끊어졌고 「노벨」상을 탐낼 인문조차 없지않은가.』

결국 논쟁은 여기서 끝났다. 곳이 그 승부를 가릴 필요도 없거니와 서로 전구기엔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였다.

만일 이자리에 외국인인이 있었다면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인이 지능적인 면에서, 또는 정신적인 면에서 우수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재의 주어진 여건에서 한국이 해외시장에 팔 수 있는 상품(?)은 동양적인 영(靈)과 육(肉)의 신비감 바로 그것이다. 한국의 인삼과 태권도와 같은……. 한국은 우선 이차원을 보다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여기에 다른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다.

『오늘에 이르러 태권도의 기술은 역학적인 분석에 의해 과학화되었지만 원초적인 신비감, 그리고 정신적인 도(道)와 예(禮)를 버려서는 안된다. 그것은 바로 태권도가 지닌 매력(魅力)이며 마력(魔力)이니까……. 또한 한국의 태권도가 신라의 화랑(花郎)으로부터 비롯된 정신문화와 직결되는 것이며 전통적인 민속무예(武藝)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

「터키」의 「태권도」

(「유럽」·中東紀行)

京郷新聞社 眞部長 金 鍾 玉

「터키」의 각지에는 40여개소의 태권도장이 있고, 수도 「앙카라」市에만 12개소, 「이스탄불」에 9개소가 있었다. 이들 도장의 한 가운데 벽에는



(필자)

반드시 태극기가 걸려있고, 그 안에서 통하는 구령은 「차렷!」을 비롯하여 모두 韓國語.

—(本文에서)—

英語는 생각하던만큼의 國際語는 아니었다. 「터키」의 「이스탄불」이나 「앙카라」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아테네」나 「로마」에서도 그러했지만 파리에서는 뜻 밖에도 영어의 不通率이 높았다. 韓國의 경우 觀光客內所에 가면 적어도 영어를 하는 사람 한둘을 찾기는 쉬운 일인데 그 쪽의 사정은 그럴질 못했다.

가끔 영어를 하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흔히 AFKN의 電波나 美國映畫를 통해서 들던 그런 영어가 아니었다. 자기네 國籍의 「애센트」가 지독하게 섞인 도무지 알아듣기가 거북한 그런 말투가 대부분. 유독 내쪽만 통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낯선 남의 땅에서 무척 수치스러워서 몸을 바를 물랐겠지만 쌍방이 合意한 것처럼 안 통하는 처지가 되고 보니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못해 든든하기까지한 심정이 되었다.

반쯤은 병이리가 된채로 지구를 돌았다. 기간은 54일. 지난 8월 1일 「문현」 올림픽 新聞通信取材團의 일원으로 出國을 한 것이다.

「홍콩」을 거쳐 도착한 곳이 「이스탄불」, 몸씨 더운 여름을 맞고 있었으며 눈여겨볼 평화로와보이는 도시였다. 그리고 「터키」에는 한국이 잘 알려져 있었다. 그들이 動亂에 參戰 16개국 중의 하나였다는 까닭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跆拳道가 맹렬한 기세로 보급되고 있다는데 큰 힘이 있는 것도 같았다.

「이스탄불」 공항에서 내 國籍이 「사우드 코리아」나 「노르」나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 그럴만큼 「터키」는 共產圈에 대해서는 아직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처지였다. 공항에서 택시를 탔는데 운전수는 내가 한국인이란 것을 알자, 『미스터 「조수세」를 아느냐?』고 물는다.

내가 고개를 갇우뚱 하면서 모른다고 대답하자 운전수는 엄지손가락을 펴보이며 『미스터 「조수세」가 한국인 태권도 사범인데 「터키」에 많은 제자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자기도 『그의 生徒』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조수세」는 趙秀世(30)였다. 현재 태권도 6단. 1970년에 이곳에 와서 태권도 보급에 힘을 기울였고, 태권도 인기의 폭발과 더불어 그는 외국인으로는 드물게 「터키」정부의 공무원이 되었다. 趙씨의 직함은 「터키」體育省의 技術部長, 部長級이지만 외국인인 만큼 그가 받는 대우는 그쪽 출신의 次官級과 맞먹는다는 것이다.

「터키」의 각지에는 40여개소의 跆拳道場이 있고, 수도 「앙카라」市에만 12개소, 「이스탄불」에 9개소가 있

었다. 이들 도장의 한가운데 벽에는 반드시 太極旗가 걸려 있고, 그 안에서 통하는 구멍은 「차렷!」을 비롯하여 모두 韓國語.

전국도 1만명 이상의 태권도 수련자가 있고, 한국 태권도 사찰단을 통해 배출된 有段者가 지난 8월 현재로 12명이나 등록돼 있다.

이 나라에서 정부기관 안에 태권도 기술부를 들인만큼 열성적인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듯했다. 국내에서는 左翼系 청년들의 난동이 빈번했으며, 이를 진압하는데 태권도 승씨가 큰 효과를 발휘했다. 그리고 완력적인 청소년들을 묶어서 수양을 시키는 데도 태권도 장은 크게 이바지 한다는 것이.

기왕 자랑스러운 동포의 얘기가 나왔으니가 말이지만, 외국에 공적에 있는 韓國人으로는 金聖文(40)도 만났다. 경북 경주태생인 김씨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環境設計課長직에 있었다. 6·25동란을 서울大 美大 재학중에 맞았던 그는 慶北大學에서 植物學을 전공한 뒤 한때는 大邱에서 고등학교 교편을 잡기도 했었다. 12년 전에 「덴마크」에 와서 王立「아카데미」의 건축과를 졸업했다. 내가 「코펜하겐」에 들었을 때 김씨는 한창 화제의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는 「코펜하겐」 중심가에 가까운 한 公園에다가 史上 처음으로 어린이 公園展示會를 마련하고 있어서 이곳 유수의 「매스컴」들은 그의 업적과 인물에 대해 크게 취급을 하고 있는 참이었다.

公園展示會에 출품된 그의 作品은 명칭 그대로 어린이를 위한 것들이었다.

童心이 현질축만큼 다양한 고운 색깔의 「플라스틱」器物들. 그는 이 설계를 위해 兒童教育者와 心理學者들의 충분한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널판 모양으로 된 「플라스틱」조각을 하나 하나 얹으면 소품장난용 집이 되기도 하고 미끄럼틀이 되기도 했으며 또한 아동용 침대로도 변형되는 魔術의 幻想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이 어린이를 위한 發明을 김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國際特許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미국을 위시한 「캐나다」, 「스위스」, 西獨, 일본, 「이스라엘」, 「스웨덴」등 각국에서 그의 발명품에 대한 수입신청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세계 각국은 觀光客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 특히 인상적인 경우는 「덴마크」. 기후도 그다지 좋은편이 아닌데다가 자랑할 만한 古蹟이나 역사 遺物도 이 나라에서는 그다지 볼 것이 없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심지어는 그들의 社會保障制度

를 보여주는 「코스」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덴마크」를 비롯한 北歐 3국에서 눈을 끌었다. 「프리섹스」의 선전이 근 몇년간 「섹스」博覽會나 무언이 하는 해괴한 명칭을 한 일련의 행사들로 이 나라들은 화제의 대상이 되었었다. 그래서 많은 자리에서 추측하기로는 이 「덴마크」나 「스웨덴」 「노르웨이」 사람들은 사회 보장제도가 너무 잘된 나머지 생활에의 진진한 意慾을 잃은채 가련한 動物로 전락해 가는 것이 아닌가. 또는 이 나라 사람들이 완전히 道德感情, 수치감을 잊어 버린채 創世紀 인류처럼 벌거숭이로 거리를 배회하며 민망스러운 사태를 줄곧 演出해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환상에 사로 잡힐만도 했다.

그러나 「덴마크」 現地の 사정은 달랐다. 女子들은 정숙하고 착하고 부지런했고 「히피스타일」의 청소년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남성들도 성실해 보였고 건전했다. 시내 중심가에 「섹스」 玩具나 煽情의 책자, 「필름」을 파는 가게가 있었지만 그 근처에 얼씬거리는 사람들은, 적어도 「덴마크」 國籍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性遊藝가 연출되는 「나이트클럽」의 자리를 배우는 것도 역시 관광객이라 이름하는 외국인들이었다.

말하자면 「프리섹스」의 확자지절한 宣傳은 「덴마크」로 보아서는 외국인을 유혹해 들이려는 方策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졌다.

「프랑스」는 아름다운 人造環境과 「루브르」博物館에 가득찬 美術品으로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보고 있었다. 앞서 英語의 威力에 대해 새삼 실망을 털어냈지만, 「프랑스」야말로 그 감정이 더욱 절실했다. 일상의 조그마한 의사표시마저도 손짓발짓이로는 통할망정 영어로는 안 통한다는 무렵이 나올 정도였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외국인들에게 거드름을 부리는듯한 인상이었고 自國 「프랑스」語에 대한 우월감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文化에 대해서는 못대놓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프랑스」사람들 앞에서 저항을 느끼지 않을 외국인은 아마 드물것이다. 외국에서 제명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친절을 보여주기에 그렇게 인색한 국민 또한 드물 것이다. 그러나 空港이며 박물관은 관광객으로 붐볐다. 「유럽」의 관광 「코스」에서 「로마」와 「파리」를 빼고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은 否定할 수 없었다. 그럴만큼 볼 것이 많았고 구경거리들을 요소요소해 잘도 배치해 놓고 있었다.

「이탈리아」도 구경거리가 많다. 「로마」의 遺蹟들. 그것은 적어도 오늘날의 人類의 建築승씨가 별로 발전한 것이 없지 않는다는 懷疑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웅장하고, 빈틈없이 精巧했다. 거기
도 관광객이 물밀듯 한다. 「그리스」의 「아테네」에도
古代 文明의 산물이 많이 남아있었다. 여기에도
관광객이 많았지만 이상스럽게도 알사의 「파리」나 「로
마」에서 본 그런 유의 관광객과는 다른 인상의 사람들
이었다. 관광객에도 등급을 매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리스」에서 만난 사람들중 많은 수가 低質로 보였다.
남의 나라에 와서 실컷 구경을 하고 돌아갈 사람이라
면 가끔적이면 구경값을 좀 두둑히 떨어뜨리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이도 젊은 층들이
대부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떨어뜨릴 돈이라고는 전혀
가지고 있지도, 가져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처럼 초라
한 행색이었다.

맘에 걸은 색깔 「티샤쓰」에 너털너털해진 반바지.
손에는 「코닥」회사제 철이 벗어진 「인스턴트 카메라」
가 가장 큰 귀중품인 듯 싶었고, 장남이나 끼고 다닐
듯한 조그만 동그라미 색안경을 많이도 끼고 있었다.
이른바 「히피」족들. 「유럽」 각국은 물론 大西洋 건너
의 미국에서 잡지 물려온 이들은 보기에 따라서는 다른
관광객에게 구경거리가 될만한 행색들이었다. — 이
곳에 온지 얼마나 됐나?

『2개월쯤……』

— 어느 나라 사람인가?

『미국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왔다』

— 그토록 오래 머물렀으면 비용이 많이들텐데?

『그럴 것도 없다. 3등 여객선으로 와서 이곳에서는
하루 5「달러」 이상 세 본 일이 없고, 더 쓸래야 쓸 돈
도 없는 걸』

— 회랑고적에 대한 인상이 어떤가?

『전종지식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괜찮았던 것 같다』

— 당신은 고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우리 미국에는 이런 고적들이 없지만 그렇다고 내
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없잖은가?』

— 그렇다면 왜 「그리스」에 왔나?

『이곳이 외국인의 풍속에 대해 비교적 관용스럽게
때문이다. 우리는 자유롭기를 원한다.』

이 대화는 그곳에서 만난 한 미국출신 젊은이와의
一問一答이었다. 그는 내가 흔히 보아왔던 「히피」족이
었다. 수염이 덩수룩하고 몹시 키잡다는 투로 神殿의
물속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와 이야기하는 것마저 피곤하다는 투의 표
정이었다.

이 젊은이와 비슷한 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의 관

광지에는 너무나도 많았다. 훌륭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도 「프랑스」나 「이태리」처럼 잘치게 팔지를 못하는 것
을 외국인인 내가 보기에 도 안타깝기까지 했다. 「그리
스」에 비하면 「프랑스」쪽은 너무도 미운 商賈이 도처
에서 번득이는 듯 싶었다. 「루브르」박물관에 들어가도
눈으로나 겨우 작품감상을 하거끔 특수한 조명을 해왔
기 때문에 가지고싶은 작품의 사진은 밖에 나와서 「프
랑스」인의 가게를 통해 사야 한다. 웬만한 「카메라」사
진에 대한 기능이 없는 「서터」를 눌러 보았자 사진이
안되도록 照明을 배려해 놓은 것이다. 박물관 입장은
는 입장료대로 받고 사진은 밖에 나와서 「別途購入」
토록한 이들의 관광商術이 바가지라면 「그리스」쪽은
단연 여처구니없는 「바겐세일」이요, 「덤핑」이랄 수 밖
에.

올림픽의 꽃이 만발했던 現場, 西獨이 「뮌헨」에서
2시간 남짓한 거리에 독일의 「나치」병정들이 유대인
을 학살했던 強制收容所가 그대로 남은 지역이 있었
다. 「다카우라」는 이곳에는 그 惡名높았던 「아우슈비
츠」와 「트레보르카」 다음으로 많은 유대인이 유대인이
라는 하나만으로 「치르론 B가스」를 마시고 죽어갔던
수용소의 구조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나는 그곳을 둘러보았다. 밀리 주책지가 둘러싸 보
이는 벌판에 자리잡은 회색의 담장에 싸인 건물. 그
바깥쪽은 높이 넘직하게 둘러쳐져 있었고 늘 위를 高
壓電流가 흘렀을직한 철조망이 열기설기 덮여 있었다.
그리고 담장의 모퉁이마다에 높다란 망루가 솟아있고,
망루는 금방이라도 銃彈세례를 퍼부을 것만 같은 機
關銃塔이 설치된 채로 었다. 殺氣를 풍기는 현장. 정
문이 되는 육중한 쇠문 앞에는 “Forgive, but do not
forgive!”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말라)는 패말이 선명
하게 매달려 있었다. 첫 눈에는 그 글귀는 유대인들의
恨이 뱉힌 絶叫을 외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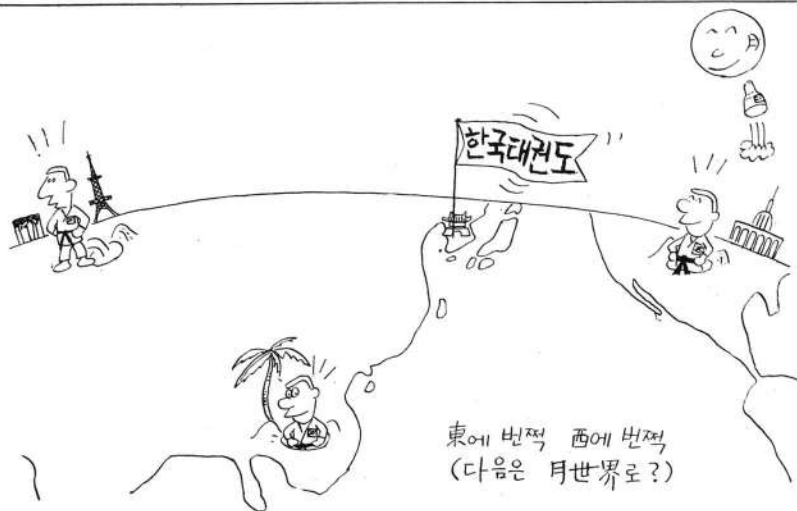
몇번 만나도 「페르포드」를 일일히 꺼내보여야 경기
장 출입을 허용한만큼 지극히 냉정하고 사무적인 그들
이 「올림픽」 취재를 온 외국 記者들을 이 부끄러운 옛
상처속으로 불러들인 것은 어떤 의도에서였을까?

그런 의문을 되풀이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수용소,
현장은 나치의 殘虐相을 웅변하는 것이었다.

산처럼 쌓인 유대인의 시체더미 속에서 長銃을 들고
웃으며 선 독일병정의 얼굴, 그것은 인간의 얼굴도 惡
魔의 얼굴도 아닌 하나의 機械같은 모습으로 저급까지
내 머리속에 남아있다. ❀

跆拳道漫評

박영래



그 며느리는 유단자였습니다
(빨래 방망이가 필요 없습니다)



제 53회 전 국 체 육 대 회

金 順 培



수 있을 만큼 경기수준도 높고 그 의의도 매우 큰 것이다.

그러나 이 대회에 참가한 선수 가운데 첫 경기일(7일)에 5명이나 제체에 불참하고, 7명이나 실격을 당한 일과, 들쭉날(8일)에 3명, 최종일(10일) 결승전에서 무승부가 된 선수를 제체 해본 결과 자기체급 최하위의 무게보다 2kg이 모자라 패를 당한 것과 같은 사례는 남뜰키 어려운 일들이었다.

그들은 체육대회 이전에 예선대회를 거쳐 온 선수이고, 우승의 꿈을 안고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대부분이 있다

1972년도 전국체육대회 대련도 경기는 10월 6일 부터 4일 간에 걸쳐 서울운동장 배구「코트」 특설 「링」에서 예년보다 많은 관중 앞에서 질서있게 진행되었다.

71년도에 3백52명 선수가 증진의 경기규정 1분 30초 2회전 중간휴식 30초로 4일간에 걸쳐 끝냈던 것을, 72년도는 고등부와 일반중기 고기부에 선수 2백64명이 2분 3회전 휴식시간 30초의 경기로 2백63「게임」을 4일간에 끝낸 것은 다소 무리한 시간의 제한이 따랐으나, 소년부를 분리해 놓으므로써 예정 마지막 경기일 10일 하오 3시에 경기를 완료하고 시상식에 입할 수 있었다.

국내 대련도 년중행사 가운데 그 비중이 큰 것으로 단련전은 대통령배 정달 단체 대항전을 들 수 있고 개인전은 전국체육대회를 능가하는 「빅·게임」은 없다.

이 경기는 향토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다는 또다른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싸우게 되므로 일반경기에서는 볼 수 없는 「엑사이팅」한 열기가 뿜어지게 되고, 매우 흥미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또한 각 도별로 그 예선을 즐기고 올라온 정예 선수들이 각축하는 모습에서 한해의 대련도들 가름 평가할

는 점에서 제체실적의 충격은 한층 고조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무기 경기에 있어서 개체 문제는 「링」위에 오르는 첫 관문이고, 선수의 「전디선」 조절은 체중 조절에서 이루어 진다고 보아 파인이 아닐진대 체중한번 「체크」해 보지않고 경기를 맞는 선수 및 그 감독 「코치」의 무성의와 용기는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72년도 개정된 경기규정 가운데 한번 제체하여 그 체급에 넘거나 모자라면 다시한번 체중을 조절한 후 제체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관용적인 규정이 제정된 것도 실은 선수들의 애석한 실격을 방지하려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인데, 지금도 무더기 실격이 나오고 있음은 「코치」와 감독에게 책임을 돌려야겠지만 선수 자신도 제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출전에 임하여야겠다.

한편 기술면에 있어서의 진전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으나 고등부와 일반중기의 중량급선수들의 민첩하고 패기에 넘치는 모습은 경량급의 경기를 보는듯 경배하고 경량급에서 오�히려 문란 동작을 보인것은 기현상 중에 하나였다.

과거 출전선수의 기술은 경량급에서나 섬세오묘한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상식이 었으나 올해는 「페더」급과 「펠터」급의 출전 선수가 많고 이 급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준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과거 선수신체형(選手身體型)에 있어서 「페더」나 「펠터」급에서는 중풍하고 적은 선수를 볼 수 있었으나 근년에는 키가 크고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는 선수가 나옴으로서 보다 「스피드」화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현상은 국민영양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일단고기부의 서동원(徐東源) 선수는 정돈된 기본기와 충분한 연습량에서 나올 수 있는 빠르고 정확한 동작을 보여 우승을 차지 했으나 경기중에 상대편을 야유(揶揄)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필요 이상의 고함과 이상스런 「모션」을 보인것은 고쳐야 할 일이다.

국내 「해비」급의 「샘피온」 자리를 둘러 온 선수라면 좀더 의연하고 모범적인 경기운영을 하였어야 흠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비록 『주희』 하나의 점수 차이로 서울의 이언기 선수에 분패하고 온 「메달」에 어문 「라이트」급의 강용기(姜龍起) 선수의 차분한 「태너」는 하위에 처전 제주 「팀」에 성원을 보낼 만큼 흔들렸고 앞날에 기대를 걸기에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각 도별 동위를 보면 52의 우승도인 전북이 1위를 그대로 「마크」했고, 전년도 8위에 머물렀던 경기도가 크게 분발하여 1위와의 점수가 1.5로서(전북 164.5 경기 163) 2위를 차지했다. 전년도 3위의 전남 「팀」은 준준결승전까지는 선두를 달려 그대로 우승전에 나서다가 했으나 강호 전북과 「다크호스」 경기도에 패퇴하므로써 3위에 머물고, 4위는 작년도 2위팀인 서울이 차지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앞서 밝힌대로 무승부 때에 제체결과 실적을 당하므로써 준결승에 전체점수를 물수당한데 크게 영향을 얻어 3위에서도 밀려나는 불운을 맞은 일이다. 저를 제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 외에 6위 부산, 7위 경남 8위, 충북 9위, 강원 10위, 제주 11위, 충남의 기록을 냈고, 전국체전에 여러번 참가한바 있는 재일지부(在日支部) 「팀」은 처녀출전의 재미(在美) 「팀」에 뒤지는 13위를 하므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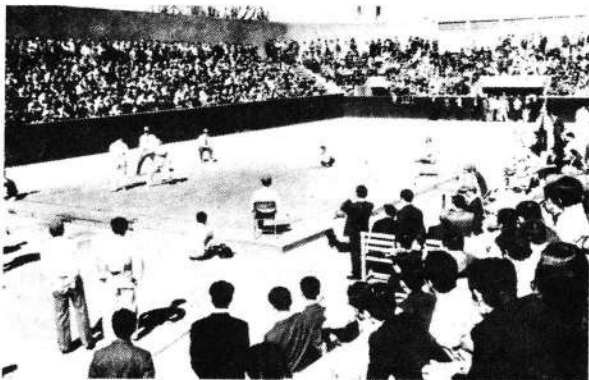
3 년만에 출전하여 그 침묵에 기대를 걸어 본 것이 무위로 돌아갔다.

대회기간중 연일 「매스런」의 「스포츠 · 라잇」을 받은 재미(在美)팀의 이일영(李日永) 선수는, 독립투사(33 인종의 한분) 李甲成응의 손자로서 주목을 끌었으나 첫회전에서 국내 고등부의 「샘피온」인 동산고등학교의 이철주 선수를 맞아李宗의 열띤 응원으로 무위로 K.O 패를 당한 것은 차라리 안타까운 광경이었다.

끝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대회를 위하여 협조와 봉사를 아끼지 않았신 지방일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평하고 성의있는 경기운영을 관장한 중앙의 심판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

제53회 전국체전 「메달」 획득 일람표

순위	매 달	금	은	동	점 수
	서울	6	1	4	
	경기	6	6	1	
	강원	1	2	5	
	충북	2	2	3	
	충남	0	0	5	
	경북	2	3	3	
	전북	1	3	4	
	경남	1	2	3	
	부산	1	3	3	
	전남	1	1	12	
	제주	0	1	4	
	재미	0	0	0	
	재일	0	0	0	



演武시범少考

서울신문체육부기자

최창신

태권도협회는 韓國을 찾고 외국인님들이나 국내 향사를 위해서 2월중으로 조직적인 연무(練武) 시범단을 편성,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회가 밝힌 내용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임기응변적인 시범단 운영방법을 지양(止揚)하고 연무시범단을 협회의 상설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다. 격파를 중심으로 실기(實技)면에서 우수한 4단 이하의 유단자 15명으로 편성되는 이 시범단 「멤버」들은 기량의 유지, 발전을 위해 매주 2차례씩 모여 합동 훈련을 쌓게된다고 한다.

협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많은 태권도인들은 진작 있어야 할 일이며 『비록 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당연한 처사』라고 환영하고 있다. 이는 韓國 태권도가 발전해 가고 있다는 반가운 현상이며 태권도협회가 이제 제들이 잡혀 가면서 체도에 오르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韓國은 태권도의 중추국임을 자랑해 왔다. 국내의 태권도 인구가 1백50만이며 그 가운데 유단자만도 29만여명, 해외 37개국에는 우수사범 7백여명이 파견돼 세계 방방곡곡에서 韓國의 얼을 펼치고 있다. 호풍한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전, 그러니까 1년쯤 전까지만 해도 정녕 「빛줄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협회자체가 고질병처럼 지니고 있던 술한 모순들은 덮어두고라도 韓國태권도를 높이 평가하고 차원(次元) 높이리라고 기대에 찬 눈으로 그 실상(實相)을 보고자 원했던 외국인들에게 보여줄만한 그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자기네 나라에서 韓國人 사범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운 뒤, 보다 폭넓은 그 진수(眞髓)를 보고자 이 땅을 찾았던 외국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던가? 전년(年前)에는 韓國 태권도를 더 깊이 배우기 위해 韓國에 태권도 유학오기를 원했던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이 있어 이러한 뜻을 협회에 전해 온 적이 있었다. 협회 임원들은 물론 태권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당황해 했을 뿐이었다.

이것이 과거 韓國태권도가 차지하고 있던 불안스러운 바로였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수빈 장검』이 되어야만 했던 지난날 韓國 태권도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술(技術) 면이었고 그 중에서도 태권도에 관한 이해가 깊지 못한 외국인들에게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시범의 부실(不實)이었다.

이제까지의 시험은 전혀 준비성 없는 그야말로 임시방편적인 것이었다. 갑자기 생긴 필요성에 따라 협회는 각관(館)에서 2~3명씩의 대표자들을 뽑아다가 별로 연습도 해보지 못한채 시범에 임하곤 했다. 그러니 자연 실수가 많았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시범내용은 품예(型)와 겨루기를 약간 결집된 여러가지의 격파. 격파는 주먹으로 기와 15장을 부수거나 손날(手刀)로 벽돌 1~2장을 깨뜨리는 것 툴러차기, 앞차기, 뒤여차기, 장애물 넘어차기 등의 승관격파등 10여종이었다.

그런데 과거의 실례(實例)로 보아 이러한 각가지 시험이 단순한 한두차례의 실수로만 그쳤더라도 좀 나았을 것이었다. 수직으로 쌓여진 15장의 기왓장을 주먹으로 쳤을 때 중간부부분은 밀릴한데 밀의 서너장이 힘없이 바스러지는 경우라든지 손날격파를 하기 위해 벽돌 2장을 쌓아놓다가 그중 한장이 미리 깨져버리는 경우, 등주먹 벽돌격파등 비교적 힘든 시범에서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시범자가 그냥 퇴장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화강석처럼 밟로 까부수려드는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등……. 웃지 못할 촌극(寸劇)은 시범대회때 마다 심심치않게 보여지곤 했다. 이런 경우 관계자들은 쟁치스러움에 앞서 잔뜩 기대를 걸고 앉아있던 외국인의 무표정한 얼굴 속에서 읽어볼 만한 실상과 모멸감 때문에 몸둘바를 모르고 눈치만 살렸던지 지난날의 아타까운 실정이었다.

또한 시범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또 한가지 요소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시범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들의 시범자체를 나쁘게 평가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고 애기다. 어린이들의 시범은 한마디로 체조나 무용과 크게 다를바가 없는 애교에 불과한 것이다. 좀더 위력적이고 놀랄만한 기량을 보고싶어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이 애교가 지나치게 길어진 필요는 조금도 없

는 것이다.

이처럼 중주국 태권도의 시범이 『내용없는 「쇼」에 불과한 것』이며 기만적인 수법까지 결들여 있다는 말이 급기야 외국에 나가 있는 사범들의 입에까지 오르내리며 격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는 세계 반향으로 힘차게 뻗어가는 韓國태권도의 내일을 생각해 볼 때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기술면에서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격파에도 자랑할만한 우수 선수들이 많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 美國에 건너가 있는 朴演禧 5단의 경우를 자랑하는 후진들은 배워야 될 것 같다. 朴 5단은 국내 있을 때 양촌날 동시격파도 남들이 하기 어려운 시범을 실수없이 척척해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했다. 우리는 그 결과만을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러한 경지에 오른 과정의 숨은 노력과 인내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 연습과정에서 남보다 연습의 질(質)을 높이기 위해 자신에 맞는 철제(鐵製) 권고를 사용, 우직하리만치 끈질긴 단련을 쌓았으며 새벽에는 남산(南山)에 올라가 생나무 줄기를 때리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처럼 성실한 자세를 지닌 선수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태권 韓國의 앞날은 밝아질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에 협회에서 내린 결정은 대단히 현명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구호(口號)에만 치고그 탁상공론으로 그치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협회의 관계 임원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연무시범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앞장서야 된다. 협회 사무총장 嚴奎熙씨에 의하면 이번에 새로 편성되는 시범단의 「멤버」들에 대해서는 자주 불러서 합동훈련을 시키고 대신 그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책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게는 외국에 사범을 파견하는 경우 우선권을 주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는 이와함께 다각적(多角的)으로 운영의 묘(妙)가 살려져야 된다고 본다. 예컨대 첫째, 이 시범단제도와 병행하여 지금까지는 협회 심사에서 제외되었던 격파부분을 심사규정에 넣어야만한다. 그래야만 협회급인 유단자 모두가 격파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 그 가운데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수많은 응시자들에게 일일이 격파를 시켜본다는 게 지극히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심사규정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무나 일경기간만 지나고 심사비만 내면 승단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는 안된다. 유단자의 권위를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도 이것은 중요하다. 심사규정을 엄격히 해서 응시자의 수(數)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일단 시범단원이 된 선수들에게는 금전적이지거나 사후대책 등에 관해 가능한 한 최대한의 보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일방적으로 부려만 먹는다』는 인상이 주어져서는 안되겠다.

셋째, 처음 계획했ند대로 매주 두번씩의 연습을 제대로 지을지 해서는 안된다.

넷째, 격파에 관한 기술면에서의 연구, 개발이 끊임없이 계속 돼야 한다. 예를 들어 선배들의 훈련경험담을 발표하게 한다든지 원역선수들의 훈련상 애로점을 알아보는 일등이다. 그런가운데서 효과적인 방법이 모색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韓國 태권도는 무궁한 발전을 향한 단단대로를



달리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전(全) 태권도인의 숙원이던 태권도 「셀러」의 건립, 품세(型) 및 용어의 통일, 심사제도의 단일화 전극에 걸친 지도자 교육 등 오련동만 쌓여온 갖가지 모순과 미비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내일을 향한 도약의 장(章)을 펼친 것이다.

여기에는 기술면의 개발이 절대 불가결한 요소인 것은 물론이며 경기, 품세, 격파의 세 부분 가운데서 오늘은 격파에 대한 개선책을 생각해 보았다. 태권도인의 한사람으로서 韓國 태권도의 부단한 발전을 빌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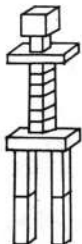
跆拳道를 위한 身體運動

漢陽大體育大學長 柳 根 碩

① 分節(分節)

人間의 몸은 200餘個의 뼈로 되어 있는 分節들이 서로 맞붙어 하나의 人間인 構造를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뼈마디들이 서로 붙어 關節을 만들고, 이러한 것이 기둥 혹은 석가래 같은 역할을 해서 사람의 형상을 짓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分節은 關節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펴지기도 해서, 운동을 하게 되고 그때마다 人體의 形態를 변형시키면서, 重心을 높였다, 낮추다 하게 한다. 이것은 바로 安全性에 크게 影響을 주게 된다.

(그림 1)



이때면 (그림 1)과 같이 짜여진 몸이 어느쪽에서든지, 外力이 이에 미쳤다고 한다면 몸은 (그림 2)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지고 만다. 그러나 實際로는 이와 같이 허무러지지 않고, 몸을 調節하여, (그림 3)과 같이 維持한다.

다시 말하면, (그림 2)와 같이 어떠한 分節이 垂直에서 傾斜의 角度를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不安 狀態를 가지게 되고, 그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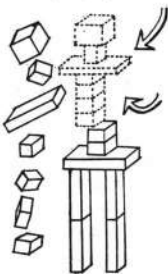
다른 部位가 重心線과 底面 關係를 維持하게 하여 姿勢를 지탱하게 된다. 이때의 筋肉의 努力은 더할 나위도 없고, 姿勢는 中心線을 境界로, 左右, 前後로 質量이 適正分配되게 된다. (그림 3). 이와 같은 여섯 대절이 몸에서 조절되어 자세를 유지하는 셈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평풍이 바로 이러한 구조로 되어있다. 사람은 a~e (그림 4)까지 앞, 뒤로 평풍같이 접히게 되어 있다. a가 발이고, b가 발목, c가 무릎, d가大腿關節, 이라고 하면, 이것들을 중심으로 각이 커지고 적어지고 하면서 重心이 조절된다.

이렇게 分節은 安全性維持에 중요한 役割을 한다.

이상 ①項에 걸쳐서 安定性的의 原理를 說明해 왔으나, 이것을 實際로 태권도에 利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가) 動作을 재빨리 이르기려면, 恒常 重心의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대로 낮게 갖고, 움직이려는 方向의 基底面의 面端에 重心線이 와 있어야 한다.

(그림 2)



(나) 急激한 停止가 必要할 때는 基底面을 可能한 限 크게 하고, 重心을 낮춰야 한다.

태권도에서 흔히 보는 「점프」나 돌러차기 같은 동작에서 재빨리 自己 姿勢를 곧 安定하게 維持하려면 (나)와 같은 要領을 지켜야 한다.

(다) 몸은 그 重心이 基底面의 위에 있을 동안만 平衡을 維持한다.

이 점은 跆拳道에서 만이 아니라, 어느 運動에서나, 같은 理致이고, 특히 跆拳道에서는 基本型訓練에 있어 이 점이 重要視되어야 한다.

(라) 몸이 空中에 떠 있을 때의 몸의 「바란스」를 維持하려면, 一定한 規範에 맞는 姿勢라야 한다.

即, 몸이 공중에 떠있고, 머리와 다리가 上方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반듯이 臀部는 밑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萬一 臀部를 위로 움직이려면 그 反對로 머리와 다리를 처지게 하면, 된다.

(마) 몸이 空中에 떠 있는 境遇에는 重心의 地面에서 부터의 높이는 몸을 如何히 움직여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身體內에서의 變動은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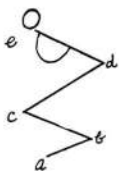
安全性 原理에서 알아 둔 問題란을 (가)~(마)에 整理하고, 다음은 話題를 옮겨, 運動 全般을 살피기로 하자.

運 動

운동에는 大體로 두가지 운동이 成立된다. 그 하나가 推進運動이고, 다른 하나가 軸運動이다. 이러한 운동은 特性을 가지고 있다.

推進運動은 物體 全體가, 같은 方向으로 같은 速度를 가지고, 같은 距離를 가는 運動이고, 軸運動은 支點을 中心으로 圓이나 弧를 그리며 운동하는 特性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츠」를 한다는 것은 이 두가지 運動이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좋은 예가 <걸기> 운동이다. 한다리를 내놓는 제까지는 軸運動이 되고, 또 다른 다리를 내놓으면, 이것도 軸運動이 되나, 全體로 보려는 推進運動이 되고 있다. 이렇게 人間의 推進運動은 軸運動이 基本이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技術의

(그림 4)



習得이나, 軸運動에서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判斷이 간다. 軸運動은 다른 말로 回轉運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運動은 角速度와 回轉半徑에 따라서 여러 가지 特徵을 갖게 된다. 即, 角速度가 一定한 경우, 回轉의 中心의 주위의 어떤 點에 있어서의 直線速度는 그 半徑에 正比例한다. 反對로 回轉의 中心의 주위의 어떤 點에 있어서의 直線速度가 一定한 때는 角速度는 半徑에 反比例한다.

그러므로, 물려 차기 같은 運動을 할때는 이 原理를 利用해야 한다. (그림 3)

힘

人間의 힘의 基本的 源泉은 그 사람의 筋力이라 하겠다. 運動에 必要한 筋力은 筋肉의 橫斷面에 比例하므로 힘을 强하게 하려면 筋肉을 키우는 수 밖에 없다.

힘을 物理的으로 說明하면 $F=ma$ 이다. 즉 힘(F)는 힘이 作用하는 物體의 質量(m) (重量/980)과 加速度(a) (v/t), 와의 函數이다. 따라서, 사람의 部位運動은 大體로 質量變動이 없으므로, 힘을 크게 하려면 a를 크게 하는 것이 重要하다.

따라서, 주먹으로 내 지를 때에, 주먹을 어떻게 딸리 내지르느냐 하는 것이 重要하다. 그러므로,

(가) 物體(주먹)가 움직이면 차를 目的 方向으로 빠르게 움직이게 하며, 중간에서 멈춤이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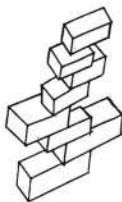
(나) 많은 힘이 同時に 作用하게 될 때는(筋肉群), 그中 弱한 筋肉에 의해서 限制되고 만다.

그러므로, 筋肉은 고루 發達되어야 同時に 힘을 쓸때에 限制이 除去된다.

(다) 人體는 大體로, 그 一部에서부터 全體에 運動量을 옮기는 까닭에 全體의 動作을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部分 質量에 速度를 乘한것은, 이 힘이 全體에 傳達되었을 때, 그 全體의 質量에 速度를 乘한 것과 같다.

(라) 打擊이나 衝擊을 吸收하려면, 될 수 있는 限, 넓은 面積이나, 긴 距離로 分散시켜야 한다.

監學道에 있어서는 이와 反對의 理致를 擊破에 있어서 利用하면 된다. 즉 擊破에 있어, 衝擊을 받는 面積이 될 수 있는 限 줄수록 좋고 被擊破物이 打擊을 받았을 때에 밀리거나, 움직여서는 아니 된다.



(마) 打擊을 가할 때는, 全效果가 集中되게 한다는 뜻에서 目的物에 주먹이 닿는 瞬間까지는, 支持하고 있는 밑을 全面 地面에 密着시켜야 한다(뉴우톤의 第3法則).

이 作用 反作用의 法則은 支持足이 地球面에 密着되어야 反作用이 可能하고 더욱 큰 힘을 作用케 할 수 있으나 발이 空中에 떠 있으면, 反作用力이 減少된다는 것이다.

(바) 지레에 있어 力桿이 걸리는 걸수록 힘의 能率은 커진다.

그러나 사람의 몸에는 이와 같은 구조로 생긴 部位는 없고, 오히려 重桿이 걸게 되어 있다. 따라서 몸의 部位를 움직이는 데는 筋力이 많이 들게 된다. 따라서 筋肉 強化는 勿論, 筋力 造成에 힘써야 한다.

(사) 力桿의 길이가 重桿의 길이에 비하여 짧으면 짧을 수록 힘의 能率은 적으나 動作은 빠르다.

(아) 힘을 效果의 爲로 使用하려면 지레에 對하여 90°의 方向으로 하여야 한다.

(자) 角速度와 重量이 같은 境遇에는 回轉의 半徑이 길으면 걸 수록 遠心力이 커진다.

(차) 원심력이 커질 수록 몸의 均衡을 잡기 위해서는 傾斜와 勾配를 크게 해야 한다.

(야) 原理를 살펴 보려는 相對를 지를때, 相對의 物全體를 하나의 지레로 생각하고, 주먹은 그 큰 지레의 重心線을 지렛대로 생각하여, 이에 直角으로 打擊을 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자)에 있어서는 半徑의 길이가 큰 回轉運動이 遠心力을 크게 낸다는 것으로, 물려 차기 같은 技術에 있어서의 半徑의 길이를 어떻게 크게 하느냐 하는 問題가 重要하다.

(차)는 원심력이 커지면서 커질 수록 몸이 밖으로 吸引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때는 均衡을 잡기 위해서 重心을 낮추고, 吸引되는 反對方向으로 傾斜나 勾配를 가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原理를 技術이나, 動作 하나하나에 利用하게 하고, 그 動作이 科學의 如何한 뜻을 가지나, 恒常分析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動作의 分析과 科學의 指導는 結局 意技力을 向上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目的은 意技力이라는 데에 歸一하게 된다.

그런데 現代 스포츠 科學에서 意技力=體力×技術이라고 되고 있으나 技術의 向上을 위한 科學의 方法과 아울러 體力 涵養의 問題, 또한 重要한 問題이다.

다음은 體力 強化를 위한 問題에 言及하기로 한다. ♣

옛 풍속에 각술(脚術)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로 대하고
서서 서로 차서 개꾸러 뜨린다. 세가지 번이 있는데 최
하는 다리를 **고려**의 **태권** (각술(飛脚
術)이 있다

이것으로 혹은 원수도 갖고 혹은 사랑하는 여자를 내기하
여 빼앗는다. 법관으로 부터 굶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다. 마구 앉아서 서로 치는 것인데 죽은이 보다 낫
다 할때에 만일 한손이라도 법에 어기면 라도 당한다.

이 석 호

— 高麗 태권의 歷史의 背景

中世에 세워진 통일왕조 고려는 서기 918년에 왕건(王建—高麗太祖)에 의해 송악(松嶽—지금의 開城)에 도읍을 정하고 935년(태조 18년)에 신라를 평화적으로 병합하고 다음해에 후백제를 멸하여 한반도를 통일하였다.

개국 이래 내치외교에 탁월한 솜씨를 보인 군왕군주들은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형성하여 국운이 융성하고 문화가 발달하는 황금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태조에서 비롯된 역대 왕들은 중국의 양(梁)·당(唐)·진(晉)·한(漢)·주(周)의 5대조와 국교를 맺는 한편 중국을 통일한 송(宋)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문물의 교환을 활발히 함으로서 모화사상(慕華思想)의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중국의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민족 고유의 온아유미(溫雅優美)한 독창문화를 창조하였다.

고려예술의 극치요 세계예술의 압권이라 할 수 있는 비색청자(翡色靑磁)와 상감청자(象嵌靑磁)는 오늘날에도 세계도공(世界陶工)들의 흠모와 경탄에 대상이 되고, 오탁하고 뛰어난 그 모습은 현대과학이 모방조차 불허하니 그 세련된 수법이야말로 고려문화의 뛰어난

을 설명하기에 족한 것이다.

특히 만월대(滿月台)의 호화스런 궁전생활과 귀족생활은 예술의 수요를 재촉하고 불교신앙에도 부흥기를 맞게 하였으니 이때의 불상, 탑파(塔波)·부도(浮屠)는 통일신라 예술에다 고려의 특성을 가미 제조한 전무후무(前無後無) 최고의 예술이었다.

서양에서 활자가 나타난 1450년 보다 226년이나 앞서는 고려의 금속활자는 <상정예문>을 출판하여 오늘에 남긴 만큼 뛰어난바 있으니, 이때를 일러 한국의 「트베상스」였다고 말하여 조금도 과장됨이 없겠다. 더욱더 영주(榮州) 부석사(浮石寺)의 무량수전(無量壽殿)은 우리나라 독조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장중한 구조와 화려하고 균형된 미를 보이고 있어 고려의 국운을 미루어 알만하다.

그후 인종(仁宗)대에 이르러 묘청의 난과 정중부(鄭仲父)의 난을 치르고 18대 임금 예종(睿宗)에서 24대 원종에 이르기 까지 왕실은 이름 뿐이고 최충헌(崔忠獻)의 무단정치(武斷政治)를 뒤루로 권세있는 자가 없고 밀어치는 가운데 1백81년을 혼돈의 시기로 몰아넣어 나라의 형편은 매우 어지러웠다.

안으로 내란이 그칠새 없고 밖으로 몽고(蒙古)의 침

략이 있어 30年이나 수도를 버리고 강화도(江華島)도 쫓겨서 피박을 받는등 국운은 위태롭게 명맥을 유지할 따름이었다. 그러다가 34대 공양왕 때 이 성제(李成桂—이조 태조)의 구메타로 몰락하기 까지 4백7십4년의 고려사는 「페이지」마다 선혈(鮮血)로 물들게 했으며 궁전을 불태우는 화염의 자취로 가득차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逆境에서 강하고 고난과 시련속에서 곳곳한 민족정신을 잃지 않는 불굴의 투지를 날게 하였으니 오늘에 찬연히 전승되어 오는 조상의 유산(遺産)들이 고려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음에 그 위업(偉業) 앞에 숙연해 질 수 밖에 없다.

현존(現存)의 경판(經板) 가운데 세계에서 최선이고 최고(最古)라고 하는 6천권 16만 면(面)의 고려대장경이 몽고의 병화를 피해서 30년의 강화 피난의 불행 속에서 이루어졌음은 불가사의(不可思議)한 기적의 소산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무장(武將)의 집권에 따라 사병(私兵)의 양성이 노골적으로 인정되고 사병의 강악에서 우열이 가름되는 가운데 삼국시대에서 발아(發芽)한 태권은 무르익고 다음어서 현재의 품새(型)에 가장 근사(近似)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 × ×

自然의 섭리가 그러하도—

적온(適溫) 적습(適濕)의 환경에서 피어난 강미와 국화의 아름다움보다, 눈보라를 무릅쓰고 아린 추위 속에서 피어난 매화(梅花)의 봉오리가 우리 조상의 귀여움을 받고 돌보이던 것도 고난의 역사 속에서 연연히 이어온 민족의 예술과 「스포오르크」가 더욱 완숙의 미를 지니는 때문이고, 경험에 의한 소산들이어서 더욱 귀하고 값진 것이다.

예술과 「스포오르크」 더 나아가서 민족의 문화는 원형원래(原形原來)의 것이 아니고, 수한 교류(交流)와 회전(回轉)에서 거듭하고 다음어지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일진대, 고려 수난의 역사에서 가장 요구되던 힘의 필요에서 성장한 수박희 태권은 다른 유산과 더불어 최고의 민족무예로 계승(繼承)되어야 할 우리의 일인 것이다.

부처님의 함을 빌어 난을 피한다는 염원(念願)은 목판에 아로 새겨야 했던 처절한 운명에서 오늘의 민족 긍지를 갖는 예술품이 쏟아져 나왔고, 오랑캐의 책동을 막고 어지러운 무신의 집권에서 필수불가결의 힘의 배양(培養) 때문에 태권의 눈부신 발전을 보였음은 고려인이 남긴 불굴(不屈)의 재성을 확인하는 민족혼(魂)의 정화(精華)인 것이다.

짓밟혀도 굴하지 않으며 아픔 속에서의 경험을 살려 발전, 방명, 장조를 계속해온 고려의 기상(氣象)이야말로 극치(極致)의 미(美)를 만든 모체(母體)였고 민족의 수호령(守護靈) 태권의 사상적(思想的) 지주(支柱)가 되었다.

저 유명한 「정기스칸」의 군대가 세제를 휩쓸고 몽고군의 말굽이 향하는 곳은 오직 승리와 정복이 있을 뿐이란 시제와 갯바위 속에서 30년을 끈기있게 항몽(抗蒙)하였고 장기전으로 국력과 인력을 다한 고려가 항복을 하게 되자 배중손(裒仲孫)을 수병으로 하는 삼별초(三別抄)는 나라에 불복하고 진도(珍島)에 들어가 세제 제국 대원(大元)을 상대로 끝까지 싸웠고, 나중에는 제주도에서 전원 옥쇄(玉碎)하였으니, 고려 무인의 급일줄 모르는 전통은 수박희에서 수련된 석막한 기상으로 한층 오늘에 빛나고 있는 것이다.

二. 高麗史에 記述된 태권(수박희)

고려사(高麗史)는 고려 34왕 475년 간의 정사(正史)를 이조 태조가, 개국후 정도전(鄭道傳), 정충(鄭摠) 등에 명하여 만든 것을 세종(世宗) 때에 정인지 김충서 등이 개찬(改撰) 완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의 문화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료(史料)로서 그 가치는 더욱 큰 것이다.

이미 본지 제2권(태권도사)에 고려의 태권이 상설히 논술된 바 있으나 다시 정리 검토해 보기로 한다.

고려사에는 태권도를 수박희(手搏戲) 또는 수박(手搏)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수박희는 무예로서 뿐만 아니라 「스포오르크」로서 즐길 수 있을 만큼 대중화되어 임금이 화비궁(和妃宮)에서 수박희를 보셨다. 마암(馬巖)에 남시어 수박희를 보셨다. [高麗史 卷 36 忠惠王 後3年 5月, 後4年 2月, 6月, 高麗史 節要 卷 25]와 같은 기록을 남기고, 무권 정치의 수령(首領) 최충헌(崔忠獻)때에 크게 보급 발전한 태권도의 성장기에는 최충헌이 「손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중방(重房—고려최고급 장성들의 기관)의 칩새자로 하여금 수박희를 행하게 하였다. [高麗史 卷 129]라는 기록이 보이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기술의 발전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계급제도가 엄격하던 고려는 치자계급(治者階級)인 귀족과, 피치자 계급인 농, 공, 상, 그리고 그 밑에 천민(賤民)과 종을 두어 엄격한 계급사회를 유지하였으나 과거제도를 실시하여 서민도 귀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천민제급에서 과거를 통하여 귀족이 되거나 출세를 하기에는 좀처럼 학문적인 체제와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으므로 뛰어난 힘을 가진 자가 수박회를 잘하므로서 왕의 사랑을 받고 크게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천민(賤民)의 아들 이의민(李義政)과 척준경(拓俊京)은 수박회를 매우 잘하므로 의종(毅宗)이 이를 사랑하여 대정(隊正)에서 별장(別將)으로 승진시켜 주었다. [高麗史 卷 128] 이러한 기록은 고려의 중앙집권 체제의 제급사회에서도 태권도가 갖은바 그 능력으로 중앙의 진출이 허용되었음을 흥미있는 일이다.

三. 海外에 심은 高麗魂 코리아 文物에 실려간 高麗의 태권

東南亞를 비롯한 구미제국(歐美諸國)에서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부르고 있음은 고려의 중국 음(音)인 「까우려리」·「까우리」가 서양에 전해져서 부르게 되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고려무역의 활발도를 엿볼 수 있고 문화보급에 공헌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뛰어난 건축술에 따르는 해의기술지원, 사지와 호사함이 극에 달했던 고려 공예품의 해외진출, 국가비보(國家裨補)의 교(敎)로 승진하던 불교의 전파 고려에서 인정된 인삼(人蔘)의 의학적 효험에 따른 항해무역의 발달, 역관이나 상인들은 삼무역(蔘貿易)으로 국가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은 수출품으로서 삼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개성에서 인삼의 인공재배를 본격화하였다. 이렇듯 빈민한 대외교섭에서 외국인의 출입이 잦고 문물과 풍속을 받아가 고려의 그것을 배웠으니, 고려의 수박회를 일본과 유구(琉球)에서 배워 갔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이미 本誌 제 2호(태권도사—趙完默選)에서 일본의 「가라데」 원조를 소상히 설명 하므로서 중복되는 것이 없지 않으나 유구(琉球)와 일본이 고려와 송(宋)에 통상 교류하던 역사에서 「가라데」의 정체가 밝혀지고 태권도의 고유성이 뚜렷해 짐은 흥미를 초월한 역사의 재발견으로서 값진 연구가 될 것이다.

× × ×

유구(琉球)는 본래 경작지가 적고 신통한 特産物이 없으므로 주민이 대부분이 헐벗고 살며, 만인의 형편을 겨우 버티는 생활을 하였으며, 태풍의 통로가 되어 있어서 사업이란 전혀 없어 항해 무역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국가사업으로 동남아 자국에서 무역품을 사다가 조공(朝貢) 형식으로 명(明)에 옹가로 팔았다.

약소한 나라의 조공을 가상히 여긴 大國(明)은 조공선(船)을 수리해 주고 배도 한척씩 하사 하는등 후한 대접을 해 주었다. 이러한 예는 고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나 중국의 경우보다 더한 후대를 하여 준것으로 기록 되어있다.

유구가 북산(北山), 중산(中山), 남산(南山)으로 삼분(三分)되었던 때에 고려에 조공을 바쳤고, 중산(中山)의 왕 찰도(察度 1321~1395)는 1389년 8월에 아들 옥지(玉之)를 사절(使節)로 해서 유구산(琉球山) 유황(硫黃)과 동남아시아산의 소목(蘇木)과 호초(胡椒)등을 창왕(昌王)에게 헌상(獻上)했다.

이에 고려는 전객령(典客令) 김윤후(金允厚), 김인용(金仁用) 등을 유구선(琉球船)에 동승시켜 예물로서 중국의 모직물과 고려청자(高麗靑磁)등을 만재(滿載)하여 보내니 이는 곧 양국의 국교수립(國交樹立)을 의미하며 고려에서 조선(朝鮮)에 이르는 수호(修好)의 태동을 의미한다.

이렇듯 유구는 고려와 송(宋), 그리고 명(明) 대를 넘나들며 교역을 활발히 하는 한편 중국 복건성(福建省)인 36성(姓)의 대거 이주를 계기로 항해술과 조선술을 배웠고, 고려에서는 도공(陶工)을 모셔다 찻간(茶器)과 기와를 굽는 기술을 익혔던 것이다.

현재에도 유구에는 고려인의 후손에 의한 사당(祠堂)이 곳곳에 보여지고 고성(古城)에서 발견되는 기와에는 「癸酉年高麗瓦匠造」라고 쓰인 부가역문자(浮刻逆文字)가 나타나고 있으나 무형(無形)의 기예(技藝)나 풍속(風俗)의 傳來는 널뛰기(跳板戲)와 7월 보름에 「에이사」라는 춤(고려 판관희 행사의 춤)으로 변모하여 전해오고 있으며, 고려의 수박회가 「오기나와·메」로서 그들 고유한 무에 임을 자랑하는 것은 사료(史料)의 빈곤(貧困)에서 오는 無形文化財의 運命이랄 수 밖에 없다.

같은 민속무에 서름은 경도잡지(京都雜誌)에 中國에서 그것을 배워 갔고 그 이름도 高麗戲라 불렀다는 기록이 전해오고 있으나 태권의 유래가 문헌의 결핍으로 증명되지 않은 점은 섭섭한 일이다.

〔京都雜誌 原文〕

都下少年會于南山之麓與之角力其法兩人對跪各用右手掣對者之腰又各用左手掣對者之右股一時起立互舉而扞之有內句外句輪起諸勢中國人効之號爲高麗技曰撥波

서울의 소년들이 남산 기슭에 모여 서로 서름을 한다. 그 방법은 두 사람이 상대하고 굽으려 각각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다리를 잡은 다음 일어나면서 서로 번쩍 들어 베어 친다. 여기에는 내구, 외구, 율기, 등의 여러가지가

있다. 중국인이 이를 본받아 고려화 또는 요교(遼敎)라고 한다.

× × ×

일본국은 백제의 문화를 전중한 이래, 한반도를 고려가 장악하자 그 전통을 이어 통상을 계속하였다.

문종(文宗) 고려 11대왕 1046~1083) 시대에 이르러 교역은 크게 활기를 띠었고, 왕은 상인을 보호하게 하는 한편 사신과 상인을 개성까지 불러서 크고 작은 행사에 참관시켜 교류를 독려 하였다.

특히 승려들의 왕래가 잦아 불교의식의 행사에는 거국적인 잔치를 벌여 가무백희(歌舞百戲)를 즐기게 하니, 문무(文舞)의 육수무(六脩舞)가 그것이고 오늘날 전해오는 악기로서 금종(金鍾)과 옥경(玉磬) 각종 현금(絃琴)과 피리(笛), 통소(簫)가 그대의 것이었다.

오락으로서의 공치기·새틀·제기·石戰, 바둑·장기·윷·연·투호 꼭두각시놀이, 광대놀이 등등이 있었으나 귀족에서 중에 이르는 전체가 즐기던 수박회의 대결은 투기「스모오르」로서 가장 성행하였던 종목이다.

이때에 일본은 「다이랴노기요모리」(平清盛)가 「다자이후」(太宰府)를 근거 삼고 송(宋)과 고려에 통상을 성하게하여 문물을 받고 재력을 확보하게 되니, 일본 서부의 토후들도 이때에 고려로 물려 들어와서 문물과 풍속을 속속 배워 갔으니, 신라, 백제 그리고 고려에 이르러 크게 발전한 수박회의 기술을 이때에 고스란히 배워갔다.

때마침 불교에는 선종(禪宗)이 들어와서 무예(武藝)의 정신적예속(精神的禮俗)으로 침투 정착 하므로서 도(道)의 기풍을 갖추어 놓았다.

따라서 이때 일본의 무사를 사이에 선종(禪宗)이 신봉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앞세워 주장하는 달마(達磨)의 선법무예(禪法武藝)의 紀元이 되는 것이다. 선종은 불교 종파(宗派)의 하나로 정려(靜慮), 좌선(坐禪)으로 내관(內觀), 내성(內省)하여 불성(佛性)을 갖고, 실교나 문자를 떠나서 즉시 불심(佛心)을 중

생에게 전하는 종파였다.

서기 5백2십년에 달마가 중국에 전하여 증 혜능(惠能)과 신수(神秀)등에 의하여 크게 발전 시켰으며 선종의 전래에 따라 권법의 체계적 정리를 가(加)하여宋에서 성세(聲勢)를 이루고 동양제국에 전파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태권의 발상지인 고구려의 연대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미루어 태권도의 고유성과 일본「가라테」의 원류(源流)는 확실히 파악이 되어 진다.

여기서 잠시 달마의 선법 유래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달마(達磨)는 천축왕지국왕(天竺香至國王)의 셋째 아들로서 본명은 보배다라(菩提多羅)라고 전한다. 그는 반야다라(般若多羅)에게 사사(師事)하여 40여년간 도를 닦고 전국 자지에 도를 전하여 이름을 떨쳤다.

그가 60세 되던해 배를 타고 동방(東方)으로 떠나 금릉(金陵)에 이른 것이 양(梁)나라 보통 원년(서기 520)으로, 무제(武帝)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기緣(機緣—부처의 교화를 받을만한 인연의 기틀)의 모자람을 깨닫고 증산소림사(嵩山少林寺)에 들어가 벽을 맞고 좌선에 힘썼다.

약 9년간의 좌선기간 중에 소림사의 중(僧)들이 허약 함을 보고 선법과 권법을 가르쳐 주었으므로 이때에 소림권법의 체계가 이루어 졌다는 설도 있으나, 근래 사가(史家)들은 史의 考證에서 달마의 實在조차 의심하는 사가(史家)가 많고 일본으로의 傳來說을 근거에 내세웠다는 점으로 미루어 소림사권법과 달마의 상(像)은 상징적인 추앙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송(宋)대에 크게 발전하였다는 중국의 권술(拳術)은 시대상으로 고려의 수박회가 성행하던 때이므로 일본이 傳承하여 3국이 함께 성행했으리란 추측과 함께 신라 백제 고구려로 거슬러 올라가 그 紀元을 찾는 우리 태권도야말로 東洋에서 가장 오래된 고유의 무예임을 입증하는데 조금도 미흡한 바가 없다. ♣

[다음호는 李朝의 태권]

알 립

심사신청서 기재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처와 현주소 성명은 한자(漢字)로 정확하게 기재할 것.
2. 증명판 사진 3매를 첨부할 것.
3. 소속 관, 중앙 본 관장의 추천서를 받을 것.
4. 2년 이상 응심자는 협회 발행 단증 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이상 4항목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을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일체 심사원서를 접수하지 않음
大韓跆拳道協會 事務處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1972년도 海外 태권도 현황

36개국에 7백여명 사범 44만 2천명 수련 !

본 협회는 72년도 해외 태권도 사범 및 해외도장 수련생의 규모를 발표했다.

작년 한해동안 15명의 태권도 사범을 파견한 협회는 현재까지 36개국에 7백여명의 사범을 파견 했으며 이들이 외국에서 경영하고 있는 도장은 1천1백38개소, 여기에 44만2천여명이 수련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미국에 3백2명이 파견되어 가장 많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이 월남으로 1백명의 사범이 23개 도장에서 2만의 수련생을, 서독에서는 40명의 사범이 75개 도장을 갖고 2만2천5백명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지역에는 日本을 비롯 자유중국, 월남, 태국, 「크메르」, 호주, 「홍콩」등 11개국에 2백명이 진출 했으며 北美洲에서는 미국 「캐나

다」등 2개국에 3백32명이, 「유럽」에는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등 9개국에 1백5명이, 중동지역에는 「이란」 「터키」에 10명이 파견 됐으며 南美洲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등 9개국에 39명,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가나」, 「오트볼라」, 「우간다」, 「코트디보아르」등 4개국에 4명이 파견 됐다.

한편 국가별 활동사항을 보면 「말레이시아」가 1백5개의 도장에서 3만명이 수련하고 있어 미국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다음이 서독으로 75개 도장에서 2만2천5백명 또 호주가 1백12개 도장에서 1만5천명, 「이탈리아」가 72개 도장에서 1만4천4백명, 「캐나다」가 53개 도장에서 1만6백명, 「오스트리아」가 62개 도장에서 1만5백명이 태권도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1972년도 5경기단체 30명 해외 파견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72년도 5경기단체 해외파견 사범·지도자의 수는 30명이며 그 대상국은 일본, 자유중국 「필리핀」, 「홍콩」, 미국, 「스페인」 태국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태권도는 10개국에 15명을 파견함으로써 파관수의 실적을 올렸고 유도는 11명, 축구와 탁구 각 1명, 배구 2명으로 합쳐졌다. ♣

「싱가폴」 파견 전형에 李聖洙 사범 선발

본 협회는 지난 12월 13일 「싱가폴」파견 태권도사범으로 李聖洙 사범을 선발했다.

李 사범의 파견은 태권도협회가 「싱가폴」 체육진흥청으로부터 태권도사범 파견을 요청받고 3차에 걸친 전형회를 통해 확정된 것이다.

李 사범은 현재 동양통신사 체육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모교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학과와 강사로 출강, 후배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무력(武力) 18년의 「비터런」 태권도인이다.

현재 「싱가폴」에는 태권도 보급이 맹위를 떨치고 있으나, 정통 태권도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난립한 상태여서, 이를 정비하고 나아가서 태권도를 통한 올바른 양육간의 우의증진이 기대되는 곳이다.

현지로 떠나기에 앞서 李 사범은 『무거운 사명감을 짊어지고 떠나는 만큼 전력을 기울여 태권도 보급에 헌신하겠다』고 말하고 『많은 지방사범 가운데 홀로 떠나게됨은 미안한 생각이나 그들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활약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 「필리핀」에 한국 태권도 「붐」 ◇—

金世鍊 대사의 특별 지원으로 朴龍萬 사범 넓은 도장 마련

한국의 태권도가 동남아 전역에 「붐」을 일으키고 있으나 유독 「필리핀」은 미답(未踏)의 개척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72년도 4월 12일 막 용만 사범이 「필리핀」정부의 초청으로 「마닐라」에 발을 딛은 후부터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되었고, 태권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金世鍊 대사의 헌신적인 지원에 감동한 교민들의 협조로 「마닐라」에서도 노른자위라고 불리우는 「마카티」區 「리찰스트리트」에 3층 50명의 도장을 차리게 되었다.

특히 선대(先來)의 「가라메」와 맞서 이길 수 있도록 불심양면의 후원을 하여준 박 문찬(朴文燦)씨는 「필리핀」 교민회 부회장으로 전매사업으로 대성(大敗), 상당한 재력을 갖고 1만5천「달러」를 도장 건립에 회사했다.

박 사범이 처음 도장을 개설했을 때는 한달만에 걸린 대홍수가 있어 수련생을 모으고 도장을 운영하는데 커다란 난관을 겪어야 했다.

이렇한 역경 속에서 각고(刻苦)한 보람이 있었는지 마침 태권도 보급을 위한 「찬스」가 찾아왔다.

제일명이 선포되고 무기 휴대가 금지되면서 「필리핀」정부는 덴주덕으로 호신할 수 있는 태권도의 필요

성을 인정 「발랑카냥」 대통령 관저로 박 사범을 불러 경호실장 자신은 물론 전 경호원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줄것을 요청했었다.

또한 73년 2월 부터는 이곳 경호관에게도 태권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있어 박 사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태권도 수련생은 지난 9월 이후 급격히 늘기 시작, 80명에 이르렀으며 한달에 1인당 50페소(약 4천원)씩 받는 회비 외에 외국인학교 등에서 1천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게 되어 생활의 기쁨도 잡혀졌다.

박 사범의 태권도 수련경력은 20여년 주한 미군을 오랫동안 지도해온 국내에서의 경력이 큰 도움이 되어 언어의 장벽을 수월하게 해결, 하나의 「비즈니스」로 성공하는 발판이 되었다.

박 사범은 출국하기 앞서 『태권도 중추국의 사범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태권도를 토착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



박 욱 만 사범

美國 이준구 도장 소식

미국 「워싱턴」에서 16년간 태권도 보급을 통한 민간 외교사절의 역할을 담당해온 李俊九 사범은 산하(傘下) 도장의 사범들의 모습을 담은 대형 사진과 근황을 본 협회에 알려 왔다. (화보 참조)

이미 협회의 72년도 세계 태권도 순방시찰에서 미국 지역 성공도장 순위 「베스트」로 「랭크」된 이준구 도장은 「워싱턴」 「커네티컷」 「아베뉴」의 중앙도장 이외

에 「도미니카」 공화국과 「하이티」 공화국 등지에 지관(支館)을 차려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특히 국기원 준공에 앞서 금일봉을 보내 고국의 태권도 발전에 관심을 보인 이 사범은 앞으로도 협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 태권도의 세계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해 왔다. ♣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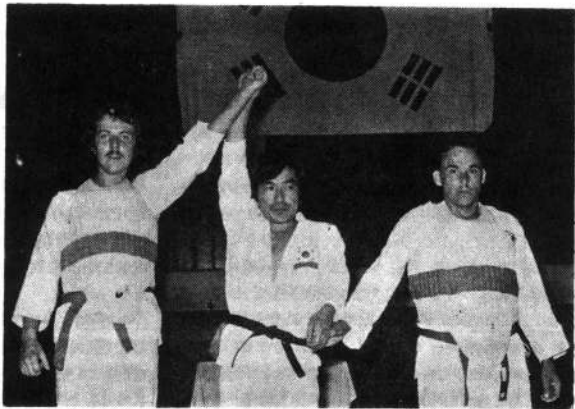
「오스트리아」 태권도 都市대항전

「오스트리아」 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오스트리아」와 남부독일을 포함하는 11개 도시의 대표팀이 참가한 태권도 도시 대항전이 72년 10월 14일 1천여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료 되었다.

이 대회에서 이경명 사범과 오승훈 사범을 비롯한 5인의 한국인 사범이 경기에 앞서 시범을 보였다.

지난 6월에 귀국하여 협회 제1기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 협회 품새와 경기규정을 익혀간 이 경명 사범은 호구를 착용하고 협회의 경기규정대로 대회를 운영함으로써 「핀렌」태권도 시범대회에 버금가는 「빅·이벤트」를 마련했다.

이 경기의 우승은 서독의 「핀렌」팀이 차지 하였고



2위는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룩」팀, 3위에 「오스트리아」 「파이겐브룩」팀이 각각 차지했다. ♣

×

×

「에쿠아돌」 전국에 늘어나는 태권도장

남 「아메리카」 대륙의 북서부에 있는 「에쿠아돌」은 「스페인」의 지배하에서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반식민지 운동을 일으켜 1822년 그 지배하에서 벗어 났으나 인접국인 「페루」 「콜롬비아」와의 국경분쟁으로 잠시 전쟁과 정변의 반복이 심한 곳이다.

또한 백인(白人) 지주의 횡포가 심해 원주민의 태권도 수련을 통해 폭력에 항거하는 자도 있어, 생활의 필요에서 온태권도는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

이곳에 10년전부터 태권도를 보급하는 한편 부영사의 자격으로 현지에 근무하고 있는 이 법재 사범의 최근 소식이 이 사범의 제자인 David Freire 사범에 의해 본 협회에 보고 되어 왔다.



2인이 한국사범이 8개의 도장에서 3천 2백명의 수련생을 지도하고 있는 이곳에는 이미 이 법재 사범이 초청해간 안 태섭 사범이 함께 지도하고 있고 「에쿠아돌」인 유단자의 배출로 국토의 곳곳에 도장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 법재 사범은 中央대학 정치과를 졸업한 현직 외교관이며 사범이라는데 현직자의 존경은 대단하여李 사범에 가는 모국의 기대는 더욱 크다. ♣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카나다 尹伍長 사범 서신—

3년전부터 「카나다」의 「몬트리얼」에 태권도 도장 (OHJANG CLUB)을 개설하고 「카나다」에 태권도 「불」을 조성하는데 앞장섰던 윤 오장 사범의 현지소식이 전해왔다.

윤 사범의 보고에 의하면 피나는 노력의 결실로 태권도가 한국의 고유무예로 현지 수련생에 납득되어졌고, 태권도가 한국의 국기로서 신피받는 「스포츠투」로 자리를 굳혔으나, 최근 최 흥희씨가 와서 「태권도의 창시자가 최씨 자신이며 과거 일본에서 「가라테」를 수련하다가 분에 맞지않아 한국에 건너가 태권도를 시작, 지금은 세계 60개국에 자기의 태권도 도장이 있다」고

허위 선전 및 망발을 늘어놓고 다니므로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현지 사범들은 변호사를 통해 최씨의 망발을 규탄하는 고소장을 제출 중이며, 한국의 역사 속에 자라는 민족무예를 개인의 영리와 이익을 위해 말살(抹殺)하려는 행위에 분개하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협회 측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씨의 경거망동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태권도 중추국의 체모를 손상 시키는 어떤 종류의 행위가 계속 될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 ♣

▲▲▲▲ 濠 首都 「켄베라」市 태권도 시범 ▲▲▲▲

최근 호주의 수도 「켄베라」에서 駐호주 한국대사관 주위로 열린 한국태권도시범대회 소식이 駐韓 호주공보관을 통해 전해왔다.

12년전부터 「말레이저어」와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활약하였던 윤 영구(尹英求)사범이 주축이 되어 현재 호주 「시드니」에 「오스트랄리아」태권도 「아카데미」도장을 운영하는 한국사범들은 호주의 여러도시에서 시

범을 보여 태권도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시범은 21명의 「오스트랄리아」 아카데미 회원이 참가하여 시범을 보였고, 한국사범은 윤 영구 사범과 이 성귀 사범이 시범을 보여 주었다.

특히 여성 수련생 Tracy Charmaine 양의 격파는 많은 관객으로부터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다. ♣

(페이지 화보 참조)

발전한 고국 태권도 시찰차 美國 李鍾世 사범 일시귀국

美國 「필라델피아」에서 1969년 이래 태권도 사범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 종세(李鍾世)씨가, 발전하는 한국태권도 모습을 시찰하기 위하여 일시 귀국, 미국 등 부지역의 실태도 아울러 알려왔다.

4년전, 처음 미국땅에 발을 디었을 때는 「뉴욕」에 있는 조 시학 도장에서 조 사범을 도와 일을 했으나, 자력(自力)으로 독립하여 도장을 차리기로 마음먹고 「필라델피아」로 옮겨갔다.

이때는 태권도의 개척기로서 그 수련생을 모으는데는 막대한 애로가 있었고, 도장의 마루바닥에서 새우

장을 자야 할 만큼 극심한 고생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2개의 도장을 차리고 2백여명을 수련생을 지도하고 있어 완전한 기반을 잡는데 성공했다.

李 사범은 「해외로 진출하는 사범들은 한국만 떠나면 문제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을 하는 위험한 사고방식을 갖고 한국을 떠나고, 현지에 가서는 생소한 생활풍습에 적응치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하고 「해외진출 사범들의 특별교육이 마련되거나 그 자격기준을 협회는 엄격히 통제하여야 될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 日本 最初로 大學에 跆拳道部 ◇◇◇◇

康理俠 師範이「가라데」本山隘路 鐸고

재일동포 강 정협(康理俠) 사범은 日本 大阪市 소재 阪神會館에 중심도장을 設置하고 있으면서, 민단 西成支部 靑年部의 태권도 사범으로 활약하고 있다.

康 사범은 고국을 모르는 재일동포의 자녀들에게 母國의 國技 태권도를 지도하여 많은 재일동포들로 부터 존경을 받아 오던중, 금번「大阪産業大學」에 태권도부를 創設하여 순수한 한국어 구령으로 20여명의 수련생을 지도하고 있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54회 전국체육대회에 3명의 선수를 이끌고 내한하여 국내 강호들과 분투하는 모습은 협회 임원과 관계자들의 감동을 자아낸다. 1964년도 仁川에서 거행된 국제 3단 이상부「미틀급」준우승을 차지한 기록을 갖고 있는 康 사범은「코위」와 감복을 겸한 오늘에 이르기 까지 그가 태권도에 쏟은 정열은 실로 놀라운바 있으며 중앙도장이 개관되던 지난 11월 30일에 또다시 귀국, 日本支部가 보내는 50만원의 성금을 협

회에 전달 했다.

제주도가 고향인 康 사범은 어릴때 부모를 따라 大阪에 정착 했는데 현재 어머니와 남동생을 데리고 있다.

康 사범은『가라데의 나라 속에 한국의 태권도를 한국語 구령으로 심는 보람으로 산다』고 말하고『중앙도장과 교본의 발간을 본 母國의 태권도 발전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협회는 康 사범의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상과 국제사범 자격증을 부여한바 있다. ♣

大阪産業大學跆拳道部同志會名簿

主將 古賀和文

松居信夫

馬場義昭

林 義平

主務 對中史郎

福井弘德

久我喜信

森 幸一

天野弘文

中間龍三

井貽側敏夫

☆☆☆☆「오스트리아」에 跆拳道 韓國 심고 ☆☆☆☆

張 淇 炫 사범 귀국

1972년 2월 10일 「오스트리아」태권도 회합 초청으로 현지에서 부임했던 장 기현 사범이 만 1년간의 지도를 끝내고 일시 귀국, 현지 소식을 전해왔다.

「인스부룩」의 이 경명 사범과 더불어「필글」(WRGL)市에서「장기현」개인도장을 운영, 1백여명의 수련생에게 한국 태권도의 진면모를 보여 왔었다.

장 사범은 지난「문현」시범대회에 참가 하였던 시범단의 일원으로 일지격파(一指擊破)와 장애물 격파로서 감복을 받은바 있다.

특히 일지격파는 장사범 개인특기종목으로, 옛 문헌 상에는「일지격파」라는 용어가 있으며 어느 손가락인지 조차 분명치 않은 것을, 엄지 손가락에 그 기술을 익혀 두께 3「센티」의 송판도 무난히 격파하는 위력을 고안해 낸 것으로 관수(貫手)와도 또다른 형태의 표기

이다.

금년으로 수련생활 17년째인 장사범은 해외에 진출하여 정말 보람있는 1년을 보냈다고 회고 하고, 해외 진출 사범들은 충분한 기술의 연마도 중요하지만 유창한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비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족으로 부인과 아들이 있는 장사범은 전남 고흥군 대서면이 고향으로 부모들께서 1년만에 귀국한 장 사범의 재 출국을 단류하고 제시므로 재 출국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장 기현 도장은 체류중인 이 경명 사범에 의해 계속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5월 국기원에서 개최될 세계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현지 소식을 전했다. ♣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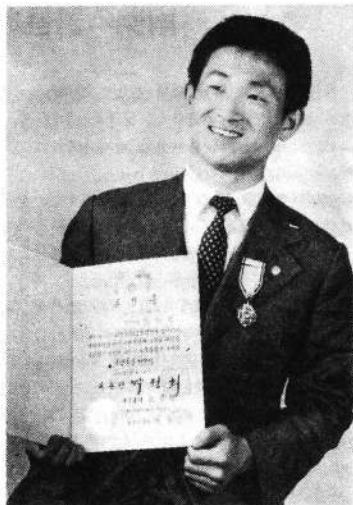
「프랑스」李 觀 永 사범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프랑스」 「파리」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오랫동안 역
 험한 공을 쌓아온 이 관영 사범은 태권도를 통한 국위
 선양 및 그 공로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대통령각하
 와 국무총리가 주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주불 정일영
 대사를 통해서 전달받았다.

李 사범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값지고 영광된
 순간을 맞아 「파리」 도장의 전 관원과 함께 그 축하회
 를 벌이고 고국의 태권도인들에게도 그 기쁨을 전해왔
 다.

그의 서신은 73년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대회 준비에 따르는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벌리
 는 각종 태권도 사업마다 획기적인 신기원을 이루는
 金 雲龍 회장의 공로에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고 말
 했다.

또한 금년에 거행 될 남불(南佛)지역 50개 도장의
 가라메 「사범들에게 태권도 교육을 2개월간에 걸쳐
 맡게 되었음을 알렸다. ♣



■ 제 2 회 「프랑스」 태권도 「웨스티벌」 ■

주불 한국 대사관과 「프랑스」 무도협회 후원으로

1972년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부터 「프랑
 스」 「파리」 시내 한복판인 7區에 위치하고 있는 육군사
 관학교 부설 체육관에서 「프랑스」 태권도협회가 주최하
 고 한국대사관과 「프랑스」 무도협회가 후원하는 제 2 회
 태권도 「웨스티벌」이 독일주재 한국인 사범 6명과 그
 들의 수련생 및 불란서 태권도 수련생들의 승단심사
 및 경기가 이 광영 사범의 지휘하에 진행되어 대 성황
 을 이루었다.

10명의 승단심사 응시자들이 독일에 주재하고 있는
 김 단급, 김 우강, 장 광식, 장 광영, 정 광수, 송 찬
 호 사범들을 심사관으로 하여 엄격하게 실시되었으며
 「프랑스」 3명의 유단자들의 고려형 시범에 이어 20분간
 에 걸친 한국인 사범들의 시범에서는 박수 소리가 그
 치지 않았다.

특기할 일은 「파리」에서 「가라메」를 가르치는 일본
 사범들이 참석해서 태권도의 훌륭함에 박수를 보내고

태권도의 위세에 위축을 당했다는 사실이다.

배변 태권도대회가 있을 때마다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
 는 공관(公館)의 직원들과 많은 교포들이 참석함으로써
 이날의 대회는 과거 어느 대회 보다 훌륭히 치러졌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프랑스」 대 독일의 경기에서 대
 한 태권도협회 경기규정에 의한 경기가 벌어졌고, 양
 국가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선수의 용전분투하는 모습
 과 놀랄만한 경기 기술의 향상을 보인 이들의 대전은
 본국 선수들의 대전을 보는듯 훌륭했다.

결과로는 「프랑스」가 3對1로 승리 하였으나 승패를 초월
 한두 나라 사이의 친선과 기술교향의 의의는 매우 컸다.

이 대회를 끝내고 4월에는 독일이 「프랑스」 팀을 정
 식으로 초청하는데 합의된 보았다.

이날의 승단심사로서 「프랑스」에는 1969년 9월 이후
 1972년 말까지 17명의 유단자(초단)를 확보하게 되었
 다. ♣

세계로 뻗어가는

南美「콜롬비아」에 태권도「봉」

해외의 태권도 보급 상황이 본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꾸준히 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가운데 하나였던 남미「콜롬비아」의 보고가 전해왔다.

이 경득(李京得) 사범은 처음에 단 5명의 수련생으로 보급을 시작, 태권도 미개척지에 2천여명의 수련생을 모아, 열광적인「봉」을 이룩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월남전선에서 한국군이 펼친 용맹있는 무용담이 태권도와 함께 소개되어「콜롬비아」육군사관학교에서 이 경득 사범을 초빙하고 태권도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많은 국민들의 요청에 의해「보고타 데 레비콘」에서 매주 일요일 저녁「프로그램」에 태권도 시간을 고정으로 만들어 도장에 나가지 않고도 배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태권도의 인식과 그 보급은 확대 일로에 있다. ♣



Richard Gonzalez - «El Estadio Negro» - hace una demostración de Taekwondo a un grupo de niños en la ciudad de Bogotá. Los practicantes de Taekwondo en Colombia son muy numerosos y se han organizado en una asociación de tres federaciones, como se aprecia en la foto. La Federación de Taekwondo de Colombia (FETECOL) es la encargada de organizar el campeonato de Taekwondo en Bogotá.

¡El 'Tekwondo' en Bogotá!

「카나다」전 덕기 사범 현지보고

1969년「카나다」로 진출하여 태권도 보급에 앞부진 성과를 올리고 있는 전 덕기 사범의 현지보고가 다음과 같이 전해 왔다.

태권도계의 신기원(新紀元)을 이룩할 태권도 중앙도장을 마련해 주시고, 태권도 종주국의 면모책선에 노고가 많으신 金 雲龍 회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카나다」로 진출한 이래로 태권도의 보급에 저의 모든 능력을 투구(投球)하였던바, 지난 9월 9일 태권도 경기를 마련할 기회를 갖게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저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고무적(鼓舞的)인 것이었습니다.

때나하면 일본인들「가라데」시합은 제가 이곳에서 종종 보는데, 관람객이 별로 없을뿐 아니라 출전하는 선수들이 적어서 흥미조차 못느끼는데 비하여, 저의

경기에는 약 2천명 가량의 관람객이 동원되고 2백7십명의 선수가 참가 하므로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결점이 있었다면 사범들의 시범과 선수의 경기가 무려 10시간을 넘어 소요되었다는 것인데 장시간의 경기를 통하여 태권도의 참모습을 관객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으므로, 그 인식이 확실해진 수많은 수련지망생이 쇄도해오고 있어 즐거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一 中 略 一

지금은 세군데 고등학교와 한군데 직업학교 그리고 저의 체육관, 이렇게 철사가 없이 뛰여 다니다 보니 협회에 연락조차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소식드리겠습니다.

협회회원 여러분의 전승을 기원하옵고

「카나다」에서 전 덕기 올림

한국의 태권도

林 昌 洙 사범 渡 美



임 창수 사범

연구하여 그 동작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 그의 실력은 높이 평가되어 왔다.

특히 태권도교본 가운데 각급학교에서 실시하게 될 품세련에서 「모델」로 활약한 것을 비롯하여 태권도誌 동권 3호 표지(송 덕기 용과 보여준 겨루기 장면)에

오랫동안 태권도협회 사무처 임원으로 근무해 온 林 昌洙 사범이 미국 「미시건」주에서 활약하고 있는 劉 柄哲(James B.C. Yu)사범의 초청으로 3월중 도미한다.

林 사범은 사무처의 서무행정을 맡아 일하는 동안에도 협회품세를 깊이

서 순수 한국의 태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널리 호평을 받은바 있다.

林 사범의 도미에 즈음하여 송 덕기(81세)옹은, 『나의 태권 기술표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손과 발을 맞출 수 있던 상대가 떠나게 됨을 애석히 생각한다』고 말하고 『내 생전에 林 사범의 얼굴을 다시 못볼것 같아 섭섭하지만 우리의 태권도가 세계로 뻗어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기쁨 또한 적지않다』고 말하고 그의 무운을 빌었다.

한편 林 사범을 초청하는 劉 柄哲 사범은 휴전이 되던 다음해에 美國人의 양자로 입양하여 미국에 건너간 후 태권도 보급에 전념하여 「웨스트·미시건」大學과 「배틀크리크」YMCA, 「렌튼·하버」YMCA, 「미시건」대학外 5개도장을 경영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

趙英柱 사범 스페인으로!



조 영주 사범

며 3개월간 하루 8시간씩 수련을 강행하고, 「스페인」어를 익히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내면서, 해의사범의

「스페인」에서 맹활약 중인 조 홍식 사범의 동생이 되는 조 영주(28) 사범이 1년간의 현지 도장과 계약을 맺고 72년 12월 23일 서울을 떠났다.

조 사범은 출국을 앞두고 지도자 강습회(제2기)를 수료한바 있

자질향상에 스스로 수범하는 훈련을 쌓았다

조 사범은 한양대학을 졸업한 후 잡지인협회 기자로 있었던 지난 3년간의 체험을 살려 「유림」태권도계 동향을 자주 송고, 본지의 파견기자 및 「모니터」의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자원한바 있다.

「스페인·발레로니아」지방에서 자영(自營)도장을 갖고 있는 조홍식 사범은 현재 초만원의 수련지망생을 일일이 지도하기에는 손이 모자라 조영주 사범에 도움을 청했으나 이미 스페인에는 한국인 사범으로 전영태, 최 원철, 김 일홍, 정 권수 등의 사범이 태권도 보급에 성공을 거두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태권도 사범의 진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위해 싸운용사 유신위해 앞장서자.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美國의 「리처드·솔로몬」 경감 현지 귀국 보고

미국 경찰관부이며 지난 1972년 1월 8일 태권도 수련을 위해 내한했던 「리처드·솔로몬」(Richard Solomon) 경감(45세)은 본 협회 金雲龍 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과 함께 협회 예의규범을 토대로 현지에 알맞는 수련자 규범을 작성하여 보고해 왔다.

—〈전략〉—

저는 한국에 체류중 회장님께서 베풀어주신 친절에 세삼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귀하의 나라에서 사권 친구를 그리워하며 언젠가 다시 한번 귀하를 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저의 도장에서 1주 5일 태권도를 지도하고 나머지 1일은 Bklyn에 있는 새로 세운 도장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 평성 씨가 저와 수석사범입니다.

—〈중략〉—

우리는 J.I 시에 68명의 수련생을 가르치고 있는 한 개의 도장과 28명이 있는 Bklyn 도장이 있습니다.

여름이 몹시 더운 이곳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피서를 떠나며, 10월이 되면 보다 많은 수련생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 때에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기술을 힘껏 발휘하여 성실하게 지도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태권도가 생소하기만한 신입회원에게 보여줄 충분한 책자가 마련되어 있지 못해 그 자료수집에 애로 를 느끼고 있사온바 회장님께서 태권도에 관한 새로운 책이나 사진을 보내주시면 진열장에 진열하여 많은 사람이 보도록 하였습니다. 태권도에 관한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하는 수련자규범은 제가 한국에서 지도자 강습때 배운 예의규범을 이곳 풍토에 알맞게 재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회장님의 전승을 비우고

「리처드·솔로몬」 再拜



수련자 규범

1. 모든 수련자는 수련시간 10분전까지 준비완료 하여야 한다.
2. 수련장에 들어 올때는 신을 벗어야 한다.
3. 수련하기 위해 도장에 들어온 수련생은 일체 잡담을 금한다.
4. 수련자는 항상 몸을 정결히 해야 한다. 손톱과 발톱을 깎아라.
5. 수련자가 사용하는 장비는 항상 깨끗해야 한다.
6. 수련중에는 항상 자신이나 다른 수련자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라.
7. 수련자는 항상 사범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준수해야 한다. 일단 수련에 참가한 사람은 태권도와 직접 간접으로 관계되지 않는 모든 문제는 잊도록 하라.
- 만일 개인적인 근심 따위로 마음을 맑게하지 않으면 몇년을 수련해도 참된 결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상대와 대적하여 수련할 때의 목적은 적으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상대를 통하여 기술을 습득하는데 있음을 명심하라.
8. 수련자는 적으로 부터 공격을 받는 이외에는 도장 밖에서 기술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9. 수련이 끝나면 모든 장비는 원위치에 놓아라.
10. 도장을 떠나기 전에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제1회 「리오데·자네이로」 태권도 대회

「브라질」 「가라데」 도장을 태권도 도장으로 전환

지난 1월 13일 「브라질」의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11개의 태권도 도장이 참가한 태권도 대회가 「코파카파나 크럼」 「홀」에서 성황리에 그 막을 열었다.

이 대회는 「브라질」의 이 우재 사범이 주축이 되어 그의 직영도장 4개와 이 회설 사범이 운영하는 1개의 도장외에 6개의 일본인(日本人) 「가라데」 도장이 참가하였다. 대한태권도협회 경기규정에 따른 「물」을 사용하므로써 「가라데」의 세(勢)를 불식(拂拭)시킨 의의를 지녔던 이 대회에서는 개인전 7체급중 4체급을 태권도 선수가 우승하는 개가를 올렸다.

특기한것은 태권도선수의 수련기간이 최고 1년 미만인데 비하여 「가라데」 선수들은 최고 7년에서 최하 1년의 수련을 거친 「베터린」이 대결하여 우승을 한것은 태권도의 우수성을 인식케하는 계기가 되어 이 대회이후 「가라데」 도장이 태권도 도장으로 전환, 간판을 바꾸고 있음은 놀라운 수확이다.

또한 「가라데」가 10년전부터 뿌리를 넓고 깊게 뻗어온 「리오·가라데 협회」가 「리오·태권도협회」로 재발족, 회장을 「브라질」 태권도인 Roberto Carlos Americo

Dosreis 씨가 맡고 부회장에 이 우재 사범이 선출된.것 등은 확고부동한 성공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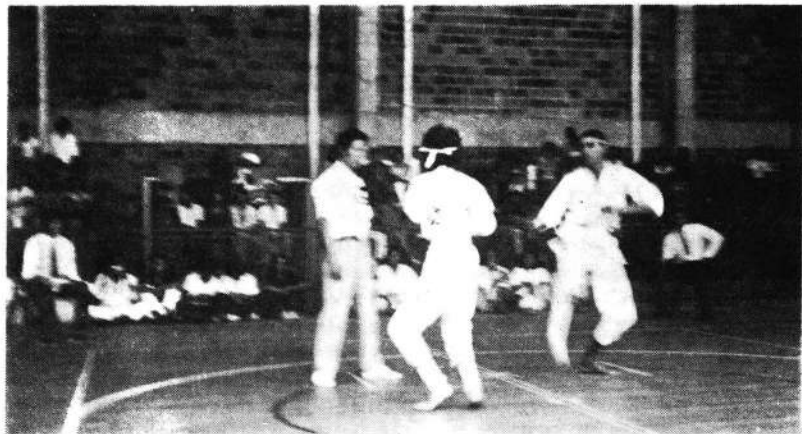
더우기 「가라데」를 배운 유단자 13명(초단에서 3단)을 태권도로 전환 시키는데 성공한 일은, 일찍기 다른 지역에서 찾아 볼수 없었던 성과라 하겠다.

이런 성공적인 「물」을 조성하기까지에는 동아일보 「브라질」 특파원 조중환씨와 조중철씨 그리고 「리오」 국방대학원의 국승돈씨 등의 열열한 지원에 힘입은바 크다.

현재 이 우재 사범은 Studio Caros Reis 도장과 Academia Flamengo도장, Academia Frama 도장을 운영하는 한편 미국인학교 Escola Americana와 Policia Milita 경찰학교 사범으로 활약하고 있어 1일 3번의 운동시간도 모자랄 지경이다.

때문에 1주일에 단하루의 휴일도 갖지 못하더 있다고 즐거운 비명을 보내고 있다.

한편 이 사범은 한국의 국기태권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본협회에 보내왔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노벨」經濟學部門 受賞者 태권도 수련

美國「보스톤」市서 鄭碩鍾 사범에게

美國의 「보스톤」市는 1947년 제51차「마라톤」대회에서 한국의 서 윤복 선생이 참가하여 우승 1950년에는 威基銘 宋吉允 崔倫七 선생이 참가하여 각각 1, 2, 3위를 차지한 이래 우리 기억에 사라지지 않을 유서 깊은 도시이다.

미국 제9위의 대도시「보스톤」은 私學의 名門「하바드」와「마사추세츠」공과 대학을 비롯한 50여개의 대학이 있는, 미국에 있어서 문학, 과학, 미술, 음악의 중심지로서 더욱 유명하다.

渡美(1965년)後「시카고」「워싱턴」등 여러곳을 전전하던 정 석종 사범은 장래의 사회 중추가 될 대학생과 명문의 교수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태권도 보급을 하는 것이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착을 결심했다.

지금은 M.I.T에 체육강사로 출강하는 한편 6개의 태권도「그룸」이 있는「하바드」와「보스톤」대학에서도 지도하고 있다. 따라서 鄭 사범이 가르치는 수련생의 대부분은 대학의 교수를 비롯한 대학생으로 구성,



최고의 지성인「그룸」이라는 자부와 함께 1972년도 經濟學部門 노벨賞 受賞者인「하바드」대학의 ARROW 교수가 수련하고 있어 태권도인의 實質上이라는 본 협회로서는 큰 기대를 모우고 있다.

특히 정 사범은 京畿高等學校를 거쳐 成均館大學을 졸업한 재원으로 한국에서 선수로 활약할 때는 두뇌있는「플레이」로

정평이 있었고, 1964년도 高技部大會를 석권한 曁將(猛將)이기도 하다.

71년과 72년 2회에 걸친 그의 모국방문에서 협회의「물」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또한 태권도誌가 발간될 때마다 보내오는 격려와 조언은 편지에 많은 도움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다. 용어의 제정에 있어서 토박 한국어를 환영한 서신과 협회「물」에 대한 소신 등을 長文의 서신에 실어보내는 정 사범의 학구적 열의와 달리 태권도의 밝은 내일을 확신하는데 미흡함이 없다.

西獨 수련생 태권도 留學을 希望

Köln에서 김만금 사범 서한

본 협회가 주최한「문헌」태권도 시범대회에 참가하였고, 현재 Köln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 만금 사범은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왔다.

—〈前略〉—

「문헌」시범대회에 이곳을 방문하신 협회임원제 총본한 대접을 못해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분께서 격려하여 주신 말씀들을 잊지 않고 열심히 그리고 성실껏 태권도 보급에 일하고 있습니다.

—〈中略〉—

Köln 도장에서 제가 가르치는 수련생 가운데 73년도에 한국으로 태권도 유학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

습니다.

그는 약 2년간 체한하면서 태권도수련을 받고싶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와 절차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발행하는 태권도誌를 구독하기를 이곳 관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글을 읽을 수는 없지만 태권도 중추국에서 발간되는 잡지를 손에 넣는 것을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金靈龍 회장님, 그리고 임원여러분의 진승을 기원합니다.

서독에서 김 만 금 드림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텍사스」 群小都市에 5개 도장 차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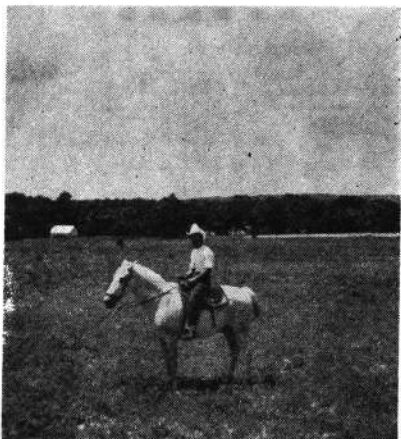
秋 敎 昇 사범 현지 소식

美國「텍사스」의 小都市에 자리잡고, 5개 도장에서 2백여명의 수련생을 지도하고 있는 추교승 사범이 현지 소식을 전해 왔다

秋 사범은 1970년 9월 독일의 「마인스」大學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1년간 근무한바 있고, 71년 7월에 다시美國으로 건너가 대도시 보다는 소도시를 중심으로 착실하게 태권도 보급을 꾀왔다.

특히 작년 9월에 현지도장개관 1주년기념대회 준비 귀국, 협회의 「물」을 익혀간 것으로 미루어 현지의 태권도 열을 짐작할 수 있다.

秋 사범은 서신을 통하여『이곳의 태권도「봄」은 작년보다 훨씬더 향상 되었고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들은 「태권도인의 긍지를 갖고 자동차나 옷에 도장표식「마크」를 달고 다닌다.』고 전하고 『태권도에 관한 새로운 서적과 도장에 부록한 金 雲龍 회장님의 대형 사진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忙中閑을 즐기고 있는 秋사범

金倉璞 鄭鍾圭 사범 美國에 派遣

협회품세 경기규정 심판규정 지도차



정 종규 사범

대한태권도 협회는 在美 체육회의 초청을 받은 김창박(金倉璞 6단) 사범과 정종규(鄭鍾圭 6단) 사범을 3월5일부터 4월 15일까지 1개월 동안 미국예전과 키로했다.

金사범과 鄭사범은 각각 20여년을 태권도수련을 계

도사범의 파견 요청에 의한 것으로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있는 사범들에게 본국의 품세와 「물」을 새롭게 익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이 두사범은 내공(內功)과 단전(丹田)을 태권도에 응용하여 격파에 사



김 창박 사범

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좋은 시범을 보여줄 것이다

한편 「로스앤젤레스」의 재미체육회는 두 사범이 보여줄 시범과 강습등을 보다 널리 소개하고자 현지의 「텔레비전」과 예약을 끝내고 있다♣

속해은 「배터런」 사범들이다.

이 두 사범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협회의 품세와 「물」을 지도하는 한편 심판강습도 겸하기로 했다.

이와같은 조치는 지난 72년도 세계태권도제를 순방시찰한 협회임원에게 현지의 사범들이 요청한 본국 지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美國「버지니아」金憲樹 사범 書信



한양공대를 졸업후 모교의 태권도부 사범으로 활약하면서 신에 「팀」을 중위(中位)의 「팀」으로 옮기는데 공헌했던 金 사범이, 美國「버지니아」李秀雄 사범의 초청으로 도미(渡美) 후 현지 소식을 보내왔다.

—〈前略〉—

이곳 수련생의 직업은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등 다채로운 모습을 보이고 태권도 사범을 존경하여 말끝마다 「yes sir」를 붙입니다.

대개 미국의 사범들은 사업관계로 수련생에게 주도권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는 모양인데, 이곳은 이 수련생이 처음부터 기반을 잘 닦아 놓아 금지하는 사범으로 활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무엇보다 기쁩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태태권도를 「레크레이션」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사고방식은 생활습성에서 오는 것이어서 협회의 예의규범은 「하이 크레스」로 오른 다음에 가르쳐 무도정신을 주입시킵니다.

한편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흑백인의 갈등에서 오는 폭력 방방을 목적으로 배우는 경우도 있어 미국에 있어서의 흑백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영국이 처음으로 식민지 정책을 시행한 곳이며 법이 평강히 까다롭게 다루어져 운전면허도 다른 주에서 취득한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재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는 「아파트」 생활을 하는 비용이 10년전 보다는 10배나 뛰여 올라서 그렇게 부유하거나 잘살지는 못합니다.

예를들어 지난 한달에 40원 꼴이니 식료품값도 한국보다 비싸며 「코카·콜라」 정도가 한국가격과 비슷하고 모든 것이 비싸서 크게 노력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생각하듯이 호강하고 살지 못합니다.

1천불짜리 월급쟁이라도 한달에 꼭 세야할 돈이 1천불이라니 저축은 힘드는 모양인데, 아직 저도 그에 대해서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강의 나라임에는 틀림없으며, 가장 깨끗한 곳과 가장 더러운 곳이 공존(共存)하는 묘한 곳입니다.

이곳 풍물은 영국의 보수적인 습성을 알아 유행의 침단을 걷는 선진국 같지 않고 부(富)한 가운데 검소하고 소박한 인상이어서 말로만 전해들던 미국과는 많은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 「버지니아」에는 아첨적덕으로 참새와 까치가 날아드는데 그 모습은 한국의 것과 똑같아서 미국의 향수를 조석으로 느끼게 합니다.

이곳 Norfolk 市에 한국사람이 5~6명 밖에 있지 않으나 모두들 풍족한 생활을 하는편은 못되어 모두들 고국을 그리워하며 이슬끼리 한국인 모임을 갖고 맨먼저 자리를 잡은 이 수련생이 회장이 되어서 앞으로 한국에서 오는 동료들도 따뜻하게 맞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2개의 도장이 있는데 저울철이어서 수련생이 많이 참석치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부(支部)를 많이 세워서 태권도 보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中略〉—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수련생을 이끌고 꼭 참석하고 싶으나 모든 것이 여의 할른지의 문의입니다.

다만 金雲龍 회장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일을 갖춘 무도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지도신조로 삼고 제자신은 물론 수련생에게 그 참뜻을 전하겠읍니다.

끝으로 모든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협회원인, 그리고 편집실 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사를 보내며 이만 맺읍니다. ♣

—「버지니아」에서—

金 憲 樹 拜上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하와이」에 最初로 태권도 심고 田克道 사범 귀국



50여개의「가라데」도장이 성시(盛時)를 이루고 있는「하와이」에서 1969년 이래 태권도 사범으로 활약하여 크게 성공을 거둔 전 극도(田克道) 사범이 지난 2월 12일 귀국, 태권도를「하와이」에 심기까지의 고행담과 현지 보급현황을 알려왔다.

『처음「하와이」에 발을 디었을 때는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몰라 많이 캄캄했습니다. 日本人들이 운영하는「가라데」도장은 여기저기 크고 높은 건물에 일장기(日章旗)를 걸어 놓고 보무(步武) 당당히 활동하는 것을 보고는 다시한번 위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관을 찾아가고 교민들을 찾아가 우리 태권도가 일본의「가라데」보다 우수함을 역설했고, 마침내는 우리교민들의 자제를 몰아놓고 공원의 잔디밭이나 해변가를 도장삼아 태권도 보급을 시작했다.『고 비참했던 개척기의 생활을 회고했다.』

현재「호놀룰루」에서 하루 2백명의 수련생을 지도하고 2천여명의 회원 확보에 성공하는 한편, 74년도 준공을 목표로 도장건립 매지 80명을「호놀룰루」에 마련했다.

이러한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태권도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기존의「가라데」가 주관하는 경기에 참가하여 우승을 건우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으로「물」의 차이점과 심판의 편향을 무릅쓰고 출전하여 田 사범 문학생들은 연전연승을 걸우고 72년「하와이」음요른 가라데 토너먼트에 20개의「트로피」를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가라데」에는 여러 종류의 파벌이 있어 일본인

끼리의 싸움이 치열하여 한국 태권도는 어부지리(漁夫之利)의 득을 보게되어 그 성장은 빨리되었다.

한편 태권도 보급에서 얻어지는 수익만으로는 도장 건립의 충분한 재정문제가 타개되지 않으므로 밤이면 식당「테파아트」에서 지배인으로 밤일을 하여 그 기금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田 사범의 성실하고 열성적인 태도를 본 한국교민들은 경축일이나 크고 작은「체스티벌」에 田 사범을 초청하고 태권

도 시범을 요청, 날로 그 보급은 확장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하와이」에 사는 여러나라 사람들이 벌리는 그 나라 고유의 민속을 소개하는 자리에 한국의 고전 무용과 태권도 시범이 꼭 따르게 마련이고 72년도「하와이」소개시간에 태권도 시범이 담겨 미국 전체에「테레비전」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즈음「하와이」를 방문하여 젊은이에게 Randy 田(田 사범의 美國名)을 아느냐고 물으면 그는 한국 태권도 사범이라고 대답들을 수 있을 만큼 성공을 거두고 있다.

특히 田 사범은 東洋醫大를 나온 한의사(漢醫師)로서「하와이」이주 전에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그후 태권도 보급에만 전념하던중 세계정세의 변동에 따라 중공(中共)의 의뢰가 미국에서「물」을 이루고 동양의 한의들이 각광을 받자 田 사범은 제미 한의사들을 모아 한의들의 활동을 활발히 하는 한편 한의사로서의 활동이 태권도 도장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田 사범은 이번 고국 방문의 목적을 5월에 있을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사용될 협회의「물」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중앙도장의 개관은 세계속에 태권도를 보급하는 사범들의 긍지를 높여준 金雲龍 회장의 크고 의의있는 선물이었다』고 감사사를 표하고 30호차리 유화(油畵) 3점을 기증했다.

田 克道 사범은 2월 26일 출국하여 5월 대회때 다시 귀국한다.

급소응급처치법



최태진

과학문명의 진보와 의학의 발달로 현대인 들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미구에는 人間의 生命을 연장하는 인위(人爲)의 삶을 추구하고 있으나, 순간적인 크고 작은 고통에서 잠시도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의 문제나.

특히 태권도의 경우 인체(人體)의 부상은 시간 과장소름가 될 것 없이 수시로 발생되며 의학의 힘을 빌리기에 는 미흡한 순간의 고통과, 의학의 힘을 빌어야만할 부상도 적절한 응급처치로 손쉽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이야말로 한국 고유의 민간 의료방법이며, 문명의 발달과 관계없이 수 천년은 존속해온 동양의술(東洋醫術)의 바탕이다.

상대방의 급소를 공격하는 것이 투기경기의 특징일 전대 급소로 맞은 선수를 보호하는 방법을 연구하는것도 기술의 개발에 못지 않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本誌는 협회가 創設된 以來로 경기장 지켜보아 온 최태진 先生에게 경기장에서 일어나기 쉬운 제반 사고를 검토하고 일선사범이나 「코취」가 쉽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을 제재하므로서 그동안 일선사범과 「코취」그리고 해위사범들의 요구에 부응케 되었다.

약물치료나 내, 외과의 수술 방법이 아닌, 指壓과 「맛사지」의 방법을 응용한 응급처치 법은 독자들의 좋

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욱이 태권도가 古來의 武藝이고 그 응급 처치법이 韓國 고유의 전승민간의료법(傳承民間醫科法)임에 또 다른 가치를 인식케 할 것이다. —편집자 註—

× ×

지난 13년간 태권도 경기장에서 보아온 사고는 生命을 자우한 만한 중상을 목격한 일은 거의 없다.

다만, 순간적인 급소의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을 뿐이다.

이것은 오로지 협회에서 호구를 개발하여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급소를 가려놓고 경기를 치르므로서 선수의 안전을 꾀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호구의 착용만으로 사고를 100% 방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회에는 우선 모든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환(睪丸)을 중심으로 처치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환(睪丸): 인간의 신체는 위협, 공포를 느낄때 세소가 수축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특히 고환의 경우 그 수축작용은 심하며 경기에 입한 선수가 초조해 할 때 저게 오그려 들어 신체의 내부로 삼입되어 외부의 충격에 심한 중상을 입지는 않는다. 그러나 심한 충격을 받으면 다리가 오그려들고 호흡의 장애를 일으키며 동작불능의 상태가 되는 만큼 선수를 지켜 보는 심판

및 「코쉬」는 경기를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

발이 아래에서 위로 찢을 때: (공격자가 반칙을 범하는 경우)

아픈증세: 아래대장이 수축되면서 고환이 위로 당겨져 심한 고통의 증세가 계속되며 호흡이 곤란해진다.

처치법: 먼저 부상자를 바로 눕히고 오고러들은 양쪽다리에 힘을 빼게 한다. (무릎머리의 약간 위를 윗쪽에서 발을 향해 두번정도 내려쳐 준다) 그다음 하복부를 윗쪽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서서히 힘을 가해가며 호흡을 맞춰 「맛사지」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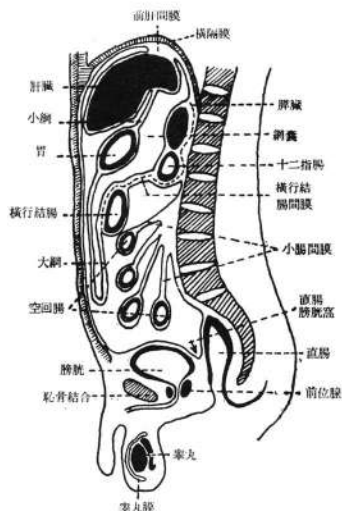
고환을 맞지 않고 하복부를 맞았을 때: (공격자가 특검이 되는 경우)

아픈증세: 고환을 직접 맞았을 때 처럼 제자리에 주저 앉는 것이 아니고, 한두발자국 발을 옮기다가 붙어진다.

이것은 고환이외의 급소를 맞고도 고환에 수축이 오는 또 다른 고환충격의 경우이며 고환을 직접 가격당하지 않고도 붙어지므로 맞은측과 공격한 사람들 사이에 시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흔히 이러한 때에 「코쉬」나 실판은 움살을 부리는 것으로 판단하여 응급조치는 커녕 주의를 주는 경우가 많으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나.

처치법: 대체로 고환을 맞았을 때와 동일한 처치로 곧 회복할수 있으나 입체(立體)의 자세로하여 後面 골반을 위에서 아래로 손바닥을 사용하여 두드려 줌으로서 수축된 장(腸)을 내어보낼 수 있다. 그러나 파열될 경우는 고환이 부어 오르고 설사없이 통증이 계속된다. 이러한 경우는 시급히 종합병원으로 옮겨다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사고예방법: 고환을 맞는 부상이 잦은 것은 기압이 낮거나 기온이 낮은날에 많은 것이 지금까지의 경력을 통한 통계로 되어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후가 낮을때 몸의 세포가 수축되고 심적(心的)으로 긴장되어 있어 유연성을 잃으므로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선수와 「코쉬」 및 사범은 경기에 앞서 20분 전에는 준비운동을 하여 몸의 유연성을 찾고 긴장을 풀어주는 작업을 잊지 않아야겠다♣



한국 태권도의 위력

LEE J. DURRETT

世界에서 가장 발행부수가 많은 무도잡지 미국의 「브랙 벨트」誌 1972년년보(年報)의 1971년 회계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유도는 약 1만명의 신회원을 얻었고 한국의 태권도는 그 성장이 놀라울게 컸었다는 사실이 통계에 밝혀 졌다.

현재 미국의 태권도 및 「가라데」 인구는 14만8천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유도인은 3천9백명으로 보고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태권도 79%와 유도 21%의 비율이므로 태권도의 인기도를 짐작케하는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겠다.

1971년에는 많은 상업도장의 행운의 해였다. 몇몇 소도시 경기장을 제외한 많은 대도시의 도장들은 동양의 무예를 미국에 소개한 이후 사상 최대의 신회원을 모았고 많은 관람객을 동원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태권도(일본 가라데 포함)는 지난해 12만명에서 14만 8천명으로 20%의 성장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 3년간과 비교해도 엄청난 성장율을 보이고, 무도인 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영화나 T.V를 통해서 태권도가 소개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유도에 있어서 2천9백명에서 1천명이 증가한 3천9백명의 성장을 보이고 어떤 대학은 유도를 필수과목으로 선택하여 장려시키고 있으나 태권도의 「봄」에는 근접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미국에 있어서 무도인의 「스타일」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태권도 「스타일」이 7천5백명에 해당하는 51%이며, 일본의 「가라데 스타일」은 5천명으로 34%, 「오기나와 스타일」1천4백명 9%, 그밖의 잡종사니 9천명 6%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태권도가 단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이 도표에 나타나있음을 볼 수 있다.

1971년도의 신회원 중에 태권도 「스타일」은 1만9천명을 얻었는데 비해, 「가라데」 스타일은 5천명이었고 다른 「스타일」은 5백명으로 저조했던 점은 동양의 무도를 선택하는 미국인에게 태권도가 다른 종류의 무도에 비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확신을 주기 때문인 것



이다.

많은 무도인이 말하기를 한국의 태권도 「스타일」이 미국에서 계속 수위로 무도계를 장악할 것 같다고 전망하므로서 태권도의 미국 진출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믿는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국의 사람들은 태극기 아래서 도장을 운영하고 경기를 벌리려고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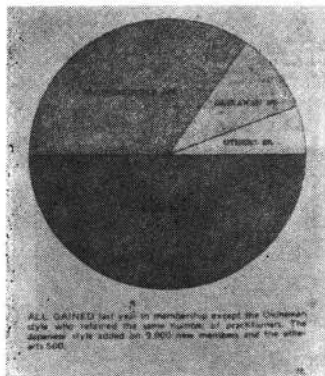
도하며 한국사범에게서 배운 미국인 사범이 운영하는 도장조차도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예로서 미국 「참피온 · 칩」을 얻은바 있는 「앨런스틴」(Allen Steen)도장이나 「척 · 노리스」(CSuck Noris) 도장이 한국 어떤 단체의 호응을 못얻고 있는 것으로 실증이 뚜렷해 진다.

한편 미국에서 검은 띠를 얻은 사람은 1970년에는 4천8백명이었는데 1971년에는 4천6백명으로 2백명이 줄어들었으며 일본 「스타일」은 2천명에서 4천4백명으로 하락, 그 다음은 「오기나와 · 스타일」과 다른 운동들이 뒤를 따르고 오직 한국의 태권도 「스타일」만이 1970년의 1천6백50명에서 1971년 2천3백명으로 상승을 보였을 뿐이다.

따라서 1971년의 50%가 한국의 태권도 「스타일」에서 나왔음은 합리적인 통계숫자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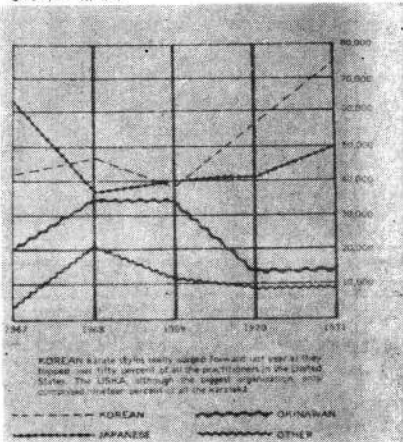
일본의 「가라데 · 스타일」의 사범들은 수련생과 친근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1만2천3백명에 2천백명이나 감소된 1만2백명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오기나와 · 스타일」은 그대로 침체상태에 있다.

그러나 2배의 성장율을 보인 태권도 「스타일」은 1만 2천명에서 2만1천명으로 급기상승 하므로서 무도계의 60%선에 육박한 것은 그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의미
「스타일」이 미국 무도계의 9%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 수가 51%가 되고 있다.
「스타일」이 미국 무도계의 5%밖에 안 되는데도 그 수가 34%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로 되어 있으며 6번째로 뽑힌 사람은 한국의 유병 (37세)씨로서 텍사스,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지역을 다니며 싸워 이겼고 유병씨의 인가됨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앞으로 「볼 핑킹」에 도달하는 것은 시일 문제로 보여진다. 지난번 「참피온쉽」에서 「빌 윌레스」에게 2대 1로 패한바 있지만 다시 「리턴 매치」가 있다면 그 경기는 유씨의 승리가 틀림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 태권도가 1969년 이후 상승율을 보이고 있고 일본의 「가라데」는 1967년 이후 계속 저조한 상태이다.

수련비용은 태권도와 「가라데」가 16불(약 6천4백원)까지 받는데 비해 유도는 약 10불(4천원)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보통 6개월 동안의 장기계획에 의한 수련비를 내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으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오래하지 않고 도중에 문을 닫고 다른곳으로 가버리므로 수련생들은 장기계약 보다는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월 납입제를 원하므로 1개월마다 비용을 내고 있는 형편이다.

끝으로 미국의 「볼 베스트」 10인의 선수들 보면 그 중 5명이 태권도 「스타일」이며 4명이 「가라데」, 1명이

태권도인을 위한

☆☆☆ 태권도인의 책을 만듭시다 ☆☆☆

1. 독자문예

태권도를 주제로한 수련기, 시조, 수필, 단문, 만화 등을 보내 주시면 선정하여 게재하겠습니다.

보내실 때는 주소, 성명, 연령, 직업 등을 명백히 기입하시고 「편집실 앞」이라고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외소식

해외에서 활약하는 사범들의 현지 소식을 기다립니다.

外國人의 경우, 英文이나 獨語, 佛語의 원문을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사진과 「포스터」 「팸플렛」 등 유인물을 곁들여 보내주시면 함께 게재합니다.

▲ 게재된 분에게는 「태권도」 1회분을 보내드립니다.

—〈편집실〉—

1972년 태권도 공로상 수상



1972년도도 협회가 창설된 지난 10년 가운데 가장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이는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일선에서 태권도에 투신하여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의 헌신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본 협회는 이분들의 공로를 기리는 뜻에서 매해 공

로상을 제정, 시상해 왔다.

72년 시상식은 전국체육대회가 끝난 10월 10일 체육회관 'OB'라운지에서 가진 「리셉션」에서 전국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金雲龍 회장에 의해 공로패가 주어졌다.

공로 수상자 명단

서울 : 최 태 진
김 용 휘
홍 정 부
최 청 대
고 선 식
한 춘 교
박 봉 서

경기 : 백 규 인
강 원 : 유 연 용
충 북 : 김 용
충 남 : 강 정 구
전 북 : 정 영 택
전 남 : 이 광 재

부산 : 장 만 영
제주 : 이 동 회
경북 : 이 동 주
경남 : 윤 태 원
제일 : 강 정 협
제미 : 황 작

跆拳道로 國民總和, 維新課業 完成하자!

1972년도跆拳道部門 最優秀選手

1970년부터 72년까지 연 3년을 국내 「라이트」급 경기를 석권, 대한체육회가 매년 각 경기종목 별로 뽑는 72년도 최우수선수 10명에 이르기(李彥淇) 선수가 뽑혔다.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4년)에 재학중인 이 언기 선수는 신장 176 cm 몸무게 66kg으로 동양인 가운데 가장 흔한 「라이트」급의 몸매를 갖고 있으면서 그 경합을 3년동안 잘 지켜온 노력이 최우수선수의 명에를 찾아한 동기라고 볼 수 있겠다.

李 선수는 중학교 2학년 때 부터 태권도 수련을 시작, 권투의 명문 성북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부터 경기경력을 갖게 되었다.

외래(外來)의 경기 「복싱」을 하느니보다 한국고유의 태권도를 수련하는 것에 보람을 지니고 수련을 쌓아왔다고 말하는 李 선수는 태권도를 위한 보조운동으로 신길동→영등포역전(약 3키로)간을 새벽마다 「런닝」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역기와 아령으로 몸을 단련시키는 한편 학교에서 하루 평균 3시간씩 수련을 쌓아왔다.

72년도 全國 中·高·大 단체전에서 성균관대학이 우승을 하기까지 「팀」 전체가 고르게 실력을 갖추는데 전력을 기울였고, 국내외 강호를 물리치고 우승한데에는 李 언기의 뛰어난 실력이 뒷받침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李 언기 선수는 성균관대학의 태권도 전망을 묻는말에 금년까지 성균관대학이 우승할 수 있다고 보지



李彥淇 선수

만 4학년 학생들이 졸업하면 현재 2학년 학생들에게 「바론」이 넘어가는 내년(74년) 한해 동안은 우승이 어려운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體育學科에서 태권도 특기생을 배해 4명씩 할애하고 있으므로 계속 우세한 전통을 유지할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그러나 단체 가운데 明知大學과 같은 호적수(好敵手)가 있어 정상 유지에는 방심할 수 없다고 스스로自省하는 겸손을 보인 李 선수는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最優秀選手의 자리도 제주도의 강 용기 선수와 같은 우수선수가 같은 이상 불안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체전에서 주의 하나의 차이로 銀「메달」이 머문 강 용기 선수를 大會 불운이었다고 말하고 항상 우승의 문턱에서 처지는 동료선수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한편 오늘의 영광을 얻기까지 키워주신 고 윤삼 사범에게 감사사를 표하고, 태권도 수련을 종용하였고 물심양면의 협조를 기꺼이 감당해 준 형님 李彥濂(31세)씨와 형수님에게 이 영광을 드린다」고 말했다.

李 선수는 장래의 포부를 묻는 말에 『세계선수권대회』가 박두하고 있으니 우선의 목표는 세계선수권 획득에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생활인으로 충실의 살아가면서 個人도장이나 마련하고 후배 양성을 할 수 있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말했다.

<72년 우승경력>

- ① 1972년6월: 제7회 전국 중, 고, 대 개인 선수권 대회 대학부 중기 「라이트」급 우승
- ② 1972년7월: 제10회 전국 중, 고, 대 단체대항 대학부 우승
- ③ 1972년10월: 제53회 전국 체육 대회 일반중기 「라이트」급 우승

銀髮의 태권도인



태권도誌 제3호에 살아있는 태권인으로 그 모습이 소개된 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송翁의 근황을 묻는 안부가 답지하고 있다.
이번호로 그 첫회가 되는 「씨리즈」 『銀髮의 태권도인』에서 송翁
의 근황을 알아 본다. - 편집실 -

81세의 고령(高齡)에도 조기수련(早起修鍊)을 거르지 않아 젊은이 못지 않는 맑은 몸매와 품을 지니고 계신 송 덕기 翁.

노인같이 얇게 정갈한 치아와 분명한 어조(語調), 밝은 귀와 視力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어 찾는이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요즘에도 인왕산 황학정 활터에서 궁도를 익히고 내년으로 환 각(還甲)을 맞아 기쁘지만 하다는 송 응은 『태권』 국내외에 널리 보급되어 그 수가 1백50만명에 이른것은 호 뜻한 일이며, 중앙도장이 세워졌으니 놀랍고 꿈만 같다』고 말한다.

이어 『태권을 배우고져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있어 현재 2명의 젊은이를 지도하고, 멀리 충주 제천 등지에서 배울 사람을 모아놓고 초청하므로 일과가 바빠졌다』고 호 뜻한 미소를 지었다.

송 응은 13세 때 태권수련을 시작한 이래 스승의 말씀을 좇아 몸과 마음을 소중히 지켜왔다고 회고하고, 마음을 지키는 일이 태권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또한 훌륭한 무도를 스승에게 배웠으면 그 기술을 간직하기를 부모심기듯 하고, 잊거나 잃어서는 안되며 그 기술을 남용하는 것은 부량한 짓임을 강조했다.

송응은 태권 보조운동에 언급, 살찐 사람은 몸이 둔하고 단명(短命)하므로, 태권하는 사람은 살을 빼는 방법으로 반드시 조기수련 이전에 관절매대를 풀어서 굳살이 붙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59년 동안 활쏘기를 게을리하지 않은것도 실은 활을 쏘면 시위를 붙는 파살을 놓치지 않고 보아 과녁의 앞 뒤에 떨어진 것을 확인하는 일을 계속하므로 태권도에서 가장 생명이 되는 눈의 밝음과 따름의 훈련이 되고 상대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도움이되며, 활촉에 집중한 정신의 통일이 태권에서 요구되는 정신통일과 일맥상통하여 태권보조운동으로 활쏘기를 선택하였다고 밝힌다.

지금도 젊은이가 따를 수 없는 유연한 몸매를 그대로 유지, 발바닥(발바닥으로 상대방에 뺨을 때리는 기술)을 힘들이지 않고 해낼 수 있고, 벌치기(2단 열차기를 말하는 것으로 벌매같이 무서운 위력을 갖고 날려서 찬다는말)로 뛰어드는 상대쯤은 금실(복싱의 기는 「스태」에 해당)을 넣은 후 날란(초난)이나 도끼검(메주먹)로 급소를 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송 응의 그 모든 어휘는 순수한 우리말로 이어져 나갔다.

특히 태권의 특징을 묻는 말에 『태권은 발을 사용하여 상대를 제압하는 무도로 손을 보조적으로 약간만 사용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 정의하고 『만일 손을 많이 사용하면 인체의 가장약한 턱이 빠지고 복뼈가

부러지는 위험이 있어 주먹이나 손이 겨루기에서 공격 무기로 쓰이는 것은 금기로 되어 있어 태권에 스승께서 가르쳐 주실때 주먹을 상대의 안부에 강타하거나 손으로 잡아서 괴롭힐 경우는 『발아 죽여도 좋다』라고 할만큼 그 「물」은 엄격히 다루어져 왔다고 회고했다.

한편, 현대 태권도에서 쓰는 알차기(송응은 곧은 발질이라고 표현)는 그 위력으로 보나 명중도에 있어 옛 태권의 「는 지르기」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것 같다고 지적하고 는 지르기 품을 보여주었다. 이때 보여준 송 응의 는 지르기 품이야말로 정녕우리 태권도가 재현(再現)해야 할 최원(希願)의 상(像)이었고 천년태권의 전통 품을 고스나기 증명하는 모습이었다.

그 이유는 발을 앞으로 내어차는 동작이 파도(波濤)치듯 물결이 일듯, 출렁 출렁 움직이고 「리듬」을 탄음률(音律)과도 같이 경쾌무비(輕快無比)의 행위가 연속되므로서 공방에 유리하고 그 위력도 힘을 축적하고 힘을 정점으로 이끄는 동작의 연속을 이루므로서 파파력과 명중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 「스포츠즈」 가운데 과학화를 꾀하고 보다 새로운 연구를 거듭하는 「오스트리아」 「스키·팀」이 71년도에 창안(創案)한 「바렌」의 형태로서 절도있는 동작이 힘과 「스피드」를 낼 수 있다는 1970년도까지의 정설을 엮고, 모든 몸의 동작은 물이 파도치듯 움직이는 상태에서 힘과 속도는 가속을 얻을 수 있다는 최신학설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72년도에 적중하여 「유럽」의 모든 「스키」 경기에 있어 「그랑프리」는 「바렌」을 채택한 선수에 돌아 갔음은 물론이다.

또한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는 품세 한수(漢水)에 「바렌」의 원리를 적용 72년도에 재구성한 것은 현대과학의 원리를 적시에 포괄적용한 「센스」 있는 단안이었다. 우리 고유의 태권에 그 원리가 적용되어 손웅이 「는 지르기」의 우수성을 지적 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있겠는가.

무형(無形)의 민족유산(民族遺産) 태권을 그대로 간직한 마지막 인걸(人傑) 송 응의 모습에서 태권도의 참열을 찾고 언행(言行) 하나하나에서 새로운 가치를 인식케 된다.

태권도의 산 歷史!

태권도의 산 證人!

학(鶴) 같이 고고(孤高)한 자세로 민족의 수난 속에서 태권을 지켜온 이분의 생애야말로 값지고 영광된 태권의 승리였다. 『태권의 秘法들을 모두 제승할 제자가 아쉽다』고 말하는 홍안백발(紅顔白髮)의 모습은 武道人이라기 보다 仙人의 氣品이 어려있었다. ❀

孤獨과 榮光의 태권도인



나의 수련기

徐 轍 模

忠淸南道 靑陽郡 일대에서는 국민학교 졸업식때마다 식사(式辭)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불우한 소년의 입지전(立志傳)이 있다.

중지박산한 가족을 따라 무작정 상경하여 독학으로 출세한 徐 轍 模 判事의 이야기가 바로 그 것이다.

몸 많은 소년시절을 기아(飢饉)와 혼란과 역경 속에서 보내면서 소한 사회의 관문을 통과하기까지의 고뇌와 고독과 영광의 '테마'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敎訓)을 주고 용기와 인내와 슬기를 불어 넣어 줄것을 확신한다.

또한 그가 우리 태권도가족의 한사람이며, 그의 입지전이 그러하듯 인내(忍耐)와 극기(克己)로 쌓은 태권도수련기 또한 독자 여러분의 공감을 얻을 것으로 보아 여기 소개하는 바이다.

<편집실>

나는 내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있다. 그것은『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여 주셨으면, 태어난 인간은 선하게 자신을 보존하다가 죽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철학에서 나이 40세가 되던 7년 전 태권도수련을 시작했다.

처음 태권도를 시작하려고 도장을 찾았을때 주위의 사람들은 다 늙게, 또는 젊잖은 체면에 운동이 무엇이냐고 딱하다는듯 쳐다보는것 같았다.

이런대는 의례히『30세에 못한 것을 40세에 시작치 않으면 50세에도 못하고, 평생을 시작이 늦은 이유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을것』이라고 스스로의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체면 손상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말(韓末)의 외국인들이 대궐에서 정구를 치는것을 보고 도

포를 입은 양반(兩班)들이 『하인배(下人輩)나 종에게 시키면 천하게 볼수 있는데 무엇때문에 맘을 풀리느냐』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더라는 고사(古事)를 들려주면서 수련을 더욱 열심히 했다,

하기는 젊은 나이에 시작하여 40세가 되면 물러서야 했을것을 나는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젊은이들이 하고있는 수련시간보다 더많은 시간을 도장에서 보내야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날 배운 동작을 몇번이고 되풀이하여 익혀나갔다.

처음 일년동안은 몸이 제대로 움직여 주지를 알음뿐더러 마음조차 조기(早起)수련은 망서려지고 추운겨울 마루바닥을 땀발로 딛고 아린 아픔을 이겨내야 할때는 망서림과 후회스러움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육신의 아픔에 정신을 지배당하는 꼴부가 되어서야 무슨일을

할수 있겠는가"고 스스로 마음을 달래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도장에 나갔다.

분명 수련을 시작한 1년동안이 나의 생애(生涯)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음을 틀림없고, 이 때가 있으므로 나의 극기심(克己心)과 인내심(忍耐心)이 새로워졌음을 자부할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비대형(肥大形)인 내 체중이 점차 줄어들고 육신이 정돈되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대한 때에 불편함과 거주장스러운 일들이 육신의 변화에서 능률을 찾고 상쾌함으로 전환되었을 때의 기쁨이야말로 삶의 재발견을 생각케하고 태권도 수련의 보람을 재인식하게 했다.

처음 1년의 수련이 고비였다. 이 어려움때를 넘긴 뒤로는 수련시간이 기다려지고 모든 생활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리고 좀더 젊어서 수련을 시작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게 생각되었다.

X

X

여기서 나는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으나 배울수 없었던 젊은시절의 이야기를 첨언해야겠다.

현재 나의 직업이 법관인 것은 다른 동료가 모두 그렇듯 좋은 학벌이나 뛰어난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忠南靑陽郡化城面梅山里의 化城국민학교 4학년생이 되던해(11세때)집안이 풍지박산하여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고,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며 노점에 앉아 도장(圖章)을 파서 호구지책을 삼아야 할만큼 불의한 역경을 헤쳐나가야 했기에 몸을 돌볼 겨를이 있을리 만무했다.

이런 환경속에서 오로지 독학(獨學)으로 사회의 관문을 통과하는데는 형언할수 없는 고난이 따랐다. 남들이 잠을 자는 시간과 운동을 하는 시간이 내게 있어서는 그들을 앞설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잠시도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다.

그후 노력의 결실로 고등고시에 합격되었을 때는 내 나이 31살이었다. 이때부터 생활의 기쁨이 잡혀가고, 그동안 하나의 목적을 위해 너무나 소홀했던 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규칙적인 섭생과 충분한 수련을 취하고 힘드는 일들은 피해나갔다. 그 결과 몸은 비대해지고 일의 능률이 저하되어 갔다. 몸을 위한 일이 몸을 그릇된 셈이되었다.

이때부터 늘 배우고자 갈망하였던 태권도 수련을 결심하게 되었다.

요즘 해의에서는 태권도 도장을 차려놓고 제대로 가르치는 곳도 있으나 YMCA나 기타 "그룹"을 중심으로한 「레크레이션·센타」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

고 한다. 나의 경우는 몸을 가볍게 만드는 노력을 기우렸으니 그들의 경우와 같다고 보아야 옳겠지만 태권도를 통하여 얻어진 정신의 수양과 도(道)의 세계를 이해하게 된것이 또다른 보람이라고 하겠다.

제이무리 옴은 일을 골라서 하고, 불의(不義) 불결(不潔)한 곳은 피해서나도 몇번쯤은 피해를 입게 마련인 것이 세상사이다.

내 자신이 법관이면서도 겁이 있어 불량배의 난동을 보면 당황하고, 현장을 외면하기가 일쑤였다. 이런 현상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격언의 일반적인 예로서 모든 사람의 경우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기차(氣車)여행이나 유원지에서 폭력배를 만나도 봉변을 당하지 않을 자신이 생겼고 앞장서서 타이르고 제지할만한 담력이 생겼다.

비대하고 소심하여 능률을 올릴 수 없던 과거에 비해 너무나 달라진 내 자신에 놀라움을 갖어보기도 한다.

이제 4단의 실력을 쌓았다. 이것은 다른 「스포츠」에서 볼수없는 뜻깊은 선물로서 나의 생애와 함께 단(段)을 높여가는 보람을 찾게 되었다.

이제는 사회생활에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좋고 몸이 건강하여 젊으니 남에게 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됐다.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의 첫째 조건이 건강하여야 하고 건강만큼 남을 도울 심신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남을 제압할 수 있는 호신을 닦은 이상 적은 일에 초연하고 큰일에 앞장서는 극기(克己)인내(忍耐) 용기(勇氣)를 모두 갖추게 된 것이다.

요즘 얼마간은 눈의 수술로 병원을 다니고 있어 수련을 거르고 있다.

의사로부터 힘은 운동을 피하라는 권고를 받은 채물이다.

그 대신 등산을 하고 있으나 젊은이 못지않게 산에 오를 수 있는 체력을 자랑하고 있는것도 실은 태권도 수련에서 얻어진 건강의 덕분이다.

조만간 태권도 수련을 하여도 좋다는 의사의 지시가 내려지면 나의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일궈준 태권도를 계속할 작정이다.

나는 이미 연령을 초월하여 수련할 수 있는 은깃 준비는 되어있다고 자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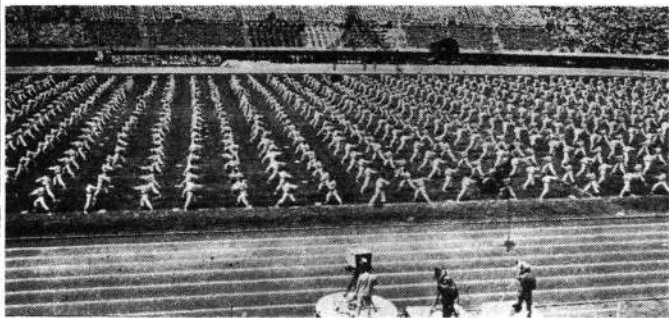
환갑이 넘어도 계속하고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태권도를 계속하고 싶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영광이, 건강과 옴은 정신에서 집약된다는 이상의 구원이고 고고(孤高)한 도인(道人)을 닮아가는 역정일테니까.....♣

태권도 「마스게임」을 끝내고

동대문중상업고등학교

체육교사 노 상 석



본교 태권도 보급과 제1회 전국 소년 스포츠 대회 「마스게임」 결과를 태권도지를 통하여 소개 합니다.

1967年 3月 본인이 체육교사로 부임한 이래로, 교장 선생님의 特別한 배려로 태권도부가 창설되어 많은 태권도 경기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올렸으며 그후 1971년 9월부터 체육시간과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지도 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전교 학생이 수련을 해 왔읍니다.

1. 지도이념

지성(至誠)을 근간(根幹)으로한 自活, 勤勞, 協同의 교훈을 실현하고 국가비상사태에 따르는 충력안보 교육의 구현을 위하여 태권도를 통해 심신을 연마하고 자립 국방대세를 갖추는데 있다.

2. 지도 목표

① 무도(武道)를 통하여 인격을 수양하고 국방의식을 고취(鼓吹)시킨다.

② 정신통일로 담력(膽力)과 인내력을 기르며 화랑오제 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信, 臨戰無退, 殺生有澤의 정신을 수련 시킨다.

③ 튼튼한 몸가짐과 강인한 체력을 구유(具有)케 한다.

④ 기술의 연마로 소질(素質)을 계발(啓發)하여 일인일기(一人一技) 교육을 신장(伸張)한다.

⑤ 自身の 방어와 자주국방에 선봉이 되도록 한다.

3. 지도 방침과 운영(運營)

위의 지도 이념과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을 두어 운영한다.

① 태권도를 의무종목으로 한다.

② 체육시간과 특별활동 시간에 지도한다.

③ 지도교사는 담당학년 체육교사가 지도한다.

④ 3학년 과정중 매(每)학년 취득하여야 할 급수(級數)를 정한다.

⑤ 심사(審査)는 년(年) 3회로 한다.

⑥ 각 학년별 취득 급수는 다음과 같다.

1학년 8급 ~ 6급

2학년 5급 ~ 3급

3학년 2급 ~ 1급

⑦ 교내에 급수판(級數板)을 설치하여 사기양상에 힘쓴다.

이상과 같은 이념과 목표 아

래 본교 학생이면 누구나 태권도를 수련 하여야 되는 의무종목으로 채택하였으며 본교 3학년 전과정을 수료하면 1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연간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본교 의무종목인 태권도가 전국에 알려진 동기는 본교개교 20주년 체육대회를 의의있게 치르기 위하여 태권도 「마스게임」을 구상 하여 성공적으로 끝마쳤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주관인 서울특별시 학교



李 壽 根 교장

체육대회 「마스제임」에 출전하였고 제 20회 「윈텐」 올림픽 대회에 우리나라 체육활동을 소개한 영화에도 참가하여 감예를 받는 등 그 활동의 범위는 다양하고 다채로웠다.

금년에 처음으로 창설된 제1회 전국 소년 「스포츠클럽」 대회에 본교 1200명 전자가 참가한 「마스제임」은 초대통령 내외분을 모시고 수 많은 관객이 주시하는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거행 되었단다 그 반응은 기대 이상의 성과로 비약하여 칭찬을 받게 되었다.

『저키자 우리강토』란 주제로 1200학생이 일사불란한 동작으로 관중의 심금을 울리기 까지는 학교장 이수근 선생님의 정열과 헌신적인 배려, 그리고 각급 학년의 교사들이 단결합심한 탐의 결과였다.

여기에 「마스제임」의 내용을 해설로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단군의 자손으로 후세를 이어갈 학생들의 힘찬 기백을 통하여, 용감성과 정신통일로서 거례의 기상과 우리나라의 국기(國枝)가 무엇인가를 인식시켜 국력을 배양하며 민족적 일원인 통일을 위하여 국민의 총화로 출진수법하는 배달의 기수가 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군악(軍樂)에 발마추어 힘차게 손을 흔들며 입장하고 지휘자의 구령에 의하여 정신을 통일하고 땀주먹으로 적의 공격으로 부터 자신을 방어하며 공격하는 태권도의 몸세를 연속동작으로 실시한다.

차츰 더욱 쉼없이 줄다 강하게 순간순간 급소를 공격하는 힘찬 물동이 전개 된다.



노 삼 석 교사

태권도의 수련이 곧 국력의 배양이라는, 안보체육 태권도다운 힘찬 격파를 보여 준다. 이러한 시도는 一人一校의 교육의 구원으로 모두가 똑같은 동작으로 동시에 기합을 넣고 격파를 하므로써 울동의 아름다움을 초월한 힘의 위력을 과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태권도 마스제임은, 태권도가 지니는 안보체육으로서의 힘과 기(技)가 표현 되어야하고 「마스제임」 본연의 통일된 조형과 울동의 아름다움이 결여 되지 않는것이어야 되겠기에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수반 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 「마스제임」이 끝난 후에 작게 작중에서 보내는 격찬은 모든 어려움을 잊고 보람을 찾기에 충분 했으며 안보체육 태권도가 점유하는 시대적인 필연성과 관계망국 및 일반국민의 관심도(度)가 얼마나 큰것인가

를 재인식할 수 있었다.

「마스제임」이 끝난 6월 16일, 소년 「스포츠클럽」대회 기념 「리셉션」 자리에서 삼부요인과 체육계인사들은 이 수근 교장에게 태권도 「마스제임」이 공개행사중 가장 고무적인 감격을 주었다고 한결 같이 좋은 평(評)을 하여 주었고, 육 영수 女史께서 비서실장들을 통하여 교장 선생님께 전화로 칭찬을 하여 주시는 등 「마스제임」이 끝난 후의 반응은 놀라울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더구나 국무총리께서 직접 교장선생님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태권도 「마스제임」과 총력안보의 구호는 현 비상사태하에서 가장 적합한 착상이었음을 격려해 주었고, 앞으로 각 학교가 이러한 국방체육의 시도로 국력을 배양하여 부강을 이룩해야 겠다고 시사했다.

그후 대한체육회와 교육위원회에서는 문교부에 그 공적을 찬양하여, 체육회는 학교에 감사패를,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도교사에게 표창을 문교부에 상신하여 8월 2일 문교부 장관실에서 학교와 지도 교사에게 감사패와 공로 표창장을 수여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영광과 보람을 찾기 까지는 어렵었던 점들도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소위 「마스제임」의 전문가들은 일반 맨손체조와 결부하여 시정을 촉구하던 것은 곤란하고 낯선 일종에 하나였고, 그것을 이해 시키는 일은 태권도를 지도하는 이상의 노력이 필요했던 일들이었다.

그러나 행사 종료후 동대문 중학교에 모든 영광이 쏟아져 내려지고 있으니 그때의 조언들은 모두가 우리들 도와준 금언(金言)이며 사랑의 편달임을 새삼 느끼는 터이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과 학생들의 일치단결 행사를 이끌어 준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은 지금 심경의 진부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간 여러 학교에서 본교 태권도 교육의 연간 계획서를 가져 가졌거나 장거리 전화로 문의해온 지방의 많은 학교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이빈의 경험을 살려 시행상 어려운 점들은 함께 연구하고 아는 것은 지도해 드릴 생각이다.

끝으로 이 대회를 위하여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대한태권도협회 김운용 회장님과 엄 윤규 사무총장님, 이 병노 사무차장님께 감사드리며, 연습도중 중점 지도 편달을 해주신 협회 기술실의 최 부의장 홍 중수님과 경기기사 김순배 님, 그리고 서울시 교육위원회 최 정부 제장께서 지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

內功과 丹田行功呼吸

정 종 규

本人이 內功에 關하여 敢히 論하고저 함은 外功을 주로 修練해온 우리 跆拳道에게 나 나름대로의 體驗을 紹介하여 조그마하게나마 도움을 주고저 勇氣를 냈을 뿐이다. 또한 內功은 生理學과 같이 分析的인 解剖學的인 面을 떠나 體驗과 自覺 自證에 依한 東洋思想을 主바탕으로 삼았음을 附言하는 바다.

丹田은 모든 사람의 발이라하여 人體內의 힘의 根源으로서 漢醫學에서는 生門 命門 關元 또는 氣海라고 불리워지며 배꼽 밑 三寸가량에 位置한다.

우리의 日常生活을 注意깊게 觀察해보면 自己 肺活量을 100% 活用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잠자는 시간만큼은 雜念을 버리고 無念無想의 狀態로서 제대로의 呼吸을 한다. 이러한 면에서 丹田呼吸은 深呼吸를 하여 人爲的으로 피를 맑게하는 根本的인 攝生方法이다. 丹田呼吸法이 익숙해지고 습관되어 잠시의 여유만 있어도 丹田行功으로 참 건강과 강철같이 튼튼한 體力를 만들 수 있다.

丹學의 著書로는 檀紀奎千七百參拾年에 誕生한 中國 老子의 道德經이 있으며 檀紀貳千四百七十五年에 天啓를 얻었다는 五斗米敎의 敎主 張道陵의 導引法이 있고 魏伯陽의 參同契가 있다. 그와 같은 呼吸調息法 요가 呼吸法 등이 있으나 呼吸을 重點으로 修行하는데는 一致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名人으로는 崑崙의 20萬 大軍을 단숨에 무찌른 高麗의 名將 姜邯贊將軍과 李朝宣朝때의 高僧 西山大師와 그의 弟子 四眼堂을 꼽을 수 있겠다. 이분들에 對한 逸話는 세상 소개 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는 일들이므로 약하기로 한다. 다만 現借力士들이라는 사람들이 車를 배위로 넘긴다거나 하는것을 目睹할 때 몇 분들은 얼마나 神秘한 秘術을 지녔을가는 가히 짐작이 갈만하다.

人體에 있어 精이라고 하는것은 음식이 胃로 들어가 空氣가 肺로 들어가 脈道가 行하고 露霧와 같은 液體가 經絡에 들어가면 그 氣運으로 불게 化하는것이 피

가되니 全身에 流行하는 血이 氣海에 이르러 精으로 自然 變하여 힘의 作用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精은 몸에 根本이 되는 것이며 이 氣海穴部를 下丹田이라 부르고 神이 一身의 主로서 心臟에 守居하여 가슴을 中丹田이라 하며 氣는 神의 根蒂로서 腦로부터 全身에 있으므로 上丹田이라 일컫는다 普通 丹田이라함은 氣海穴部를 中心으로한 下丹田을 뜻한다. 丹田行功을 할때는 上丹田인 氣와 中丹田인 神을 高요한 境地에서 下丹田인 精이 있는것으로 集中하여 深呼吸를 한다.

코로 숨을 들여마실때나 밖으로 뱉을시 中間에 暫時 숨을 멈추어서 自然스럽게 二段의 呼吸한다. 이때에 코앞에 촛불을 갖다대어도 조금도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또한 명치 筋이 겹칠(凸突)하거나 腹部가 圓型으로 둥글게 되거나 下腹丹田이 둥글게 나와야 한다. 이러한 方法이 丹田呼吸法이다.

下丹田인 精은 五米와 같은 靑氣를 呼吸하여 힘의 作用으로 나타난다하여 精力이라 일컫는다. 이는 抵次源에서 高次源으로 昇化하여 宇宙道源에서 얻은 힘의 作用까지 하게됨으로 東洋에서는 이를 道力이라 부른다. 이 道력이 下丹田에 充溢하면 후끈한 熱氣가 丹田에 感觸된다.

이것을 가리켜 道胎가 생겼다고 하여 自身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를 지른다거나 몸을 떨기도하는 증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고무호스에 강한 물줄기가 通하여 나가면 진동이 생기는 것과같은 原理인 것이다. 이런 증상은 丹田行功을 始作하여 約 5個月以後부터 나타나는 수가 많다. 이때에 精神的인 姿勢가 確立되지 않을때 間或 敗人이 되는수가 있다. 本人은 丹田行功을 始作하여 壹個月에서 이런 증상을 느꼈다. 아마도 外功이 높은 高手일수록 効功은 빠르게 오는것이 아닌가 하는 生覺이 든다. 呼吸에 있어서 呼를 陽이라고 본다면 吸은 陰이라고 볼 수 있다. 拳闘選手가 「펀치」를 뒤주물때 코로 空氣를 들숨거리며 내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功擊의 陽에다 呼의 陽을 合一하는 좋은 예이며

이때 곧 위력을 나타내고呼喚해 공격을 받아도 큰 打撃을 입지않으나 吸喚해 맞으면 KO가 되는 것이다. 우리도 擊破時 氣合과 함께 呼하며 擊破를 하고 있는 것이다. 丹田을 活用하는 사람을 世上에서는 흔히 氣合術士 또는 借力士 라고도 일컬고 있으나 根本의으로 이를 分別 못하는 것 같다.

借力이란 語源은 깊은 山속에 들어가 百日祈禱를 드린後 仙人들중에 힘센 將士에게 힘을빌어 修道를 했다가 하여 사람(人)변에 옛석(昔)字를 썼던 것이다. 金石之材된 藥材를 服用하여 効力을 얻는것을 藥借 또는 外丹이라 한다.

★언제만하★ [1] 나죽여야 할련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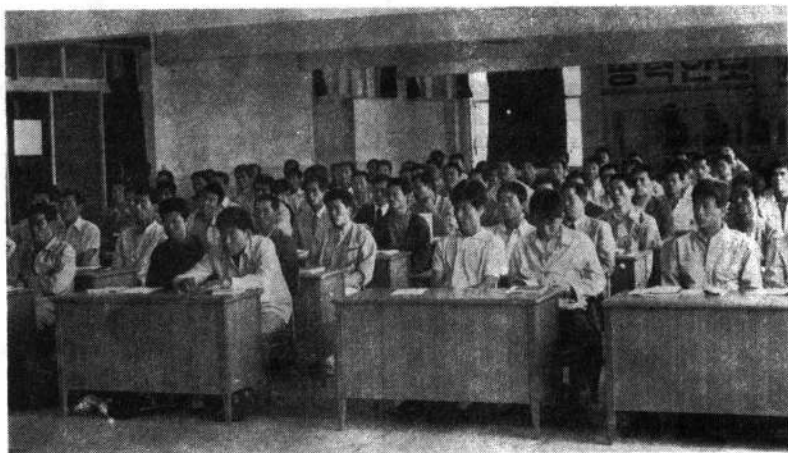
氣合術의 精神統一은 순간적으로 힘의 作用을 얻기爲해 단 몇초의 氣合과 함께 精神統一을 하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단 몇초에 精神統一으로는 얼마나 큰 힘을 얻겠는가 하는것은 常識의인 것이 아닌가 여기에 內功修練인 丹田行功은 꾸준한 身體의 修練과 精神統一을 完全히 調節하기 때문에 언제나 心身의 統一로 精神統一의 時間을 오래 維持할 수 있다. 人間의 精神은 그같이 있을 수 없는 法이며 自力과 他力이 融合하여 第一次의인 自然的 現象이 아니며 第二次의 超自然的인 作用을 할 수 있다는 推理는 決코 虛妄妄浪한것말은 아니다. 이런 면에서 丹田行功은 第二次의 超人間的인 體智能을 하게된다고 믿는다. 丹田이 힘의 根源이라는 것이 解明되었으나 배꼽 및 三寸內部 어딘가는 모르고 또한 器官이 무엇이나해도 解剖學的으로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空囊이니 말이다 빈곳에서 뽐낼수도 있고 담을수도 있는것은 두말을 할지 않는 眞理인 것이다. 丹田에 方法은 먼저 列擧한거와 마찬가지로이며 呼吸에 있어서는 어떤 動作을 하던 똑같다. 다만 몸을 움직이거나 멈추게 하는데 있어 多少 呼吸을 마칠뿐이다. 예를들어 숨을 들이마실 때 上體를 구부리던 안될것이고 숨을 뱉을때 구부려야 할것은 自明한 理致다.

練丹田動作은 參百六十餘 種類가 있으나 이를 略하고 몇가지注 意事項만 적어보기로 하자.

- 첫째 食事前後 五時間 以內에 하여서는 안된다.
- 둘째 多食多飲하지 말고
- 셋째 動作을 빨리 하지 말고
- 네째 강한 소리를 지르거나 들지말며
- 다섯째 思念을 적게하여 心氣를 기르고
- 여섯째 말을 적게하여 內氣를 기르며
- 일곱째 담이 울무덤 일어나 손과 발을 磨察하고 침을 삼키고 正座하여 丹田行功을 한다.

練丹의 가장좋은 時間은 天機가 動하는 子時이다. ♣

1972 년 指 導 者 教 育



협회는 『실력있고 신뢰받는 태권도인이 상(像)』을 부각시키는, 사범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72년 4월부터 시작하여 4기(期) 8회(回)의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1천여명의 일선지도 고단자(4단이상)가 참가하여 힘과 기술의 수련을 쌓았고, 멀리 「오스트리아」, 미국, 「싱가폴」, 「말레이지아」, 「스페인」 등 해외파견 사범들이 내한하여 이 교육을 받았고,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비롯하여 울릉도 완도 등의 도서(島嶼) 지방에서도 참가하여 협회 사업에 적극 협조하였다.

지도자교육에서는 예의규범, 지도자의 자세, 시사, 체육이론, 체력관리, 응급치료법, 심판규정, 경기규정 등 13개 과목에 걸쳐 36시간의 교육을 받고 최종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수료증을 발부해 왔다.

태권도가 각급학교 정규교과 과정에 편입됨에 따라 사범의 교육은 더욱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金雲龍 회장은 國技院 준공에 즈음하여 『태권도大學의 設立을 미구에 실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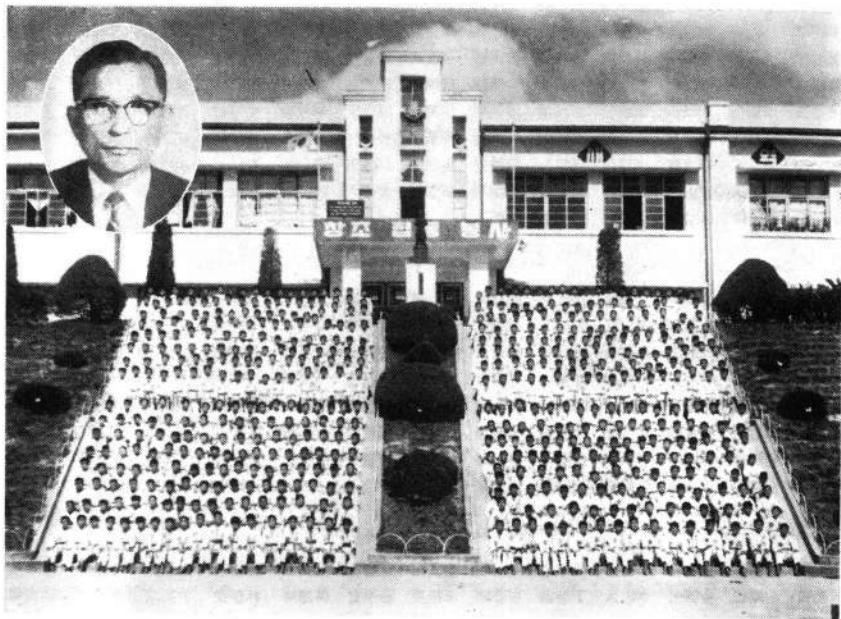
第二期 指 導 者 教 育

前 半 期 72.8.28~8.30
漢 陽 大 體 育 館

具鍾基	都完植	張華石	李榮雨	李相文	許 榕	金鍾善	李根浩	金光哲	金容浩	朴亨壽	金相六	金明植
金明杓	柳昌植	徐光琳	韓相充	金鍾泰	柳承光	金裕源	李秉吉	李奎鉉	申鉉模	金龍吉	權鳳烈	金錫浩
趙明元	李亨魯	韓載水	金正廣	吳贊錫	尹泰俊	尹泰中	尹泰書	鄭吉雄	趙碩濟	安永浩	정동진	이중식
방서홍	李殷松	金順永	李在善	金祐永	鄭順圭	金容岐	安義浚	閔庚夏	林允相	任學善	徐永俊	林興洙
洪正夫	金華龍	姜詰求	洪性尉	金鍾輔	金福錄	河誌錫	崔錫佑	심재익	具正道	崔模林	全性煥	崔炳學
배성운	김상하	전창식	이영철	한창길	金永昌	朴潤浩	金耕知	姜秉玉	高義敏	朴賢燮	신승의	이성식
金泰永	金鳳植	권정남	權宰燮	馬仲晔	尹定鉉	孟萬鎬	李相昱	강진팔	陳鳳洙	權宰德	金秉武	盧德來
金興圭	鄭寅和	朴相實	盧壽相	李宇福	권오근	姜世馨	劉鏡浚	朴雲雲	俞明植	白潤弼	韓化熙	趙成連
劉載一	崔永福	朴永培	李善結	李解雨	李炳奎	朴元植	朴元禧	李光烈	鄭宇盛	徐正道	李敦準	李炳淳
張漢傑	權鳳烈	李吉本	尹始鉉	金七萬	金鍾植	李允錫	金玉中	金泰植	金光燮	朴斗圭	裴其煥	李炳坤

유 단 자 및 유 급 자 825 명

청 주 한 별 국 민 학 교



이미 측구와 탁구로서 전국 국민학교에 잘알려진 한 별국민학교에 태권도부가 창설된 것은 1968년 3월의 일이다.

처음 1백2십명의 지원자를 이끌고 김 천호 교사가 지도할 때는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 보다 학부모에게 올바른 태권도의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더 힘든 일이었다. 차츰 수련학생의 수요가 늘어 2백명이 되었을때 김 교사의 노력과 정성은 결실을 맺어 청주시 국민학교 태권도 시범학교로 지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각 학년 주임교사들의 지도와 담임교사들의 협조로 4,5,6학년 전체에 보급을 받는 한편 일반 도장의 정 잡손 사범(중복 태권도협회장)을 초빙, 태권도 정신에 대한 지도를 받고, 교내행사 때에는 태권도 시범을 보임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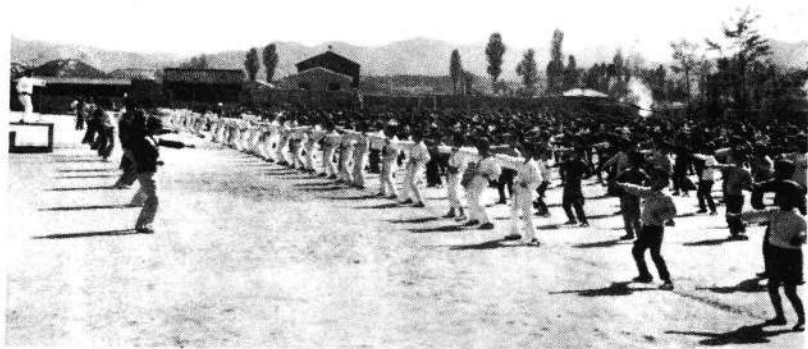
로서 이 중화 교장의 관심은 높아져 이제는 전교생이 참가하는 거교적(學校的) 일과로 적극 지원을 받게 되었다.

더우기 비상사태가 내렸던 지난 해에, 안보체육으로 태권도가 갖는 체육적 가치성과 시대의 요구가 절실하여 질에 부응하여 수련지망생이 급증, 청며 2백87명, 자며 2백63명, 유단자후보 2백1명, 유단자 74명으로 총 8백24명이 되었다.

이제까지 한별국민학교를 졸업한 학생가운데 1백48명의 유단자가 배출되고 각 학년주임들이 3년 전부터 일반도장에서 지도를 받고 유단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은 충북을 대표하는 시범학교로 자리를 굳히기 보다 전국을 대표 할 시범학교로서의 꿈을 실현해 가고 있다. ♣

2천 어린이의 태권도 학교

충남 입장 국민 학교



충남 입장국민학교는 천안에서 동북 12km 떨어진 안성선 중간 경기평야의 하단 넓은 곡창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입장면이 알려졌것은 일제시대에 금광이 개발된 후부터 금(金)의 고장으로 되었으나 지금은 입장국민학교 학생 2천명 어린이 모두가 태권도를 익히는 태권도 학교가 있는 곳으로 점차 그 이름이 높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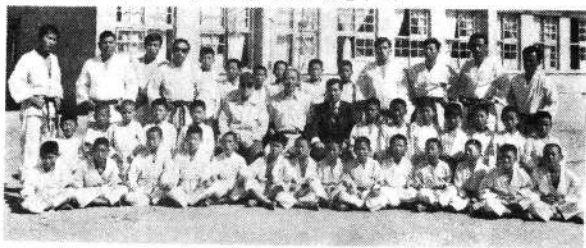
태권도 사범 박 규철 교사가 입장국민학교로 전임되고 태권도의 명칭조차 생소한 이 지역에 태권도의 붐을 일으키기 까지는 솔한 난관이 있었으나 김 준을 교장의 적극적인 배려로 학생과 교사가 일심동체로 자랑스런 태권도학교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전교 어린이 지도는 일주일 에 2회 중퇴때 실시하고, 특활 시간에 1회 30명, 방과후 특별

지도 50명을 매일 실시하므로서 전교학생이 고른 실력을 배양하고 있다.

도시의 어린이들 처럼 도복을 갖춰 입을 형편도 못 되는 지방 어린이들로서는 34명 교사들의 열과성의 찬 지도에 보람과 긍지를 지니고 있다.

『국민의 힘을 뭉치는 것이 총력안보 태세를 갖추는 지름길이며, 태권도 정신으로 단합된 힘의 생성이 국위 향상과 원동력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는 김준을 교장은 2천 어린이의 『기압』 소리가 마냥 즐거운 듯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





경북 최초 태권도 실시

대구 종로 국민 학교

대구시내 중앙 지대에 위치한 종로국민학교는 시내에서 맨처음 태권도를 실시한 학교다.

1인1기 교육 목표아래 4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전체 합동체육 시간을 통하여 태권도를 채택 수련하고 있다.

교육제와 체육제 중진인 이 규찬 교장과 김 원수 교장의 목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오 새명 선생의 끈기있는 노력이 꽃을 피워 어려운 여건을 이기고 유단자 60명을 배출하는데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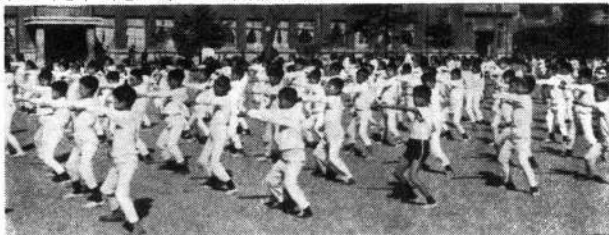
현재 수련생은 1학여명세 달하고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조직을 계기로 교내 행사 및 교외 행사에 참가하므로써 교내는 물론 타교에 태권도를 소개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

3년전 종로국민학교에 태권도부가 창설된 것을 시점으로 이제는 시내 여러 학교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으나 72년도

도내 국민학교대항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3개를 획득하므로써 경북 태권도 개척학교의 긍지를 갖게 된것은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이 학교의 태권도 역사 속에 보람을 찾고 성장하는 어린이의 모습에 큰 기쁨을 맛본다는 김 태욱 사범은 보다 좋은 시설에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보급시키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한다.

내일의 이 나라 역군이 될 어린이 교육이 중요이 것처럼, 태권도가 그들에 미치는 영향력과 비중이 큰 것이라면 환경 및 시설의 확충외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보아야겠다. ♣



5천 전아의 수련장

대구 수창 국민 학교

긴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대구 수창국민학교는 학교체육에 앞장서 체육을 중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여 온 체육의 명문교이다.

개교 이래 수 많은 체육인을 배출한 전통을 배경으로 전교생이 태권도 수련에 참가하고 있다.

화랑도의 후예임을 인식 시키고 건전한 정신과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공부에 열중할 수 있는 기쁨을 마련코저 이 학교에 태권도를 도입 시킨것은 지금부터 3년전 일이다.

대구 국민학교 태권도제를 개척한 김태욱씨를 사범으로 초빙한 것은 김 주연 교장과 권영준 교감의 열성적인 지원에서였고, 전교생이 참가하는 교기(校技)로

활기를 피우기 까지는 전체 교사들의 협조가 주요한 것이다.

3학년에 달하는 「맘모스」 실내 체육관을 갖고 있는 수창국민학교는 시설미비로 고전하는 타교와는 달리 건천후의 수련을 할 수 있는 잇점을 살려 72년도 경북 국민학교 대항 개인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7개와 은「메달」 5개를 획득하여 도내 제일의 태권도 학교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5천 여명에 달하는 전교생 합동체육시간을 참관하는 학부모들은 태권도를 보급하여 자녀들의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학교 당국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



國技를 익히는 궁지도 드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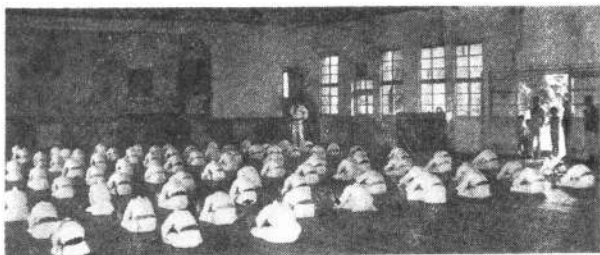
서울 종암 국민학교

궁은 단결 굳센체력 바른정신을 훈시로한 종암국민학교 태권도부는 2천여명의 어린이들이 희망에찬 내일을 바라보며 인내와 굳건한 투지로 종암국민학교 대강당에서 오늘도 수련에 열중하고 있다. 본교에 태권도부가 설치 된것은 72년 6월 2일이었다.

당시 학교장 이돈호 선생님의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각별해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학부모들의 협조와 문유근 사범을 비롯하여 유단 태권도 가족의 김태규 사범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그후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전 교직원들의 보살핌과 사범들의 열성 있는 지도로 짧은 5개월만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지금은 제법 교사리갈은 손들이 단단해 지고 동작 하나 하나 기합소리 아무지게 터질때 마다 가슴 벅찰



을 금할 수 없다.

발에 걸는 도복에 점칠질은 색깔의 띠로 바뀌는 아동들의 모습을 보는 사범들도 이제는 하면된다는 용기와 자신을 얻었고 학교측에서도 훌륭한 결실을 위해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들의 새싹들이 커져가고 어린 마음속에 간직한 무한한 꿈을 익혀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단련된 몸과 마음으로 번영 조국에 이바지하게될때 밝고 희망에 찬 꿈은 실현될 것이다. ♣

태권도로 영그는 굳센 몸매

충남 천원군 성신 국민학교

천안에서 기차를 타고 20분쯤 북으로 달리면 성환에 도착된다.

기차의 동쪽 창을 통해서 보면 5백여m 떨어진 곳에 노오란 건물이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본교이다.

1천5백여 아동들의 배움의 도장이고 생활의 도장인 이곳은 항상 인자하신 교장선생님과 아동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교감선생님 그리고 30여명의 선생님들의 사랑속에 아동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학교의 방침이 「아동체력향상」에 주력을 하고 있어 날로 건강해지고 씩씩해 지는 아동들의 밝은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의 호쾌함을 감출 수가 없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어린이들이 천원군 국민학교 대항 종합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성신국민학교에 태권도부가 창설된 동기는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사고(思考)」라는 「슬로건」에서 비롯 되었으며, 부형과 교장 및 교사들의 후원을 받으며 현 명조 교사가 앞장을 선 것에 유래한다.

태권도부의 구성은 3학년 12명, 4학년 18명, 5학년 52명, 6학년 3명으로 총 85명 부원들이 도장은 없지만 넓은 운동장에서 대한의 씩씩한 새싹답게 정갈 열성이다.

지난 가을 운동회 때 태권도 부원들이 보여준 시범은 모든 종류의 「프로그렘」가운데 단연 주목을 끈 운동회의 꽃이었다.

오늘도 학교 구석구석에 힘찬 구령이 울려 퍼지고 교직원들의 호쾌한 모습 속에 성신 어린이들의 몸매는 더욱 굳세지고 있다. ♣

***** 設問 73년 나의設計 *****

(設問)

- ① 72년에 태권도를 위해 자랑스러운 일을 하신일이 있습니까?
- ② 73년에 하고 싶으신 일.
- ③ 계간 「태권도」誌에 대한 要望.



河 基 星

연구했고, 해서 몸은 체육회 사무실이 있는 9층에 있어도 마음은 6층 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1년 내내 지냈다고 자부할 수 있는게 고작 일것 같습니다.

② 뜻대로 되지 않는것이 之間之事거늘, 굽히지 않고 굼연에는 해외진출의 집념을 계속하고 만듯이 성취시키고 말겠습니다.

③ 우선 젊은 일선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양성을 시 도한 협회의 방침은 고무적인 방침이었음에 틀림 없읍니다.

세대의 격차없이 한마음으로 뭉쳐 태권도의 발전에 모두 참여토록 앞으로라도 계속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



申 允 吉

① 지난해를 포함, 지난 2년 동안 월남에 파병되어 태권도를 월남의 전역에 심어 놓은것은 15년 수련경력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되겠지요. 그리고 역사적인 교본발간을 위하여, 李鍾佑 기술심의회의장을 모시고 熱夏의 3개월간(이때 더위는 월남보다도 더 더웠던것 같다)을 품세 「모델」로 나섰던 일은 자랑과 보람을 지닌 감명 깊은 최대 공약수의 해였다고 자부 할 만 합니다.

② 후배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③ 他 경기단체에 건줄 수 없는 獨步의 발전을 거듭시킨 태권도협회 會長님과 일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림 따름입니다. ♣



鄭 平 永

② 담당하고 있는 학교를 정상제도에 까지 올려놓는 일에 착수해야 겠읍니다.

그리고 학교에 시범단을 조직해서, 태권도를 하지 않는 학교에도 순방시범하여 우의를 돈독(敦睦)히 하고 태권도를 보다 널리 소개하고 싶습니다.

③ 고, 하단자를 막론하고 사범들간에 기술을 교류하는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권 영 문

① 지난 한해는 다섯차례에 걸친 협회주관 시범에 참가하므로서 큰 시범에는 한번도 거르지 않았읍니다.

이것은 자랑이기보다 그 시범을 준비하는 과정이 제 자신을 수련하는 향상의 「모우멜트」였다고 보아야 옳겠지요. ② 73년 5월에 「말레이시아」에 태권도사범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그때는 제가 가진 바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일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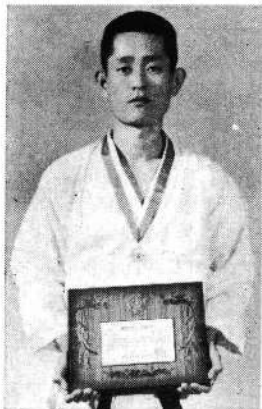
③ 「태권도」誌는 1억 50만 태권도인의 유익한 전문지여서 그 가치는 막중한 것입니다. 중앙의 기사제에 국한하지 말고, 전국 각 지편을 소개하는 난을 만들고 그 도장의 사진도 게재하여, 현재 나가고 있는 학교순례 「시리즈」와 같은 형식으로 소개하면 지방의 발전에 도움이 될것으로 봅니다.

要望하고 싶은 것은 「태권도」誌를 國內는 물론 세계 1백50만 태권도인이 누구나 봐서 연구하고 즐기는 종합지로 발전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

1959년부터 도장이 없는 충북 청주에서 사유지 채소밭을, 혹은 절(寺)의 마당과 무심천 냇가에서 천막을 치고 태권도 보급에 각고(刻苦)의 노력을 기울여 온 정 갑순 사범은 충청북도가 주는 최고 영예인 체육문화상을 지난 12월 29일 상금 20만원과 금메달을 포함한 상패와 함께 수여 받았다.

현재는 87명의 충북 글씨 실내도장(71년 3월 27일 준공)을 갖고 있고 충북지역에만도 2만의 태권도 인구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유단자로 구성된 봉사대를 조직하여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고 경찰과 군부대에 사범으로 활약하는 한편 맹아학교의 맹인학생(11명)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므로써鄭 사범의 명성은 더욱 널리 알려지고 있다.

本誌 제5호에 이미 그의 「프로필」이 소개되고, 대통령 표창 상록수 「樹章」수상 경력이 소개된 바 있으나,鄭 사범이 전개하는 향토문화 발전과 그의 뛰어난 봉사정신의 구현은 태권도인의 규범이 되고도 남아서 또다시 수상의 영광을 받게 된 것이다.



태권도를 통한 도민 체력향상, 정신의 단련, 이러한 문제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생활인의 모범적 행위이며, 그 기수야말로 태권도인의 참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제는 태권도가 널리 보급되어 그 저변인구 확대에 힘쓰지 않아도 될 때입니다. 중앙도장이 준공되고 세계대회를 마련하는 것이 시차적이고 외형적인 종주국체토의 완성이라고 보아, 앞으로는 내실을 갖추는 문제가 구체화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도자강습회가 매달 개최되고 교본이 발간되는등, 金雲龍 회장의 정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미구에는 내실의 문제가 정리되었지만, 일선사범들이 자각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기풍이 마련되어야 겠다』고 강조하고 사상적 지주(支柱)가 되어주신 협회 회장님과 선배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그의 수상 소감을 말했다. ♣

<수상 및 표창 경력>

- 1, 상록수 공무원으로 대통령 표창
- 2, 청풍 봉사상
- 3, 내무부장관 표창 3회 (무도 유공자)
- 4, 치안국장 표창(무도 유공자)
- 5, 군기관 감사장 5회
- 6, 체육회장 표창 3회



한국적 민주주의 우리땅에 뿌리박자

태권도로 뭉친 새마을 학교

태권정신 구현의 기수들



강원도 춘성군 신남국민학교

옛부터 한국을 금수강산이라 이른것은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등 명산들이 자리잡고 있는 강원도가 있어 그 이름이 유래하였다.

근간에 이곳은 관광지역으로 개발되어 4계절 관광객이 끊일 사이가 없으나 찾길이 미치지 않는 벽지의 마을은 예나 지금이나 문명의 혜택은 커녕 빈익빈(貧益貧)의 외롭고 쓸쓸한 생활을 이어왔다.

또한 강원도 감자바위는 암하노불(岩下老佛)이란 표 현 그대로 우직(愚直)하고 꾸밈없기로 잘 알려져 있다. 하늘이 준 운명을 감수하고 여기에 순응하는 소박한 자세를 간직해왔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보다 슬기롭고, 보다 역세고, 보다 담력있는 인간상(人間像)을 정립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어떠한 고난, 어떠한 위험에도 버티어낼 수 있는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고 생산적인 생활풍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운동은 먼저 태권도로부터 시작되었다. 국민학교의 일선교사들이 발벗고 나서고 도교육위원회가 이를 뒷받침하여 생활교육의 일환으로서 태권도를

보급 지도하는데 정열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 운동은 바로 새마을운동과 직결되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다. 물산을 짊어 진담을 일구는 화진민의 정신으로 이들은 건강하고 풍요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땀을 흘렸다. 이러한 운동의 대표적인 벽지 학교를 탐방하여 태권도를 통한 생활 운동들을 살펴 본다.

江原道春城郡新東面漆谷里 新南국민학교. 40년의 전통을 이어오는 동안 가난한 농민의 후손으로 슬기와 힘을 닦아 사회의 일꾼이 되기까지 도시인들의 상상을 초월케 하는 애련(哀戀)의 역사를 갖고 있었다.

20리 혹은 30리 밖에서 물을 건느고 산을 넘어 통학하는 어린 학생들. 장마와 폭설은 이들의 등교길을 막았고 춘강기의 고통과 농번기의 분주한 일들이 이들의 등교를 망설리게 하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을 배경으로 한 6백7명 학생의 배움터 신남국민학교는 건역사에 비해 발전은 고사하고 교사(校舍)의 옛 모습을 유지하는것조차 쉬운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학교에 71년 3월 황 환배(黃煥培) 교감이 부임해 오면서 고식적(姑息的)이고 구태의연(舊態依然)한 교풍(校風)은 새롭고 명랑하게 바뀌어 갔다. 오렌지 칩목 끝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사자의 포효(咆哮)처럼 새로운 생동(生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백마디의 웅변보다 더 설득력 있는 행동으로 옮겨졌다.

신남국민학교에 부임해온 황 교감은 벽지 어린이들의 순박하고 착한 마음보다 활발하고 굳센 몸과 마음을 요구했고 학급담임선생을 모아 국난을 이기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꾼을 길러내는 것이 급선무(急先務)임을 강조하고, 젊은 남 선생부터 태권도수련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어 3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도 태권도를 지도했다.

가난한 시골 학생들에게 도복을 구입을 권장할 수가 없어 밀가루 부대를 구매다가 약식 도복을 만들어 입히고 마음껏 뛰놀고 구김없이 수련에 참가토록 용기를 붙여 넣어주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전교의 교사 13명(남교사 7명 여교사 6명)이 모두 유급자가 되고 태권도를 배우는 학생의 학부모의 반응이 나타났다. 학생들이 철이나고 세상을 알고 이해할 연령에 이르면 자신의 처지를 파악하고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부모와 선생을 원망하는 벽지학생 특유의 열등식이 없어져 단교도 호명이었다.

그것은 큰 변화였다. 또한 이 수확은 황 교감의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비록 상표가 그대로 붙어 있는 밀가루부대 도복을 입고, 표식이 지워지고 풀려져 껌메입은 도복이 남루하고 초라했으나 거기에는 물질의 세계에서 정신의 세계로 승화하고 도(道)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굳은 의지(意志)가 피어나고 있었다.

교사들은 이들의 모습에서 온갖 보람을 맛볼 수 있었고, 생애의 신통(幸遇)과 잔란(艱難)이 따른다고 해도 기꺼이 감내(堪耐)할 수 있는 극기(克己)와 자제력(自制力)을 갖게 되었다.

매일같이 운동을 계속하는 동안 육신의 피로와 고통이 가증되었다. 특히 여교사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

유한(有限)한 육체능력은 무한(無限)한 인간의욕을 쫓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이런때는 태권도의 이론으로 실기를 태신하고, 몸과 마음을 굳센 의지로 가꾸고 다듬어 나가도록 정신수련에 힘썼다.



金雲龍회장이 보낸 태권도복과 「페난트」를 전달하는 金千善사범(左)과 黃義贊 교장(右)

전체 교사가 몸쳐서 기율이 열성있는 태도에 황 의찬(黃義贊 50세) 교장도 감복하고 마침내 도복을 입고 학생들 앞에서 수련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뒤를 이어 43세의 여교사가 용기를 내어 수련을 시작, 전학년 전학급이 태권도를 배우기에 이르렀다. 교사들 가운데에서 속속 유단자 선생님이 배출되고 여교사들도 4급과 3급에 이르는 실력을 갖출 수 있었다.

날이 갈수록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며 서로 학교를 발전시키겠다는 애교심(愛校心)에 불타

오르니 사제(師弟) 간에는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그 정신은 학교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지역사회로 파급되어 나갔다.

학생들의 신체가 단단해지고 머리를 쓸 줄 아는 사고력(思考力)의 변화를 보자 학부모들도 학교의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교사들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시했다.

1972년 봄.

새마을 운동을 범국민적행사로 전국에 퍼져나갈때 신남국민학교는 논과 밭 사이를 지나는 꼬불꼬불한 길을 흙을 메우고 들을 쌓아 넓이 6m 길이 150m의 대로(大路)로 확장했다. 이는 전교생이 수업이 끝나는 방과후를 이용하여 태권도로 다져진 매물찬 손으로 이룬 크고 놀라운 성과였다.

이 길이 완성되던날 교사들과 학생들은 그들만의 기쁨을 나누고 뿌듯한 감정으로 눈시울을 적셨다.

이 광경을 보고 들은 산간과 농가의 부형들은 삼파영이 등 연장을 들고 학교를 찾아왔다.

그리고 태권도로 몸쳐지고 태권도로 굳은 성실해진 자제들이 넓은 운동장에서 함께 수련하는 광경을 만들기 위하여 운동장에 연결된 산을 헐어 평지를 만드는 작업에 나섰다.

교장과 교감, 그리고 교사들은 이 뜻밖의 요청에 묵이 베였고, 강원도의 관계 당국에 산과 전답(田疇)을 매입할 자금을 요청했다. 도 당국도 이를 쾌히 승낙, 도(道)의 지원으로 운동장 확장공사는 곧 시작되었다.

이 사랑과 봉사와 협동의 작업은 학부모와 인근의 마을사람들이 밤과 낮이 없는 연속작업으로 만 3개월(72년 3.4.5월) 동안 진행되어 1천7백평 운동장이 2천7백60평의 운동장으로 확장되기까지 연인원 5천명이 동원되어 완성을 보았다.

누구의 권유없이, 한문의 보수없이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 또다른 역사는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리라.

실로 사랑의 힘과 태권도 정신이 아니면 이런 기적은 이루어질 수 없었으리라.

더욱 20리 30리의 산골에서 집집을 걸려가며 모여들고 육신의 아픔을 잊고 작업을 하고, 작업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식(子息)들의 환한 표정에서 보람을 찾았던 이들의 이야기는 신남국민학교의 전통에 길이 남을 것이다.

잘먹고 잘일고 잘살기 위한 노력도 보람을 얻을 수 있고 지위와 명예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보람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모든것을 초월하여 더 높은 보람을 현실속에서 찾고있다. 태권도를 그만큼 이들에게 가치있고 보람찬 것이었다. 태권도로서 자조(自助) 자

립(自立) 협동(協同)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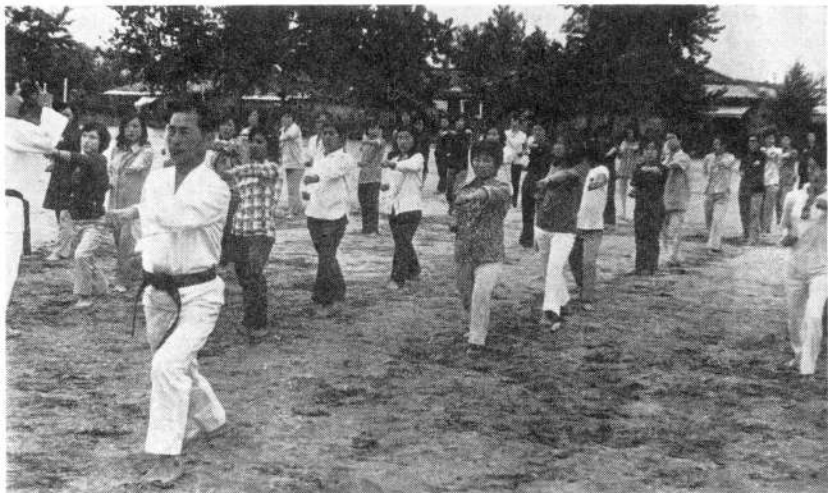
처음에는 어린 소년들에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이 위험하다고 주장했던 선생이나 학부형들도 태권도의 신체발육효과나 정신강화효과를 1백퍼센트 인정하여 적극 권장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웃 주민들까지 감명을 받아 태권도 수련 참가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같이 신남국민학교의 태권도 운동이 크게 히트하자 강원도 교육위원회는 이 운동을 거도적(驅道的)으로 확대할 계획아래 지난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초·중·고교사 1백72명을 대상으로하여 태권도 기술지도교육을 실시했다. 이 중에는 3분의2가 유단자여서 이들이 3월 새학기부터 각 학교에서 태권도 교육을 실시하면 뚜렷한 성과가 있을 것이 확실하다.

도교육위원회는 이 기회에 학생들의 체질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개발의 역군을 양성하고 모든 분야에서 생산적인 산교육의 바탕을 굳히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 교육이 개인생활과 아울러 지역사회활동에 연장되어야한다고 강조하는 교육당국자들은 태권도는 단순히 개인의 체력 단련만으로 끝나지 않고 협동정신을 기르는 한편 소득증대 운동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

↓ 왼쪽에 있는 분이 활한배 교감이다.



1973년 기술심의회 분과위원 명단

심사 분과위원회

김 선 전재규 김봉길 이태성 심창수
서정길 최진국 서한철

경기 분과위원회

임지영 한철유 김호재 김봉기 진덕영
이병규 김동성 홍일화

심판 분과위원회

원천희 박명수 원청남 한춘교 곽병오
정운산 민경하 민흥기

파견 분과위원회

백학제 신동규 김영작 김일호 문한중
윤재봉 하기성 이무성

교육 분과위원회

이영근 정승구 김흥기 방서홍 박정길
안용인 김용택 문종만

상벌 분과위원회

서정도 최청태 노상식 나진해 박봉서
이승용 김영열

연구 분과위원회

고윤삼 정진영 김용휘 김우영 강용식

편집 분과위원회

박성규 이원강 김봉주 이진목 고선식

국제 분과위원회

박영조 박진형 서영준 이계정 김양일

홍정부 분과위원회

홍정부 백수남 김석호 신재도 이일성

「캠페인」

벽지와 낙도에 도복을 보냅니다

이제 태권도가족은 1백50만의 대가족으로 늘어 났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에서 그리고 낙도와 벽지에서 남녀노소가 수련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태권도 종주국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도복을 입지 못하고 수련하는 사람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 이 있습니다.

특히 낙도(落島)와 벽지(僻地)의 어린이들 경우는 도복을 입은 사람보다 입지 못 한 수련인이 많이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태권도「誌」에서는 태권도복 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고 뜻있는 여러분 의 호응을 얻기로 하였습니다.

반드시 새 도복이 아니더라도 입다가 적어진것, 혹은 도장에서 사용치 않고 먼 지가 쌓이고 있는 주인 없는 도복이 벽지의 어린이들에게는 기쁨을 줄수있는 좋은 선물입니다.

각 도장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보 내 실 곳 : 서울·충구 무교동19번지

대한태권도협회 편집실

때 : 1973년 4월 1일~5월 30일 까지

보내는요령 : 소포로 우송하거나 본인이 직접 가져올 것.

※ 기타 자세한 것은 ㉓ 2374 로 문의해 주십시오.

태권도 의식

TAE KWON DO ILLUSTRATED

담당 이 종 우



반만년(半萬年)의 유구(悠久)한 역사와 전 통을 자랑하는 우리의 조국(祖國).
예로부터 총명(聰明)한 지혜(智慧)와 슬기로움을 지닌 민족(民族)이라 불려왔다.
어느 민족보다 창조심(創造心)이 강했고 극 치(極致)에 달한 문화예술(文化藝術)
의 유물(遺物)은 타민족(他民族)의 선망(羨望)을 받고 있다.
더욱이 태권도의 종주국임을 자부하고 고려인(高麗人)의 기개를 높혀 민족의
얼을 엮어, 동작으로 표현한 것이 고려이다.

진행연무선도 고유의 선비를 뜻하는 「士」字 형을 택하였고 동작에 움직이는
형태는 우리 민족이 지닌 고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 내듯 품세의 어려가
지 깊은 기술을 적용하였다.

이 품세의 중요한 생명은 배달의 얼을 한껏 발휘한 절도(節度)와 완만성(緩慢
性)을 응용 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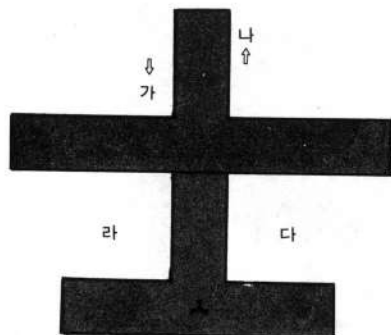
품세 고려는 수련자가 진행선 위에서 앞을 향하여 선비사(士)자로 동작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본문에는 사진 설명상 진행선이「干」자로 뒤집혀 지므로 본문을 읽는
불편을 덜기 위해 「士」자로 표기 하였으니 사진 설명과 동작진행에 차질없도록
주의하고 또한 방향을 나타낸 「가, 나, 다, 라」는 사진과 같은 방향 을 나타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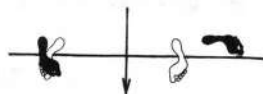
고려형

Ko-Ryo Form

품세진행선



동작수 30동작



①

제 1 동작

1. 왼발 "다" 방향으로 옮겨
2. 오른 뒷굽이
3. 손날 몸통막기

action 1:

- (1) Turn your body to your left, and move your left foot a step forward.
- (2) Take a right-backward-posture.
- (3) Make an out-center-block with your left hand-knife.

②-1

제 2 동작

1. 오른발 "다" 방향 향하여 아래 옆차고 (무릎) 다시 몸통 옆차기 하고 내딛어
2. 오른 앞굽이
3. 오른 엷은손날 목치기



action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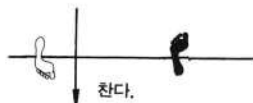
- (1) Make a double side-kick at the side of lower part (knee) and then the side of body with your right foot towards your left, and move your right foot a step forward.
- (2) Take a right-forward-posture.
- (3) Make a strike at the neck with your right hand-knife, palm down.



준비 통밀기

Ready Posture (Tong-Mil-Gi; Barrel Pushing)

②-2



②-3



③



④



제 3 동작

1. 제자리
2. 서기 그대로
3. 왼주먹 몸통바로 지르기

action 3:

- (1) Same position as Action 2.
- (2) Same posture as Action 2.
- (3) Give a straight-punch at the body with your left f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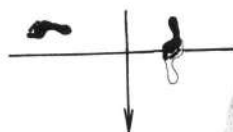
제 4 동작

1. 왼발 제자리 오른발 약간 끌어
2. 왼 뒷굽이
3. 오른 몸통막기

action 4:

- (1) Drag your right foot a bit backwards without moving your left foot.
- (2) Take a left-backward-posture.
- (3) Make a center-block with your right inner-wrist.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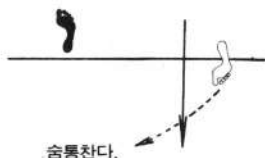
제 5 동작

1. 왼발 축 몸을 오른쪽 돌리며 오른발 "라" 방향 옮겨
2. 왼 뒷굽이
3. 손날 몸통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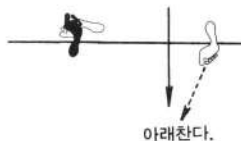
action 5:

- (1) Turn your body to your right keeping your weight on your left foot, and move your right foot a step forward.
- (2) Take a left-backward-posture.
- (3) Make an out-center-block with your right hand-knife.

⑥-2



⑥-1



⑥-3



제 6 동작

1. 왼발 "라" 방향 향하여 아래 옆차고(무릎) 다시 몸통 옆차기 한다음 내딛어
2. 왼 앞굽이
3. 왼 엷은 손날 목치기

action 6:

- (1) Make a double side-kick at the side of lower part (knee) and then the side of body with your left foot towards your right, and move your left foot a step forward.
- (2) Take a left-forward-posture.
- (3) Make a strike at the neck with your left hand-knife, palm down.

⑦



발동작 :
⑨-2 와 동일

제 9 동작

1. 오른발 축 몸 왼쪽으로 돌리며 왼발 "가"방향 옮겨
2. 왼 앞굽이
3. 왼손날 아래막고 허리로 끌며 오른 칼재비

action 9:

- (1) Turn your body to your left keeping your weight on your right foot, and move your left foot a step forward.
- (2) Take a left-forward-posture.
- (3) Make a lower-block with your left hand-knife, palm down, and close in your left hand-knife, palm up, to your waist, and make an upper-thrust with your right hand palm-c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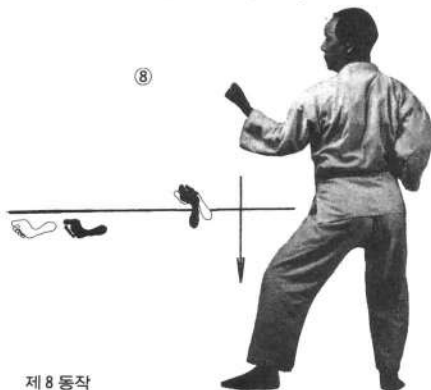
제 7 동작

1. 제자리
2. 서기 그대로
3. 몸통 바로지르기

action 7:

- (1) Same position as Action 6.
- (2) Same posture as Action 6.
- (3) Make a straight-punch with your right fist.

⑧



제 8 동작

1. 오른발 제자리 왼발 약간 끌어
2. 오른 뒷굽이
3. 왼 몸통막기

action 8:

- (1) Drag your left foot a bit backwards without moving your right foot.
- (2) Take a right-backward-posture.
- (3) Make a center-block with your left inner-wrist.

⑨-1



⑨-2



⑩-1



찬다.

제10동작

1. 오른발 앞차고 내딛어
2. 오른 앞굽이
3. 오른손날 아래막고 허리로 끌며 왼 칼재비

action 10:

- (1) Make a front-kick with your right foot without moving your left foot, and move your right foot a step forward.
- (2) Take a right-forward-posture.
- (3) Make a lower-block with your right hand-knife, palm down, and close in your right hand-knife, palm up, to your waist, and make an upper-thrust with your left hand palm-chop.

⑩-2



⑩-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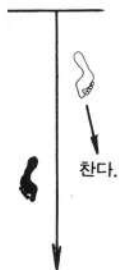


⑪-2



발동작 : ⑩-2 와 동일

⑪-1



⑪-3



제11동작

1. 왼발 앞차고 내딛어
2. 왼 앞굽이
3. 왼손날 아래막고 허리로 끌며 오른 칼재비

action 11:

- (1) Make a front-kick with your left foot without moving your right foot, and move your left foot a step forward.
- (2) Take a left-forward-posture.
- (3) Make a lower-block with your left hand-knife, palm down, and close in your left hand-knife, palm up, to your waist, and make an upper-thrust with your right hand palm-chop.

발동작 : ⑪-2 와 동일

⑫-1



제12동작

1. 오른발 앞차고 내딛어
2. 오른 앞굽이
3. 오른 손바닥 아래서 위로 배까지 끌어 올리며 왼손바닥으로 위에서 아래로 누른다. (발목을 잡아 무릎을 눌러 꺾는 동작)

action 12:

- (1) Make a front-kick with your right foot without moving your left foot, and move your right foot a step forward.
- (2) Take a right-forward-posture.
- (3) Pull up your right hand, palm up, to the abdomen, and press down your left hand, palm down. (Breaking action; grab ankle and press knee.)

⑫-2



⑬



제13동작

1. 왼발 한걸음 나가("가" 방향) 딛고 몸을 오른 쪽 돌려 "나" 방향 향하여
2. 오른 앞굽이
3. 안팔목 몸통 헤쳐막기(잡은 발을 올려 제치는 기분으로)

action 13:

- (1) Move your left foot a step forward keeping your weight on the right foot, and turn your body to your right.
- (2) Take a right-forward-posture.
- (3) Twist up your inner-wrists in front of your chest, and make a push-aside-block with your inner-wrists. (As if you are pulling up legs you grabbed.)

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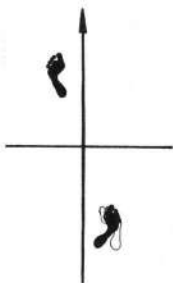
제14동작

1. 왼발 앞차고 내딛어
2. 왼 앞굽이("나" 방향)
3. 왼손 아래서 위로 끌어 올리며

action 14: 오른손 위에서 아래로 내려 누른다.

- (1) Make a front-kick with your left foot without moving your right foot, and move your left foot a step forward.
- (2) Take a left-forward-posture.
- (3) Pull up your left hand, palm up, to your abdomen, and press down your left hand, palm down.

⑭-2



⑮



제15동작

1. 제자리
2. 서기 그대로
3. 안팔목 몸통 헤쳐막기

action 15:

- (1) Same position as action 14.
- (2) Drag your left foot a bit backwards, and take a same position as action 14:
- (3) Twist up your inner-wrists in front of your chest, and make a push-aside-block with your inner-wrists.

⑯



제16동작

1. 왼발축 몸 오른쪽 돌리며 오른발 "라" 방향 옮겨
2. 주춤서기 ("가" 방향)
3. "다" 방향을 향하여 왼 한손날 몸통막기

action 16:

- (1) Turn your body to your right keeping your weight on your left foot, and move your right foot a step forward.
- (2) Take a horse-riding-posture.
- (3) Make an out-center-block with your left hand-knife, palm down, towards your left.

⑰



제17동작

1. 제자리
2. 서기 그대로
3. 오른 주먹 표적치기

발동작 : ⑯ 과 동일

action 17:

- (1) Same position as Action 16.
- (2) Same posture as Action 16.
- (3) Give a straight-punch with your right fist to your left hand pal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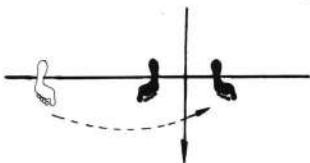
18-1

제18동작

1. 왼발을 왼발 앞으로하여 꼬아서며 왼발 "다" 방향 향하여 몸통 옆차고 내딛으며 몸을 오른쪽 "라" 방향 향하여
2. 오른 앞굽이
3. 왼 손바닥 위를 향하도록 아래로 뻗는 동시 오른 손바닥은 왼 어깨쪽으로 가져간다.

action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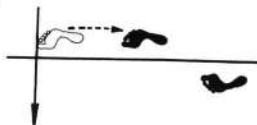
- (1) Move your right foot over your left toes, and stand in a twisted posture, and make a side-kick with your left foot at the side of body towards your left, and move your left foot a step forward, and turn your body to your right keeping your weight on your left foot.
- (2) Take a right-forward-posture.
- (3) Stretch your left hand, palm up, down in 45 degree, and at the same time take your right hand in front of your left shoulder.



18-2



19



제19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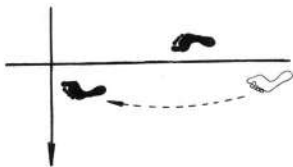
1. 왼발 제자리 오른발 끌어
2. 오른 앞서기
3. 두손 교체시키며 오른 아래막기

action 19:

- (1) Drag your right foot a bit backwards without moving your left foot.
- (2) Take a right-stand-posture keeping your knees apart as wide as one step.
- (3) Make a lower-block with your right outer-wrist while changing your wrists in the same manner in front of your abdomen.



②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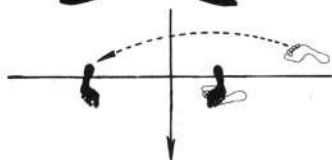
제20동작

1. 왼발 한걸음 나가며 왼 손바닥으로 눌러 막고 다시 오른 발이 한걸음 나가
2. "가" 방향을 향하여 주춤서기
3. 왼손으로 오른 주먹을 바쳐 "라" 방향을 향하여 오른 팔굽치기

action 20:

- (1) Move your left foot a step forward, and make a pressing-block with your left hand, palm down, and then move your right foot a step forward while turning your body to your left.
- (2) Take a horse-riding-posture.
- (3) Support your right fist with your left hand palm, and make a strike with your right elbow towards your right.

②0-2



②1



발동작 :

②0-2 와 동일

제21동작

1. 제자리
2. 서기 그대로
3. "라" 방향을 향하여 오른 한손날 몸통막기 향

action 21:

- (1) Same position as Action 20.
- (2) Same posture as Action 20.
- (3) Make an out-center-block with your right hand-knife, palm down, towards your right.

②2



제22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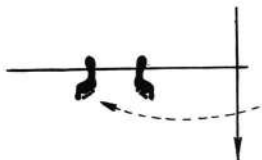
1. 제자리
2. 서기 그대로
3. 왼주먹 표적치기

발동작 : ②0-2 와 동일

action 22:

- (1) Same position as Action 21.
- (2) Same posture as Action 21.
- (3) Give a straight-punch with your left fist to your right hand palm.

제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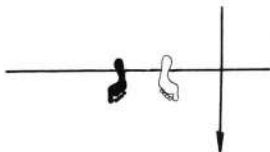
제23동작

1. 왼발을 오른발 앞으로 꼬아서며 오른발로 "라" 방향을 향하여 옆차고 내딛으며 몸을 왼쪽으로 돌려
2. "다" 방향을 향하여 왼 앞굽이
3. 오른 손바닥 위를 향하도록 아래로 뺀는 동시 왼손바닥은 오른 어깨쪽으로 가져간다.

action 23:

- (1) Move your left foot over your right foot toes, and stand in a twisted posture, and make a side-kick with your right foot, and turn your body to your left keeping your weight on your right foot.
- (2) Take a left-forward-posture towards your left.
- (3) Stretch your left hand, palm up, down in 45 degree, and at the same time take your left hand in front of your right shoulder.

제23-2



제23-3



제24

제24동작

1. 왼발 약간 끌어
2. 왼 앞서기
3. 두손 교체시키며 왼주먹 아래막기

action 24:

- (1) Drag your left foot a bit backwards.
- (2) Take a left-stand-posture keeping your knees apart as wide as one step.
- (3) Make a lower-block with you left fist while changing your fists in the same manner in front of your abdomen.



(25)-1



(25)-2



제25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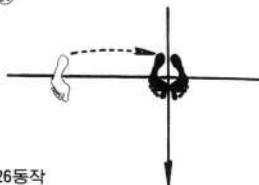
1. 오른발 한걸음 나가며 오른 손바닥으로 눌러 막고 다시 왼발 한걸음 나가
2. "가" 방향을 향하여 주춤서기
3. 오른손으로 왼주먹을 받쳐 "다" 방향을 향하여 왼 팔굽치기

action 25:

- (1) Move your right foot a step forward, and make a pressing-block with your right hand, palm down, and move your left foot a step forward.
- (2) Take a horse-riding-posture.
- (3) Support your left fist with your right hand palm, and give a strike with your left elbow towards your left.



(26)



제26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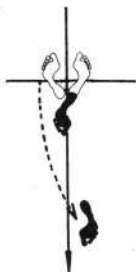
1. 오른발 왼발에 붙여
2. 모아서기("가" 방향)
3. 두손을 양옆으로 벌렸다 아래배 앞에 왼 매주먹을 오른 손바닥에 부친다. (이때 호흡조정을 한다.)

action 26:

- (1) Close in your right foot to your left foot.
- (2) Stand on your feet closed together.
- (3) Open arms in both side, and place your left inner-fist to your right hand palm in front of the lower part of abdomen. (At this time control your breathing)



(27)-1



제27동작

1. 왼편으로 몸을 돌리며
2. 왼발을 "나" 방향으로
3. 왼손날 바깥치기 한다음 다시 왼 한손날 아래 막기

action 27:

- (1) Turn your body to your left keeping your weight on your right foot, and move your left foot a step forward.
- (2) Make a left-stand-posture keeping your knees apart as wide as one step.
- (3) Make an upper-strike with your left hand-knife, palm up, and then make a lower-block with your left hand-knife, palm down.



발동작 : ②7-1 과동일

발동작 : ②8-1 과동일



제28동작

1. 오른발 한걸음 나가
2. 오른 앞서기
3. 오른 한손날 목안치기 한다음
다시 오른 한손 날 아래막기

action 28:

- (1) Move your right foot a step forward.
- (2) Take a right-stand-posture keeping your knees apart as wide as one step.
- (3) Make a strike at the inside neck with your right hand-knife, palm up, and then make a lower-block with your right hand-knife, palm down.

제29동작

1. 왼발 한걸음 나가
2. 왼 앞서기
3. 왼 한손날 몸치기 한다음 다시 왼 한손날
아래막기

action 29:

- (1) Move your left foot a step forward.
- (2) Take a left-stand-posture keeping your knees apart as wide as one step.
- (3) Make a strike at the body with your left hand-knife, palm up, and then make a lower-block with your left hand-knife, palm down.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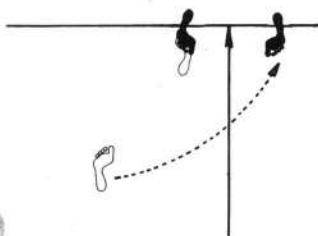
㉘-2

뒤



발동작 : ㉘-1 과동일

그만



앞

㉙

뒤



“그만” 오른발 축 몸을 왼편으로 돌려
“가” 방 향을 향하여 준비 서기로

End (Geu-Man)

Turn your body to your left keeping your weight on your right foot, and take a ready posture.

제30동작

1. 오른발 한걸음 나가
2. 오른 앞굽이
3. 오른 칼재비

action 30:

- (1) Move your right foot a step forward.
- (2) Take a right-forward-posture.
- (3) Make an upper thrust with your right hand palm-chop.

흑띠가죽



박영래



4



1



5



2



6



3



7



안시성싸움과

城主 양만춘

金 鵬 鍾

고구려가 강대하여지자 중국에 대해서는 큰 위협이 되어 수(隋)나라 양제(楊帝)의 대원정을 비롯해서 여러차례 침공하였으나 번번히 패전하고 돌아갔다.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일어나서 국내의 통일을 완성하자 태종(太宗)은 숙적(宿敵)인 고구려의 정벌에 나섰다.

× × ×

때는 고구려 보장왕(高句麗寶藏王) 4년, 당태종이 거느리는 30만의 대군은 조그만 해동의 강적을 이 기회에 굴복 시키겠다는 의지로 신홍 정복자 담계 호통을 치면서 요수(遼水)를 건너고 현도성(玄菟城= 지금의撫順)에 이르고 있었다.

『그제 월말이나, 대국으로 해동의 소국하나 거느리지 못하고 어찌 중원을 다스리겠는가? 내 기어히 대병(大兵)으로, 소국을 짓밟아 원수를 갚고 한편, 우리 당(唐)의 위세를 사방 오락케에게 보여주겠다!』

당태종의 대군은 굳게 닫은 고구려의 성문을 타치는 대로 깨뜨리고 개모성(蓋牟城= 지금의瀋陽의東南)을 점령하고 비사성을 점령하였다. 이어서 요동성(遼東城= 지금의遼陽)을 공격, 치열한 전투 끝에 이를 빼앗고 나아가 백암성(白巖城)을 빼앗은 다음 안시성(安市城)에 이르렀다.

당태종은 바라 보이는 안시성을 팔채칙으로 가리키며 호기있게 말했다.

『고구려의 운명도 안시성을 짓밟으면 끝장이나고 말 것이다.』

그러자 막료장수(幕僚將帥) 이세적(李世勣)이 한사코 말린다.

『그것은 폐하께서 잘못 생각하신 것으로 압니다.』

『안시성을 진다는 것이 어찌서 잘못인가?』

『안시성으로 말할것 같으면 성이 험준하고 군사들이 날쌔게다가 성을 지키는 양만춘(楊萬春)이란 장수는 지용(智勇)이 절륜(絶倫)하고 충성심이 고금에 드문 자라고 합니다.』 일찌기 막리지연개소문(莫離支淵蓋蘇文)이 난을 일으켰을 때에도 곳곳히 버티고 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오니 결코 가볍게 볼 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시성을 치지 않고 돌아서 갈수는 없지 않은가?』

당태종은 약간 못마땅한 낯으로 이렇게 반문했다.

『오골성(烏骨城)을 점령한 후 압록강을 건너 평양을 치도록 하십시오. 약한 곳을 먼저 멸어뜨린 다음에 안시성을 치는것이 순서인줄 아읍니다.』

그러나 당태종은 끝내 이세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걸 가리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거야. 이제 우리의 군량이 모두 요동에 있는데 먼저 오골성을 쳤다가 고구려군이 그 양도를 끊어 버리면 어찌하겠느냐.』

이 말에는 이세적도 무어라 답변할 길이 없었다.

마침내 당태종은 안시성을 향해 진격할 것을 명령했다. 당태종의 30만 대군은 이 외파로 서있는 조그만 성을 단숨에 쓸어 버릴 기세로 노도(怒濤)처럼 밀려왔다.

이세적의 말을 듣기는 했지만, 제 아무리 난세고 웅대한 고구려의 군사도 30만이나 되는 대군을 보기만 하면 겁을 질어 먹고 성문을 열어 주리라고 당태종은 짐작했다.

그런데 이 어찌 된 일인가? 대군이 바로 성 밑까지 새까맣게 모여 들어도 성벽 위에 나부끼는 것발은 까닥도 없었다.

『이런 발칙한 놈들! 어서 성문을 부시고 쳐들어 가지 못한가?』 그러나 성문은 어찌 견고한지 아무리 성경이들 해도 끄떡이 없다.

당태종은 초조했다.

『성문이 열리지 않으면 성벽을 기어 오르면 되지 않느냐. 어서 성벽을 기어올라 안으로 쳐들어 가라!』

그러나 성벽은 아득히 높고 짝은 듯이 미끄러워 기어올라 가려다는 멀어지고 어찌다 거의 기어 올라설 지음에는 성위에서 돌이며 쫓는 물줄을 퍼붓는 통에 눌러 죽고, 메어죽고 또 남에게 짓밟혀 죽는자가 무수했다.

『이제는 별 도리가 없으니 오래 성을 둘러 싸고 있다가, 군량이 떨어져 굶는 날을 기다릴 수 밖에 없읍니다.』

니다.』

이세적이 보다 못해 다시 이렇게 권하니까 당태종은 노발대발한다.

『그제 다른 사람아닌 당태종 이세민에게 할 말이나? 일찍이 중원을 평정하고 30만 대군을 거느린 내가 변방의 조그만 성(城)하나 뺏지 못해서 군량 떨어지기를 기다린단 말이나.』

당태종이 하도 노발대발 하기에 이세적은 더할 말이 나오지 않아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니까 당태종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친다.

『적의 성이 높고 험하면 이편에서도 성을 쌓아라! 적의 성과 똑같이 성을 쌓으면 그 성으로 기어 올라가 적의 성으로 뛰어들어 갈 수가 있지 않느냐!』

곧 군졸들을 동원해서 흙을 운반해 오고 돌을 날라다가 성을 쌓기 시작했다.

연인원 50만이 철야로 돌과 흙을 나르고 당의 장수 도종(道宗)의 지휘하에 성 동남 쪽에 토산을 쌓아 올렸다.

천신만고 끝에 성의 높이가 안시성의 높이에 이르자 안시성에서는 그 보다 약간 높게 목책(木柵)을 세워 보수를 할뿐 성 내부는 조용할 따름이다.

이러는 사이에도 성주 양만춘은 전쟁의 준비를 차분히 하여 나갔으며 대결전을 앞두고 장졸들을 안심시키고 사기를 높여 주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성 안에 있는 솥이란 솥, 형집을 모아라! 그리고 기름이란 기름을 모조리 그릇 그릇 담가 두어라.』

또다시 당군의 성은 높아 갔다. 그러나 안시성군은 활한대 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채 솥을 모우고 집승의 기름을 내어 그릇에 담기에만 분주했다.

성의 높이가 안시성과 같아지자 마침내 당태종은 공격을 명령했다.

수많은 군사가 새로 쌓은 성으로 개미배처럼 기어 올랐다. 그리고는 새로 쌓은 성 꼭대기에서 안시성 성벽으로, 혹은 사다리를 놓고, 혹은 밧줄을 던지기도 했다. 이것들을 타고 넘어 가려는 모양이었다.

이때였다.

그때까지 위죽은듯 고요하던 안시성에 우렁찬 북소리가 울리더니 수많은 고구려 군사가 일제히 성벽위에 나타났다. 다시 한번 북소리가 울렸다.

성벽 위에 나타난 고구려군들이 일제히 활을 쏘았다. 그런데 그 활 끝에는, 월형 타오르는 불뿔머리가 붙어 있었다. 미리 솥이나 형집을 화살에 감아 가지고 거기 기름을 묻혀 불을 붙인 다음 쏘아댄 것이다.

새로 쌓은 성벽에 기어오른 당의 군사들은 삼시간에 비명과 아우성의 수라장 속에서 헤어나려고 아단들이었다.

옷에 불이 붙어서 굴러 떨어지면 그 불이 아래로 부터 기어 올라오는 자에 옮겨 붙고, 그 자가 또 떨어지면, 밀



에서 웅성거리는 자들에게 옮겨 붙는다.

그리하여 당군 속은 불바다가 되고 마니, 고구려군을 공격하는 것은 고사하고, 모두들 자기 몸에 붙은 불을 끄기에 바빴다. 땅바닥에 베굴베굴 덩구는자, 연못이나 냇물로 뛰어드는자, 그저 어지럽게 우왕좌왕하는데 이번에는 고구려군 쪽에서 무수한 화살이 빗발처럼 날라온다.

『에이 못난것들! 보잘것 없는 적의 화살 앞에 이 무슨 꼴이나. 어서어서 성벽을 뛰어 넘어라!』

말을 몰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군사들을 호명하고 있을 때였다.

『앵……』

하고 화살 한대가 날라 오더니 당태종의 한편 눈을 꿰어 뚫었다. (／)

그러니 이래껏 호령호령 하던 당태종도 말 위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수많은 군사를 잃고, 뿐만 아니라 임금까지 부상을 당하였으니 더 싸움을 계속할 수 없었다.

다시 이세적이 태종에게 권한다.

『군사도 많이 상하고 폐하께서도 전상을 입으셨으니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특독히 혼이난 당태종을 더 고집을 부릴 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마침내 회군 명령이 내려졌다.

당의 대군이 방향을 돌려 안시성을 물러가기 시작하니 안시성 위에 한 장수가 나타났다.

멀리 바라보기에도 기분이 장대하고 용모가 육같은 그 장수는 우렁찬 음성으로 당군을 향해 소리쳤다. (／)



『안시성 성주 양만춘이 천자께 인사 드립니다.』 물러가던 당나라 대군은 걸음을 멈추고 성벽 위를 바라 보았다.

당태종도 한쪽 눈으로 양만춘을 바라본다.

『대국의 대군이 보잘것 없는 적은 성을 치려 오셨다가 헛되이 돌아 가시니 죄송하기 이룰데 없소이다.』

대군을 거느리고 쫓겨가는 당군을 아유로서 작별하는 말이 었다.

그러나 당태종 또한 그릇이 큰 영웅이 었다. 한바탕 결절 웃더니 마주 댕구한다.

『우리 대군을 맞아, 적은 군사로서 적은 성을 굳게 지키니 실로 가상하오. 그대같은 장수가 이런 변방에 태어나지 않고 우리 당나라에 태어 났더라면 마땅히 내 한쪽 팔이 될것을 아까운 노릇이오. 이제 그대 무

훈을 찬양하는 뜻에서 비단 백필을 보내니 장졸들에게 상으로 나누어 주오.』

그리하여 곧 사람을 시켜 비단 백필을 보내고는 유유히 말머리를 돌렸다.

태종은 돌아가는 길에 길이 깊어 후회하여 『만약 위징(魏徵)이 살아 있었다면 나로 하여금 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지 않았으리라』(魏徵若在, 不使戰有是行也)하고 탄식하였다.

위징은 그가 옛날 신임하던 충신으로 이때는 죽고 없었다.

이렇듯 고구려인이 갖게고 강한 의지를 오늘에 남긴 안시성의 수비대장은 양만춘(楊萬春 또는 梁萬春)이라고 하나 야사(野史)에 전할 뿐 정사(正史)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

「힘 의 威 力」

백 준 범

우리들의 몸에서 힘이라는 것을 빼어버리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육체는 호느적거리는 살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肉身의 힘을 말하는 것이지만 심리적인 다른 여러종류의 힘이 우리에게서 주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권력의 힘, 신앙의 힘, 지식의 힘, 물질문명의 힘, 등 여하튼 간에 이런 힘들은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니기도 한다.

지난 가을에 고궁을 산책할 우연한 기회가 있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 혹은 수학여행 온 학생들, 부인비들의 모임, 잔혹 눈에 띄는 외국 관광객들——이런 모든 사람들이 고궁의 한때를 즐기고 있음에 난데없는 요란한 「크락슨」소리를 울리며 한대의 접차가 기세도 좋게 고궁의 한복판을 가로 질러서 질주해 오고 있었다.

정좌한 차안에서 50대의 뚱뚱한 신사 한분이 유유히 내리는가 했더니 우르루 어디선가 여러사람들의 배가 물러서서는 저마다 공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 신기한 광경을 어떠한 동물 앞에서 보다는 더한 흥미를 띄우고 바라보고 들 있었다.

한낮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고궁에 먼저와 「크락슨」을 내지르며, 유유히 웃음을 띄우면서 버섯이 자동차를 타고 여봐란듯이 들이 닥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무슨 힘이든 힘 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힘들을 이용하여 그런 양반들이 천국에 갈때에는 아마도 특별자동차 편을 이용할 것인지 모를 일이다.

정당한 힘의 위력은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정의를 도우며 부당한 힘이란 그것이 크면 클수록 정의를 방해하는 차이점이 있다.

인간의 체력에서 우러나오는 상쾌한 힘은 이 모든 정당한 힘의 바탕이 되며 근본을 이루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위를 유지하는 요긴함으로 보더라도 참된 힘의 축적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불의가 서식할 수 없는 땅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하며, 이런 땅을 다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각자가 위치한 주변을 정결히 가꾸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부당(不當)한 힘의 위력을 무서워 하는 자는 먼저 자

기를 잃을 것이며 필경은 그 짧은 힘과 함께 낙오되고야 말 것이다.

지금온 잘못 뱌는 힘의 위력을 거들줄 아는 아량이 절실한 시기이다.

자기의 양심으로 치욕을 느끼는 것, 양심적 수치,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인간다운 점이다.

번거러운 법(法)보다는 인간의 양심으로써 바로 잡은 사회기풍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보다 더 명량한 사회, 진정한 국가로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공자께서도 말씀하셨다.

「법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지면 백성들이 빠져 나가 되, 염치를 안느낀다. 그러나 덕으로 이끌고, 예로써 다지면 염치를 느끼고 또한 착하게 된다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일 수록에 자기의 힘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도리를 지켜서 행한다면 진정한 사회로의 지름길은 틀림 것이다.

언제나 대중(大衆)이란 힘이 없는 쪽의 편을 들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부분이 힘이 없는 인간들이며, 또 이런 힘이라는 것이 올바른데에 그 위력이 나타나기 보다는 그릇되게 쓰여 질때가 많으며 그래서 곧잘 뜻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수가 왕왕 있어 왔기 때문이다.

자동차로 고궁이나 드나드는 데에 과시되는 힘, 경찰서나 뒷거래에서 활개치던 힘은 쉽게 썩아 지지도 않는다.

오로지 이 힘에 의지해서만 살아오던 사람들 인지라 그들이 정상으로 되돌아오기는 쉽지 않다.

또한 언제 이 힘이 없어 지느냐가 문제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이러한 종류의 힘이 없어져야만 비로소 完全한 意味의 힘을 되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전강한 힘은 위대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잘지켜져야 될 힘이다. 우리의 시선은 검은것과 흰것의 구분은 식별이 쉽다. 그러나 한군데에 머물린 흰것과 검은것은 우리가 구분할 사이도 없이 혼합되어 더럽혀 짐을 어찌랴. ♣

송 백(松栢)의 절개

손 선 표

선천적으로 악(惡)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범죄(犯罪)를 저지른다고 하는 설(說)도 있지만 사람의 천성(天性)은 서로 비슷하다고 본다. 다만 교육과 습성으로 서로가 달라지는 것이다. 제각기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개개인은 사상(思想), 욕구(欲求)방책(方策) 등이 서로 같지 않다.

그러므로 후천적(後天)인 습관(習慣)이나 교육(教育)이 한 인간을 크게 좌우하며, 그가 속하고 있는 사회집단(社會集團)이 또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사회(現代社會)는 어떤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입힌다든지, 혹은 자기의 물욕(物欲)만을 위해 남이야 어찌되건 간에 짓밟고 일어서는 식의 끝을 흔히 보며 또는 당하기도 한다.

「좋은 일을 보면, 쫓아가도 따르지 못하는 듯 끝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반대로 좋지 못한 일을 보면 마치 뿔은 물에 손을 담그듯 빨리 뽑아 악(惡)에서 벗어나나」는 옛사람의 말이 있다.

정의(正義)를 인간도덕의 기준으로 내세우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만은 이러한 주장(主張)을 잊어버리는 이윤배반적(二律背反的)인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말인것 같다.

잘못을 저지르고는 고치려 들기는 커녕 필요로만 그 원인을 꾸며내고 결과의 책임은 슬그머니 다른 사람에게 밀어 붙이는 바로 그 식(式)이다.

이렇듯 인간으로서의 신의(信義)를 헌신짝 벗어 버리듯한 사회가 되었다. 신의가 없으면 인간사회는 믿을 수가 없고 따라서 존재 할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 신의라는 것이 바로 인간과 인간이 사회적으로 존립(存立)하는 도덕의 기본이 됨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한 사회 안에 존재하는 규범(規範)과 전통(傳統), 관습 또 완전한 개인적인 것의 구분에서 몇몇 개인만을 들추어 그 사회상을 지적하는 이유가 있다. 즉 개인의 행동과 성향(性向)은 거의다가 그가 속하고 있는 사회집단의 특색에 따라 결정되어 지기 때문이다.

한 사회체제 안에서의 모든 관계는 개인이 선(善)한 행위를 하든가 악(惡)한 행위를 하든가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회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그 문제

가 남게 된다.

한 겨울의 몹시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늦게 시들음을 볼 수 있듯이 늘 푸르려 있는 산에서의 무성한 나무보다는 황폐한 겨울산에서의 송백(松栢)의 그 절개를 따르고 싶다.

어지러운 사회속에서 일수록 개인은 그 스스로가 모든것에의 책임을 지어야만 할 것이다.

남이 하나나 나도 한다는 식(式)의 무분별한 행위는 개인을 멸망시킴은 물론 그가 속해있는 사회전체에 독을 끼치게 된다.

인간은 사회가 만든 것이며 동시에 사회는 인간이 그것을 꾸며 나가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인간은 누구든간에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가 속해 있는 사회가 문란하고 추악(醜惡)한 것이라면 그 내부에서 살고 있는 인간 역시 그 추악한 물에 오염되리라는 분명한 사실 때문이다.

사회와 인간의 깊은 관계에서 얻어지는 결론은 문란한 그시대의 사회에 대해서는 그곳에 속해있는 인간이 이에 대하여 책임(責任)을 자각(自覺)하여야만 할 것이며, 또 자기의 습관(習慣)과 행위에 있어서도 사회의 향상으로 도달할 수 있게끔 이룰여야 될 것이다.

내가 먼저 남을 도와서 일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 모두가 불의의 편에 있을때, 나 혼자만이라도 정의(正義)를 지지하는 그 용기를 잃지 않고 있다면 그 사회의 장래는 두말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현재의 개인의 죄(罪)와 오욕(汚辱)을 자진(自進)하여 인정하며 개조하려는 저의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인간관(人間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이다.

「疾風知勁草, 嚴霜識貞木」이라는 글이있다. 即 세차고 모진 바람이 불때 비로소 쓰러지지 않은 굳센 풀이 어느 것인지를 알 수 있고, 혹심한 서리가 내릴때 비로소 굳은 나무가 어느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평상시(平常時)에 애국자다. 신사다. 「휴대니스트」다 하기는 쉽다. 그러나 위급(危急)할 때, 내가 희생적으로 나서야 할 때 주저 하지 않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송백(松栢)의 절개를 지닌 사람일 것이다. ♣

말 (言) 의 重 要 性

이 승 호

인간은 말(言)을 가졌다.

이것은 인간의 여러가지 위대(偉大)한 기능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이라는 것이 바르게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와는 반대로 쓰여질때가 문제인 것이다.

옛날 말로써 모든것을 전술(傳述)시킨 시절에는 이것의 중요성이 더할나위 없었겠지만 현재에도 말을 모르면 남을 알 수 없고 모든것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여러사람의 활동을 공동 목적에로 향하게 지도할때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필요로하는 것도 말이며, 상관이 부하들의 행동을 지휘조정(指揮調整)할 때에 쓰는 그 위임있는 호령, 하여튼 말이 없으면 사회생활도, 인류의 생활도, 군대의 지휘도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쓰여질 경우가 있으니, 영국의 「찰스」 1세는 경솔한 말의 댓가로 왕위와 그의 목숨까지도 바쳐야 했다. 그는 의회에 대한 자기의 음모를 자랑하는 왕비에게 이야기 했던 것이다. 왕비는 또 그말을 자기가 믿고 있는 시녀(侍女)에게 이야기했고 시녀는 마침 그녀와 내용하고 있던 의회의 한 의원(議員)에게 일러 바쳤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대정변(大政變)의 순간이 왔을 때 왕은 자기의 비밀이 누설되어서 국민이 반란을 일으킨것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말의 중요성에 대한 좋은 교훈이라고 본다.

또한 침묵만큼 권위(權威)를 강하게 하는 것도 없다. 많은 말은 통솔자(統率者)의 위엄(威嚴)을 떨어뜨리기가 쉬우며 어떤면에서는 용기를 뺏아버릴 수도 있다. 주의(主義)로써 침묵을 지키고, 그로 인하여 전설(傳說)까지 만들게한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나폴레옹」 같은 무언(無言)의 지휘관도 있다.

오랫동안 내가 모시고 있는 스승 한분이 계시다.

무엇이든지 모르는것이 없으시고, 「유모어」도 갖이고 계신 분이신데도 여간해서 말씀이 없으시다. 한번은 여럿이 뭉친 자리에서 년즈시 여쭈어 보았더니 하시는 말씀이 『말 잘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말이 앞서기 쉬우고, 자기의 실천이 먼저 해놓은 말에 따르지 못하면 그 끝이 무엇이겠는가. 또 남과 대할 때 지나치게 말

재주를 부리면 남이 나를 알릴게 생각하게 된다. 우리 주위에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언제든지 자기가 행동과 일치된 말을 하고 있나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함부로 말을 입밖에 내는것을 우리는 정말이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까 생각해 본다.

공자께서 자공에게 「나는 말이 없고자 한다」라고 하시기, 자공이 말했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무엇에 의거하여 도를 말하고 또 전하겠습니까?」 이에 공자께서는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사시가 바뀌어 가고 만물이 철에 따라 자라고 서들지만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은 말없이 삼라만상(森羅萬象)과 더불어 혼탁(混沌)한 모든것을 지닌채 질서정연(秩序整然)하게 운행(運行)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문화, 예의 등을 말로 전달하겠다면 공자는 말의 효력(効力)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을런지도 모르겠다. 아니 너무나 포악(暴惡)만이 횡행(橫行)하는 것에 질린 공자는 자라리 말없이 입을 다물고 그렇듯 조용히 하늘만을 따르려고 했을 것이다.

말을 함께 할만하지 못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말의 권위만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공자께서는 함께 말할 만한 사람이 못되면 말을 하지 않으므로써 말도 실없이 만드는 일이 없으셨던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진리(真理)나 도(道) 일수는 없는 것이므로 언제나 그것에는 행동의 실천(實踐)이 따라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의 말씀도 弟子들에게 그들의 말보다는 실천에 더욱 힘쓰라고 가르친 말이기도 하다.

하늘은 사시사철(四時四節) 말없이 삼라만상(森羅萬象)을 운행하고 있다. 천리(天理)에 따라 대자연은 움직이고 있으며 모든 만물이 성장하고 죽어간다.

인간도 하늘의 원리에 따라서 말보다 행동하고 실천하는데 힘써야겠다. ♣

昇段審査合格者

— 1972년 6월 18일 이후 —

일본초단 (72. 6. 18)

윤주현 윤연중 정양기 신기철
정찬지 김성식 이상용 이봉규
백군기 양치규 이경석 방성순
이상범 이동구 김인수 주완옥
정동한 공재홍 이영일 현상호
최재환 김기호 이봉상 하형규
이병국 서진석 연영석 정형용
라상근 남현균 홍완기 김영걸
윤철환 이종현 권태홍 박종운
오광부 정우용 김경진 조경우
유승화 주상옥 김동구 조영근
김정근

육사 (72. 12. 10)

임창배 조용호 홍기완 유상진
유승하 임용현 김인성 송동주
김영주 권태화

(警大) 일본초단 (72. 6. 20)

安德維 吳俊昌 鄭炳龍 金鎬聖
유봉안 文亮欽 琴鍍出 李永遠
金俊明 張五郎 金正煥 文相潤
趙俊行 이원화 池勝吉 宋南鍾
朴点深 유병희 박정문 이남영
이철주

全北 일본초단 (72. 6. 20)

김성도 晉制吾 송경용 장용주
이근배 박용관 정진수 임우호
노용숙 정중수 이봉구 박호기
윤병조 권충택 인교神 장명수
양종성 조병연 박동희 이종근

(全北) 일본초단 (72. 7. 20)

최길석 김경배 김종배 하노홍
백운철 김상희 김영선 이상춘
박성택 임용환 유용하 정기수

최천호 김영종 김용재 고준영
이영심
DENISLETER TSUNFOLEE
JUN ROYTONES

(忠北) 일본초단 (72. 7. 20)

장보현 지수용 여규만 林淳國
권용주 이영규 지수만 박병국
이성재 이용문 서수열 이두진
전용진 조성빈 한용진 이재덕
원용호 신영태 장홍식 오인택
고용만 노병진 조성삼 박희석
이경종 김동철 김형진 백기동
권동욱 박용기 김도한 홍순기
장남규 오진탁 박영호 홍승원
박병찬 최근열 최원표 김준하
김왕성 김사용 이基周 김영수

충남 일본초단 (72. 7. 20)

홍현정 조병현 최병우 金裕信
하현영 김창수 이인희 송진우
최금중 박상학 이현표 이철호
이상억 이부규 허길용 정동휘
김광용 송근정 李星倫 이경환
김기운 김용재 정인승 이규수
신만철 이태준 김선원 정낙연

전남 일본초단 (72. 7. 19)

문상우 김희안 배상복 김근중
박명석 임정택 이성철 채명길
김일신 이동식 서정용 송중현
신현식 이정완 박상갑 박경용
김영주 박청규 전하영 안득순
한성재 육성춘 홍용길 趙德周
안길환 송희열 김진국 이창재
김성일 문진수 박상수 홍병욱
이재석 차재운 최봉욱 程頌雄

황기연 전갑천 김종현 황기석
장수명 정종재 임상갑 김동중
이대현 민병철 허강희 김응재
박상열 안기식 정수공 이춘국
이용석 이용우 조양근 김석현
이법재 신용석 임갑택 최서호
김경석 김 혁 박천수 서금남
정양호 방종훈 허동호 조정석
이창근 최창남 배금남 김영수
박안선 임재환 강석기 김인철
서남규 김종식 金玉詳 박원형
강용희 정려식 周東仁 박영철
강용태 양병진 양근철 曹容吉
배윤규 정중수 진수종 노두진
신동형 이안근 이정식 문송훈
송인중 이등문 이복태 孔允八
이상석 신경배 송철근 공용진
남태현 한상배 최윤기 정수봉
윤승남 鄭至均 김종철 최충원
서주식 김성철 崔頌來 고광용
박성희 박용희 김일용 윤봉민
김법석 윤석운 이완기 서영춘
심상부 金淳炳 이병석 전유진
문광주 채상식 김정록 배기철
정 건 김치영 최연주 朴炳淳
김성중 이노선 김동명 강보석
변경석 김재창 이승환 김용준
김순희 노 용 정봉수 양희탁
김용환 송용일 김귀술 이광성
朴哲桓 조귀태 박용근 신순기
유재중 서복래 이일현 김성록
이석근 김재호 김택근 문맹종
김경선 최동수 이성식 김신관
이상년 황성준 박한구 양남관

양승호 민장규 채희춘 문양복
박주상 김의근 박종민 김경수
김해관 홍순남 박경배 라승길
강진구 이정곤

전남 일반초단 (72. 7. 18)

홍기철 노종상 신종현 김용택
강안식 최한송 임도혁 유경주
윤승용 정중채 신용수 최병태
염귀일 박병구 김진호 이정규
김명철 고재민 정홍규 정동균
김재복 金容孝 권인호 유병학

全南 일반초단 (72. 9. 10)

이범섭 위용운 임병양 노문호
이종복 최선호 김홍필 선형기
박명규 박종철 김영혁 박영동
정부행 김병일 김상근 이금섭
유원기 정권오 최한식 이석범
김재민 조윤주 장서홍 박용근
임성식 김준원 이상현 정규현
신두선 방철수 김재춘 조운대
손동복 이성태 오형근 양복두
기세영 이윤열 정병우 박종호
조 현 김대곤 박종운 장용익
김용식 이병우 김명식 정재용
김자섭 성호신 김동근 안동일
오강섭 김진현 박원근 신희섭
박홍기 장상호 임정열 조종현
유보열 최정식 김용식 정창욱
민병구 배행표 배남채 정학만
양강열 라승천 이병설 김영희
안병관 백윤호 김용형 권 효
박경호 박영식 이정두 김세근
김홍식 김용모 박해운 백선화
손상호 임계준 정점식 김철진
박정식 정병삼 박원근 정영도
김청남 이동훈 이석주 鄭均樵
이용재 최동기 전인귀 조철현
이광평 박관준 서경호 김효연
장종덕 김강섭 정세창 김병중
황양수 노병득 김창열 정상근
김만식 김정수 정유송 라정주
김익로 김성웅 허호조 정영달
김재수 이준현 이경렬 박대중
장경복 김현택 염일섭

강원 일반초단 (72. 7. 20)

김기중 심상철 김유진 김병호
황성태 김순화 한동철 김기호
강철오 김병원 김동일 이윤고
황현근 강병용 권희상 김영조
염기성 유학중 이용모 조일주
최석렬 함용암 강대형 원대희
이재홍 함영천 김영문 박병태
박병구 김광수 김상배 박재신
이정현 김성호 최승단 엄종섭
송용림 김용호 이의국 김준환
이항선 박수성 고병호 이만영
송태호 박만규 김대호 정창호
김현운 이광익 유병국 손인환
마영봉 김현삼 신준복 이상진
김영태 박하영 서인석 김경배
이명운 박정환

충북 일반초단 (72. 7. 10)

신방섭 정병욱 지종식
충북 일반초단 (72. 7. 23)
최창현 최창우 이한우 유연덕
유병인 김인호 조영희 노상익
안성덕 김태수 김성용 신병우
이재국 이우섭 이만중 최유식
위성태 강대환 민덕기 송해원
조준경 정영인 許 旻 김성배
김성용 김세진 신수연 이종주
趙鉉柱 박연규 유종섭 延東錫
김윤중 金元걸 유상현 라상철

윤병업 김영택 박병문 최동현
고재경 이창연 박두용 조병완
오대선 오병진 우종근 안병재
박호근 장연원 김기형 박영환
AULIUSE ZELASKIEWCZ

中央 (72. 7.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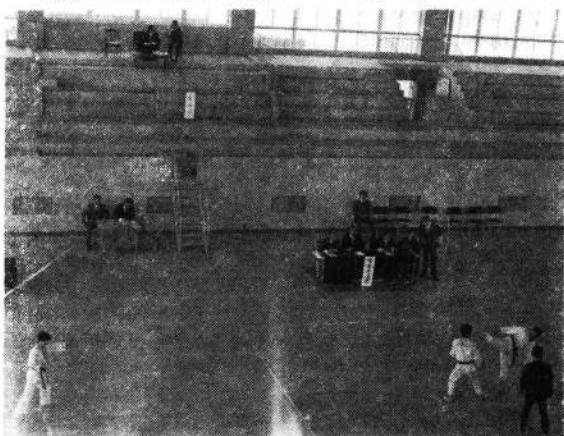
백재호 이진환

(강원) 일반초단 (72. 7. 23)

박용진 김육환 유용철 박태복
양제환 전상태 이재천 도종환
김효영 우광수 호영철 유병수
정철근 방윤범 유연용 장광수
고창용 차근화 김동기 김영珍
김용철 오용철 오용술 이종영
池伯亨 장영화 오종구

中央 일반초단 (72. 7. 30)

김추찬 윤상목 신원철 최순철
이규화 이 혁 이영웅 강영근
김단배 박학신 민성기 최철수
황덕모 최육동 박윤동 문오경
이종주 윤원영 김진호 이정표
오복환 장상용 최병천 박영연
송영근 안정수 고승태 조창남
강신곤 전승덕 정진희 김창환
오기석 김종화 조병걸 유원중
김세진 박동원 박창성 김만영
이은수 박진홍 김태근 유봉현
이완선 박명수 HEE DO LEE



이만영 박광원 윤성모 조성화
허승빈 정정환 김재술 이수호
延영모 오정식 이정현 김성호
유창덕 오동철 김경수 유재상
박대남 서경태 이복길 김근태
WILTON BENNETT JR
SMITH JEFFREY

제주 (72. 8. 18)

장병성 이용보 이행구 文大珍
김창립 강덕화 김병하 강광윤
강창두 윤영근 金正訓 강희탁
안영익 강유희 임성문 김상문
김기만 김상택 신원국 김병채
김동수 양찬석 許宗淳 강민호
이득남 김판식 고성화 고영화
현창우 이철호 김상빈 오규환
백종오 안성배 강용근 현준호
진원옥 강인국 김기수 고형익
허창식 진일석 김두식 고성환
이창운 강창부 오대문 문분만
송종익 최창범 이종수 송창훈
최영진 이淳維 강영호 고성원
고권일 고인덕 김정근 김영일
현덕희 宋東豪 서영우 송상훈
장상호 장용호 張堅鎬 김용호
金亨珍 양남현 오한식 안보길
문태일 김동호 김병원 김봉열
金明河 김진태 金碩老 김윤택
이영남 金旭珍

中央 (72. 6. 11)

김상일 김만희 최수환 이諭喆
권광식 최광조 유경주 김진석
강철환 김동춘 박상철 이효복
A. R. WILLIAMS
이광희 강병선 이득열

忠南 (72. 8. 23)

정종옥 이종동 박문홍 김승배
김충식 백주인 유형국 황난주
박병욱 송선익 조만형

中央 (72. 9. 10)

우종연 이효남 안민옥 봉근영
백자진 나기상 문제근 안국보
민영덕 장희수 김덕환 김정태
김기혁 이성기 채기봉 박기부
이윤룡 김용갑 최명준 김응시

박태석 김병수 김석태 고용창
김춘호 오정석 김규창 주경모
선홍식 이충모 김종진 홍재구
김진문 편영무 한 명 민경덕
탁용안 김학철 김병천 조환영
박성태 양해근 한경성 손경수
송병호 강기문 김재원 이경옥
김석일 이희경 정하진 김경용
성창영 김승노 라종삼 권미현
한성수 홍동균 권태원 이성우
최창열 서홍식 전용찬 최경철
김영기 이정석 유청식 김옥태
이대길 이강성 이흥기 김필원
김택진 이병태 장영호 박춘영
김재학 박도식 강성창 김재준
정락운 정하현 이상문 조병호
김유준 성공제 조성태 최상순
이세영 김두현 윤종현 허윤식
김평국 김진창 김 휘 한만혁
이기성 이영준 김성식 이광휘
최진국 유진항 이지무 이종열
정동주 김복남 하희영 서만주
최한국 김운선 허재옥 안종만
마동용 김천웅 윤영환 최조현
김영기 오병근 박혁기 조기홍
정종업 김경길 오영길 조익호
시성구 최종선 박성윤 조신성
박병식 정영식 서부근 유창진
이종호 고윤주 김학진 이만희
서성남 김상섭 백채인 장영대
김성덕 최종기 김영호 이상춘
김신행 심규석 신흥교 윤봉열
윤환호 홍대균 정용재 최창호
곽오근 안기상 김상석 장동식
김학준 김광선 김교현 장종택
김승국 황용섭 배기원 함관호
이왕근 황유진 박수창 김동호
김두식 윤재학 성호영 박세광
김병조 라윤식 김만홍 김태정
김동운 정종수 김복찬 이봉희
김희열 오성환 김용翹 이진호
이용환 김승덕 이충원 김재환
김용배 차상희 김경원 염세열
온화선 전중희 김용섭 서민철
송준석 김지홍 김홍관 신현태

정상화 임동환 서정권 황남주
배성관 이소희 김한성 김민종
진유식 이연수 김순덕 박영일
정병길 김대용 배동현 박문수
안군현 심한진 최재복 장영식
신종국 배의용 김종성 김사영
박권제 김영호 홍은표 임광수
김상복 박희석 이봉희 함태준
원종대 김대식 최석철 강신항
김지양 김종정 한순혁 이이규
안영찬 홍기표 이현조 장재식
배운만 신상희 최해웅 송경순
전창숙 김정숙 이종림 유희숙
이 頤 RICKEY MPIPPINS

JAMES C SHANNON

DAVID AVRACH

GEORGE L ROBERTS

JELFREY W LEWIS

HENRY K PERQREY

GUNDERSON JOHN. W.

JINMOTRY ANTNOY

JENKINGS HARRYM

JEFFPEY JAMES MAUL

MARTIN HERBERT

장병철 홍혜숙 원경숙 김영애
이정기 김나중 이장우 원수철
이귀근 신기철 장원준 박용암
권태봉 신종환 한상구
JENKINS SAUL

김웅기 임학근

中央 (72. 10. 10)

이병욱 송영일 사공철 강진호
이일환 송창호 이복삼 윤희호
남석웅 황병열 최경웅 강태구
김훈익 김창환 김희연 조광석
이양행 박진만 안사준 박영극
최진수 최용학 김경진
CHANG KON. YOO
RICHARD D. JOHNSON
MICHAEL BAGLIA
CHIW WOO PAIK

성환복 강형기 장천택 강석주
김택우 이수갑 김태화 권천섭
이정용 함조남 홍성주 김동일
천종찬 안희철 이용기 송남화

정홍일 조영근 현재용 임용삼
강석호 김주연 김찬호 김기원
김병년 박일성 강사원 송대권
김광일 정동훈 김근조 백상식
윤우섭 최인근 윤재홍 전관훈

JOHN BOMARJR

LEWISW. NICHOLS

JIM WILLIAHS

김병식 김광식

JOSEPH. H. BUONACORSI

김성관 나금봉 김남규 박광조

서용중 이상준 장봉구 전용호

김홍배 홍삼표 김기영 박수성

이년재 이상단 신민만 박고식

최남중 홍인기 이창현 정성배

정규호 이재수 박승근 함태용

윤인봉 최원봉 이광수 주영덕

김정호 김상범 이영식 최순목

오창용 양승호 박병환 심춘식

최재선 김성곤 이성만

釜山 일반초단 (72. 9. 17)

전병윤 박정수 윤승식 한종석

박재용 이상석 이진룡 하문식

김상구 노상호 윤찬호 남계준

박동수 김병구 박상수 최용태

손영근 박병하 박영철 임영진

우병익 김만태 배도균 노준여

이백송 고성도 김창수 박진옥

이영훈 양사진 박무용 박녕구

박일홍 이병관 안정수 윤유안

한동욱 김일영 박정태 김장우

김용주 이동욱 변광섭 권오용

박만호 김진규 이상달 김경수

유춘열 조현규 김지철 박순금

이상열 박덕영 고명학 전옥수

배용식 윤경록 양춘길 조재호

윤한진 허남섭 김용남 궤태수

옥수권 김의겸 황귀서 문홍두

김성두 허 천 이병길 김용일

이규철 황원선 노재수 김성식

이병근 안양빈 임무정 임세원

강승덕 조경일 오윤근 김용덕

박경호 강순덕 김경기 허관구

김영규 공영송 김상현 김수만

안명식 강남성 송주영 김광옥

박기수 전종권 이정숙 홍순호

송기홍 김계수 김영순 최선수

한성주 김광수 김기상 김철희

김진화 이윤수 고구현 서경호

강광구 윤명기 정연출 최병용

권태식 김홍정 최재신 김병찬

이동환 윤문식 김철희 박국호

이병갑 최현규 이상근 이태환

윤정일 박희용 조형호 윤한찬

최두영 양옥식 조경태 김영룡

김윤길 백주현 이호종 김영순

이동현 서명수 김영복 이정현

선원호 박경도 하미숙 정만용

전남식 왕 일 최창수 이봉진

이원실 하석권 유민근 김재출

김기동 김광덕 최영규 양현석

이주영 최병선 노종식 유찬선

문주길 성유식 하원용 백운석

유근열 박태수 송기봉 백성규

박성근 조창래 유현덕 유순하

이재화 한상수 김정규 임명출

문영일 임두상 김오현 김용길

김성현 김삼석 한 영 황영안

서승소 최수근 김승경 우인덕

김성경 엄주현 정진만 황규환

정창모 서진호 신석호 김진수

정인학 김동진 차의수

DOANL E VANCURLE

CHARLOTTE VAN CURLER

박의장 박두희 이명규 김은중

이유섭 최익규 유근하 정경섭

김인명 이재홍 송철섭 최인성

최인식 정종환 문영일 김경섭

이홍재 이규목 황우홍 성나준

김희만

경기 일반초단 (72. 10. 15)

김동원 김주섭 이철범 정종현

서성운 성자승 이일상 한규영

이종백 이 신 임창만 김우식

제동원 김광열 송치석 임용달

허택수 이규창 정순목 전백환

신현익 한찬희 원현식 이상영

최 철 덩덕순 이재덕 장완성

설재호 안진기 김종원 임춘재

손진탁 유영봉 김우진 허 업

김상혁 GERALD SIX
ELIZABETH C BATESON
GEORGE A KAVESHIRO
DAVID F FRIDRICK

박덕재 김천형 김경호 김성열

윤옥중 유성두 노준진 신현권

손순갑 이영범 최호균 정효남

RISCHEN KOLN

HE RZOGENRAT

한정광 심정환 손정춘 한주하

정연진 김인식 김효택 박일봉

김광섭 이정래 정병선 김옥봉

하재만 하용열 이태곤 박명태

김현성 이근봉

강원 (72. 10. 15)

김성영 이근목 박재선 이광철

강희명 박성훈 배선구 김주만

김원학 강신배 이강현 전인기

정경교 박현화 김형달 황덕상

장태규 이주현 우영철 최세호

이종립 김용순 김철용 조근철

조삼섭 안병섭 서광수 강동식

김중수 김동명 최돈진 신열균

이종한 김순태 이택수 강진목

이민식 민각현 황태근 김봉찬

김만진 김재욱 강병섭 최현규

심용심

육사 (72. 10. 21)

김길수 김학수 이재윤 유재윤

고명근 최지찬 임흥빈 김용현

이태우 송병수 김갑상 강희태

윤규혁 심춘주 최득목 송봉식

한영도 정용식 황영무 조병택

김상인 한동원 이익주 전택수

박상원 김수도 최호우 유희수

김홍진 이영식 송기석 조영래

김종환 김중수 김중운 정창인

신사성 윤호병 박영관 이종영

김홍운 김효영 김병덕 박승희

김현득 이은득

中央 (72. 10. 21)

홍성국 한돈수 이재영 김창수

조성진 이종희 박종윤 이종득

박주연

북해 (72. 10. 21)

양영근 안용근 황관용 공배석
고석진 이석윤 김병호 문용주
임효선 황인준 하남균 조승호
박한주 김석규 안호현 박노수
민찬기 박승수 송장근 이준현
이근덕 김중희 최형길 박제춘
김일영 서현근 유병곤 이홍우
임국선 진광전

全北 (72.10.22)

임규수 박영석 신길섭 양해신
이익수 김정수 공삼섭 김병갑
이강용 정석환 김지열 김진우
이두동 한관동 김명자 이기산
이근우 김동천 조현채 홍기초
윤갑봉 김연수 임 호 조성근
FREDERICKE TE RRELL
DONALD R WILSON

中央 (72.10.22)

안용준 오창익 피부호 한중길
京畿 (72.11.12)
La Rry Duglass, Good Mos
Jerry. D. Rees
Peter. H. James

張連祐 김중환 김광식 장순봉
정옥선 이재석 박종환 최성훈
백학현 조표환 이종배 金敬喜
조규현 최창락 최원한 강동근
송천기 김재홍

경기 일반초단 (72.10.19)

최승현 정래용 이호경 전제준
강일배 김달수 김진명 이화걸
신학성 전제현 송완석 이상민
강석주 윤태중 서우원 김영환
노수일 최준만 박기민 김귀하
유성원 윤용노 전진수 김갑홍
김중현 신경수 김성표 전지환
정병일 조문용 최상남 전재호
최준일 이종민 민병일 김유광
안대승 유대훈 권용성 은동선
서강의 김용원 황광식 조성열
엄익창 장동진 김용철 이윤택
최준희 박건석

경기 일반초단 (72.11.19)

김대균 이경희 박한서 윤광우
송홍근 송년만 한장욱 정경래

한태희 김동준 나홍업 손정환
노남진 정진형 양재우
박동환 최세웅 이상모 이용학
김대인 김용천 조원식 김동기
심호열 이복기 엄이형 김우열
백종환 최장배 허두찬 허명준
김용선 박민현 이수희 강일중
문용식 장지원 서정만 김명원
조중남 최형기 최인천 이준호
서상환 라 철 이길수 최창목
김대성 김남수 이대수 최문석
김보수 김 승 최용길 옥광호
오수진 김 철 유광열 김윤철
서정학 최은택 이대성 이무섭
김동순 이홍우 이종현 김규철
박제홍 홍열표 우광웅 원범식
천경호 최용순 홍병기 송기범
신옥주 유성호 홍문표 이현식
정의웅 이병호 박기동 김진산
조부대 유수곤 구분규

中央 (71.11.30)

장현덕 장준식 이태옥 서갑덕
이인준 장상봉 김 석 이광주
김상연 조학남 이상덕 윤장석
안중목 이윤택 고진하 정태운
임용규 이봉재 김신일 최원규
서동수 김창수 오원중 김세주
이승지 최홍길 김성배 이재학
이석원 홍준환 한재진 함창복
민윤기 권혁상 함수복 김용섭
권혁용 이호용 조원현 김동하
민병호 유재원 김병용 윤신희
박상남 최여규 남효일 이태운
황운술 전영기 정계창 김남호
전인택 김진광 司空璽 오병열
이용재 김태현 이두희 박석기
이도형 정태선 김충열 전찬용
배오봉 서규매 윤규현
GERALD T Steetey
RONALD W Powers
De Me TRID J Te He RD

황용기 장영근 함동규 전병용
김용수 한근식 이병걸 한중춘
강명호 정천호 이용화 김중수
이종운 이창용 서창식 이문진

박종우 이종환 심의설 이만호
윤인규 김창환 강신보 노순성
金仁瑞 장기철 정관근 한진섭
이근섭 임관섭 金裕萬 차문봉
정석환 박병규 백신인 조혁배
윤원일 송영일 김영규 김배를
강명주 이동희 이준수 강덕훈
주종철 정재원 김신철 백종철
김병술 최규근 윤종욱 이서희
박상진 임승덕 안효석 최중규
강은영 한상보 이용범 홍진기
최향원 이광무 오준환 이도영
김병훈 도종기 이광우 권오학
정영표 김만옥 이강호 안교문
최제승 박상길 송찬중 신명호
변동석 이남근 신주식 김진중
方진빈 이도근 박도영 박광우
김현기 유동태 신효우 김 정
이희준 김원일 김진우 최세경

中央 일반초단 (72.11.10)

최재운 문장기 방기탁 최명준
홍병서 심영옥 이용배 최용집
백일웅 박용진 김지태 김재천
김종태 김영일 심필섭 김관수
김관희 주영수 유봉수 전정호
윤기호 박준식 성문기 박철호
김창수 유광국 강운식 이상배
임택진 김광주 김종택 신정기
김동진 신상철 황대근 이병문
홍종열 이차석 추형식 박세환
박중광 황병길 이길주 문두중
윤영진 김갑준 복인수

SAYRE MICAELC

안원하 이희재

中央 일반초단 (72.11.30)

최기환 송원석 이진항 송용환
권정관 송상기 박태현 심상훈
조동선 이의주 이강현 김재광
김영호 김완식 권영진 최중기
김원익 손병원 정용길 권오식
김명안 최유규 문영훈 최주만
안순도 조성배 김명일 차정훈

中央 (72.12.3)

권덕동 박재옥 김동욱 簡光一

이장우 고덕만 장영암 엄 섭
김승화 이석영 권대봉 황인규
허남훈 조용대 임동식 김진성
김창용 方형규 김창진 오석철
선우도균 조充호 한성희 김재우
구창모 신동명 김현기 김정숙
홍주성 이계석 정봉훈 문문근
김홍배 최금손 권영선 박동훈
이영진 유일현 고지영 탁길선
최병재 박노완 방해식 박정찬
최종태 이상복 이병환 이상욱
오창수 신상복 윤재욱 안영철
박동기 김영철 김창호 장길순
노병우 이용호 최정훈 홍현준
권혁기 박현규 서종철 신태보
유승열 박봉용 김병욱 김명욱
최기남 심재근 조규석 광영철
박주만 최병환 이용범 이지형
조동식 오교준 고갑수 이대식
전인재 오홍근 홍성권 이동수
정동우 현창호 서승찬 김종진
오종오 김재화 이한철 최성기
정동갑 김두홍 백남선 이재식
한세일 김준하 박희근 최진택
나용용 명환희 이원일 마대일
차성수 이근배 이淳學 이훈만
이병일 정순선 정종택 심진호
고명환 신동근 홍상덕 신덕용
문병대 정용수 장정명 박항성
강신만 이규배 정윤호 엄태선
김주현 노영식 임동기 신현태
이영기 배영환 김현덕 이승희
최덕철 홍사육 신문철 김용진
강장영 박훈식 김세연 안효은
송유식 이창우 이동식 이종환
김현호 윤병진 정정모 김종고
라찬수 김길형 문광수 노인배
최수현 안수용 이호환 최인식
이상원 남계섭 오충근 윤의영
오세원 윤희찬 한인환 이근호
안시영 심영진 김종갑 박재하
김철환 정진무 안민환 김익성
윤기양 고명섭 장동우 최범규
유광로 정창록 김승수 이호석
조길준 박성민 서한철 성열정

한성연 김교수 하봉규 김진호
심홍수 전현석 최 찬 천승일
방양문 박병탁 유정남 김덕기
김용성 임종하 라창준 이종화
명현진 변후식 김의영 임승진
김상근 林鍾都 박천익 손동진
서상대 김현수 이상영 임영목
이지호 조인호 김완중 장달원
김문식 김성일 이상우 김일식
이인섭 朴邦鉉 장석호 백기현
송방준 서정민 김종도 백기철
김남두 이정재 진태환
이경수 신해교 이철부 안재승
하민수 김경수 이승권 이진구
방경수 김민규 황재수 김동선
금주연 민영덕 박명하 조성진
이완규 서민우 안호준 千今鎭
조종협 남준우 이상돈 박용구
이강윤 오세영 김삼현 김종현
유은호 이민희 박승덕 김창식
유승현 김재문 박만희 김종탁
강병현 이금용 김용원 최준오
우태영 김용춘 남호인 장기원
김기승 윤석훈 하기철 유병현
최명신 박창희 정종민 엄주환
윤우병 백형양 지환진 임승택
박정식 김덕배 채혁기 김인숙
윤정숙 임정옥 이성자 오형욱
金錦順 방진숙 이정숙 오형욱
여옥현 신재순 김경희 남기화

BEN CHALRES BOYNTON

GELALD E. LAMB

GEORGE EDWARDS JR

STEVEN MKHAEL. D

박용문 배점석 김병태 권연택
이상원 김석웅 임숙희 권태형
손대용 고팡인 김삼철 이정근
이동찬 장효상 양효호 한교호
임상순 박규원 임찬호 김지경
선우도균 황병기 송현식 이정백
김진택

釜山(72.12.10.

김기혁 유희태 하종두 배종범
장필준 노찬석 이균성 김효영
박수식 최범수 최두력 천영욱

김재용 박종철 이철원 전병기
정종영 윤봉길 광병관 김광석
유정훈 김용학 송기홍 박병섭
은윤기 장경일 박종식 박은욱
염대영 성완국 조판석 김한식
한규엽 유인상 황 석 김억조
손두표 金石純 손희철 조창제
윤수영 최창근 방윤철 박영욱
安雙浩 김규진 김진무 양진삼
최성태 최한신 김형근 김교근
김의준 김태훈 장도영 김도영
박창호 오부현 최규표 김유용
함해숙 윤종열 염호경 장정길
위용길 김합근 양원보 김병희
오윤환 林基彦 김호덕 김영광
허규배 문석남 황장용 남기춘
전용길 조영하 양정용 김일동
김태병 신원철 김근호 김수결
열주식 황길순 황창연 윤관진
박시원 이희철 김영태 박신수
이종덕 김부호 김원태 전병기
이필규 유성모 윤완식 한종주
송수성 오호남 전덕철 박동철
권순만 김봉춘 박영원 정수화
양종근 조현제 우영포 김병지
신태국 원성연 손창범 김영규
박희영 申裕春 김수봉 강종원
김주천 조원용 이갑섭 권대우
丁성진 문정복 황범용 최대우
한창수 안종택 손희탁 이기백
김종화 서기태 이창수 백학준
이동명 광하술 함정익 차희명
김삼영 민병윤 정용태 손영우
정수욱 최순용 문진호 오기명
백관현 김승수 이창환 정동찬
이경수 윤세준 이경태 기형남
석비호 홍기웅 황기철 임경진
권정만 박만식 지문광 이상태
김종호 박재현 이영근 김만두
이정모 이수환 김강석 이상만
김우주 김성년 배종갑 김달석
박남수 박성민 이준섭 유상주
하명용 정영균 신종열 손수식
강대철 이창훈 임인환 이대희
김 준 고두석 성경만 홍병일

배종균 황성원 이제진 정철조
박해영 한 훈 최태연 하재홍
전응택 김용배 이정민 안민집
구본인 박찬재 변홍석 최대규
김두원 김신학 황화진 채윤식
金繁雄 이재운 김상훈 김기하
김명환 황재형 구본규 이복규
안상규 김종우 조동현 이창식
김홍호 최두영 안현로 권기석
지경천 윤장환 서원석 박해용
장성달 김진병 안윤환 김현기
윤창수 차삼주 정우석 이만희
申南提 정근호 서성우 정창열
정영진 조수만 형석주 전재문
이종진 김우동 김병윤 조규백
박문선 최해구 정진재 윤강희
서상범 徐錦源 조인호 배준호
강장규 신동철 인정근 윤장원
이경철 김원근 오명환 육태균
조우형 신원석 조상수 김덕종
천명태 우승배 이범덕 우기호
김승규 김석결 원옥진 장기복
이훈재 최태방 방원조 장대현
장결복 이평의 이 찬 박운수
김창욱 서영술 김은환 조희성
김동복 김정수 이인화 金熙顯
전윤기 이홍노 김동기 백유달
이진언 임방수 박상일 권현달
황윤성 박상찬 황병욱 황성규
윤병현 김진찬 전정수 주원광
김기인 김진복 도인현 사석진
문종연 광영철 이진원 심재봉
지선권 김재철 이영배 김태희
이수열 정경용 김용호 유광운
김국환 박용무 육희자 천성필
박경희 이상균 김철상 김명환
양재국 오석주 손봉근 강원평
한애식 박재운 박두만

충남 (72.12.10)

김재학 이종만 임한표 손수호
김찬호 한영태 김종기 안진수
권윤택 정용구 임인재 김주식
정희원 장희수 장재준 노기섭
이명조 김종국 현금배 최육열
김승현 최혜성 최항용 서기현

우재원 김진원 박병상 이수자
황규봉 임동선 김호식 이광근
서오택 김중섭 조선래 김연숙
최병직 박용범 김종명 이용구
정혁주 김철원 황은현 임양수
오세진 신명식 김영철 이명철
김춘원

RICHARD ALLEN CLUTE

이상호 손정수 임준배 최승용
최성원 김준기 최연수 조용해
김일수 윤경구 이용해 김일수
김영담 노상옥 한정진 김준섭
김익남 김영배 김완근 노재권
추홍식 박미홍 유영준 김혜숙
조현식 이영진 이상일 박노평
윤판관 백전수 이주호 문상희
김의조 손영곤 김병기 성기형
장진출 김광수 김기택 박호섭
최주철 신윤철 김태근 이정식
박석구 김지훈 윤태식 김홍규
노권기 신영호 성현모 박태식
김준연 노승중 황리한 권영록
성수환 김재화 진운진 구종서
이시우 최희식 이상훈 이영희
박민철 강병산 박용운 김용삼
정일양 김종만 김대기 김제광
남궁명 김조수 안제준 백남규
장성용 손현일 이광운 유인집
최승덕

목사 (72.12.10)

김창수 허평환 민경백 이명기
조영기 김진수 장명수 유수희
진현양 윤일영 서수석 최광섭
윤병창 김창남 민태섭 신현만
고도환 김동철 권영학 김용관
김종현 양국중 서보암 염완돈
임상일 정용범 지종상 김상문
윤우주 김광수 박정남 박나초
박재일 이병환 김창두 배호득
윤현근 주재인 김용수 김진양
김동남 성연문 김용길 김선범
이용호 권남갑 이기수 김승욱
이종철 김주동 윤희옥 김용구
박동진 박영봉 진영갑 최동현
한상기 김인환 조매현 은희선

강창성 김혁태 양문성 이성식
김기순

전북 (72.7.2)

이광은 김익상 정삼만 양태진
최열화 허영복 송영수 김종화
김만연 전준옥 최재문 정 철
김정술 오종택 장몽모 김광원
장윤용 박동윤 강석한 이근희

충북 (72.7.2)

박재용 윤원희 유길상 박은호
이상현 장경우 엄장수 박영태
이광현 위경성 지용택 김병현
최연성 박종민 방진선 손제강
최병근 이재구 김수덕 이학운
이승우 김광영

전남 (72.9.19)

양락진 김영식 차은석 송동식
염문열 윤세영 안남동 박병현
임병운 이명구 임호성 김영학
김성현 배석인 배석환 강효성
손영석 황하영 김재현 정연관
이정범 김영철 임석현 구영수
문정부 김영국 장영종 김희식
이영철 정정만 정규원 최정섭
최두섭 이창선 최영길 김영재
조종현 김연관 김창영 소범용
유호경 이정식 김현영 장희관
백기훈 김용언 라병진 우승식
곽상수 이승호 박종현 박 현
구남준 서정식 김종욱 최문평

中央 (72.7.19)

최성민 김진용 김창수

江原 (72.7.20)

박정진 홍병만 김종천 최종만
이훈극 문계선 김 윤 정금석
금남필 조병수 안성모 안하동

忠北 (72.7.23)

현순호 원영식 윤병국 이돈영
정현경 김근식 김연성 김석구
이재욱 하종호 한장환 한정관
이창우 연호흙 이 용 이인욱
이도섭

강원 (72.7.23)

은진경 이한기 배재원 신창호
이명걸 박종만 이동진 최천수

이명성 백선철 채병권 유형근

中央 (72. 7. 30)

최덕진 이석현 김재권 전용근
 김만영 이길종 김봉석 김치영
 진진평 최성진 이 황 성백영
 송환기 서재경 전용기 성백문
 김기선 박태식 김익환 김성호
 김동근 송상현 유근철 하석광
 유진영 서경원 김진호 김남훈
 이인수 안경호 조동수 이희석
 오상욱 장성호 유종열 윤용태
 최병영 남준환 박보현 노경민
 박만홍 한승덕 성은모 박창현
 유용섭 전승복 전승일 승경배
 한규식 백오현 장 옥 이일영
 엄정국 이호현

제주 (72. 8. 18)

김진택 김양택 김완택 강기규
 고문기 신명수 김성익 이규행
 고완용 이운범 송성지 문병희
 조기근 최학기 강창성 김근택
 김영송 김배진 송문걸 박준완
 송만수 김완진 김성효 고정범
 허종오 한상화 성상훈 문상용

中央 (72. 6. 11)

심경남 조찬호 박규식 김동기
 박경식 오광석 김상호 김철호
 박흥배 최성웅 이승덕 홍종철
 김희찬 신제범 이진준 김현준
 정현태 김인식 임재준 조원학
 김지동

충남 (72. 8. 23)

김연환 성기소 문형길 박경수

中央 (72. 9. 10)

윤영섭 김성철 이범영 백만영
 김완준 조찬현 안성국 옥성국
 이성수 김석훈 김하용 박노천
 채병국 김유식 안윤수 김무웅
 하태만 정이준 정진수 김연민
 신해균 이상준 김은식 동태욱
 이광식 위후향 조영삼 송혁호
 김승민 김기호 김일배 조영근
 박세영 이원수 강완석 송연하
 전종호 김충열 김일환 전성희
 유성훈 이시형 이동현 정 철

박종민 최충용 박성진 김진택
 백기영 이언복 김주봉 김배환
 이승훈 김중환 박재식 국수원
 신헌일 김승훈 국수홍 박대성
 박영학 김택진 김수일 객대남
 오재환 유규선 송인석 서상배
 도중호 라상연 최성현 김제영
 장광구 오영근 한상현 임성식
 정진호 이학용 최성용 고영무
 홍성기 원현희 한기영 이재형
 이강욱 서수원 김시업 손원우
 최원섭 윤중대 김현태 명인균
 정성철 이창준 함상용 심준규
 이슬복 김재섭 김대유 신석중
 방영환 이종욱 이복근 안단석
 문정현 김현주 신화식 김대환
 이승민 김육남 김종민 김영태
 전동근 허 국 박태경 김영찬
 이승영 정병욱 김성주 김춘식
 박현민 이강욱 황성현 민대준
 신규철 이도훈 경경호 정재균
 천수진 남정근 전시현 최호진
 이홍우 권영철 서종택 고광준
 김사명 이홍식 이승원 이찬영
 강성태 김원식 이간영 복기식
 김명환 안기현 심원호 김재철
 장지호 정성수 김영광 최윤석
 김민기 양정모 홍성용 유병창
 이명재 박노성 유진원 양광모
 윤재호 유태선 박진수 박광철
 안상원 최칠주 박시복 민병권
 김인환 안용문 윤태웅 김대웅
 김인종 안정석 박원우 문창선
 김대현 신웅식 전용석 조동진
 이성환 김달희 강승현 김 현
 윤석조 최병철 강대민 김부희
 이배화 조제복 정하성 박상곤
 이년우 신용택 서정근 신준식
 성호철 윤병진 김경훈 이동진
 김진희 배동식 백성학 신석호
 박세희 이지현 김원석 홍의중
 최광환 조은상 우길영 박진원
 한성희 김우창 박창원 한도희
 이태준 박일호 남동희 김인섭
 송광섭 강석동 최경석 심옥천

정동안 김명옥 황철이 전우찬
 최우식 홍석학 조용문 주신반
 김광인 우문성 김학봉 이승진
 정동희 김문수 박규주 이 현
 최경선 한 경 박성호 조영진
 박영호 이화정 고친복 황수철
 김윤선 한동수 권학준 김효성
 김명준 문준익 김용욱 백영천
 이경종 이준호 김철기 김상운
 김인용 김상화 고영환 유문수
 최철성 정재선 김두식 김명훈
 김주일 우대영 제대곤 최휴정
 이형준 이장우 옥석일 김형석
 조문형 임병두 김용태 김호영
 이명구 김영수 백운철 박종현
 이재철 정영민 조충선 조한기
 김대성 조영규 김영일 유동호
 한종규 최종호 박덕호 김규식
 윤성희 배규호 장영수 박규대
 이희광 원종화 박상호 박규영
 강희상 김명수 이창석 한천규
 김병도 정현용 최병열 김정열
 장병열 이강혁 정동욱 장춘열
 장경순 장민열 김동욱 이 구
 박형철 이하선 정호도 이동현
 문성원 민봉기 동태욱 김기준
 지영욱 강만우 김병선 이종욱
 김규형 윤병현 김민배 주 법
 김도환 박주영 신재훈 조철희
 장차진 유신명 김해일 김성린
 이상구 구학준 채인택 방영수
 윤기승 신현용 이규영 최해남
 마영수 전승호 라동진 김용덕
 이주현 윤철현 유용권 한정배
 전기섭 조호순 박진균 박영송
 장재원 조형준 오창근 이승균
 방기준 송익한 신기룡 이석진
 양경모 최준호 신윤진 정일형
 정순식 이상화 이상훈 남길현
 강종식 이진우 정호남 김지현
 하종준 김부규 박준근 조경완
 조능희 서정훈 이정민 송태웅
 신환규 이윤성 유승표 임승호
 박창식 장용석 이상래 이기도
 정준명 임광민 이재석 서재욱

Tae Kwon Do posters of the World



「캐나다」 전덕기

Canada by Chun Deok-ki.



「브라질」 조상민

Brazil by Cho Sang-min



「필리핀」 박용만

Philippines by Park Young-man.



「캐나다」 이 청

Canada by Lee Chung



미국 심상규

America by Shin Sang-kyu.



「프랑스」 이관영

France by Lee Kwan-young.

宿願! 태권도 중앙도장 개관



여기
붉은 햇살이 쏟아지는
黎明의 丘陵위에
跆拳道半萬年の
金字塔이 우뚝 섰다.

斯多舍이 武藝를 닦던
新羅 花郎道場이,
아길레스의 勇氣를 기른
그리스 파라에스트라가
이제 이땅에 다시 탄생했다.
이름하여 國技院.

여기
용광로의 熱火처럼

우리의 情熱과 鬪志를 태우고
求道者의 參禪처럼
우리의 叡知와 精誠을 모아
이 丘陵위에 烽火를 밝힌다.

그것은 꿈의 宮殿.
겨레의 맥박이 뛰는
國技跆拳道의 심볼이요
5大洋 6大洲를 잇는
世界跆拳道의 심장이다.

여기
땀어린 忍苦의 열매가
열리리라.
보람찬 繁榮의 길이 열리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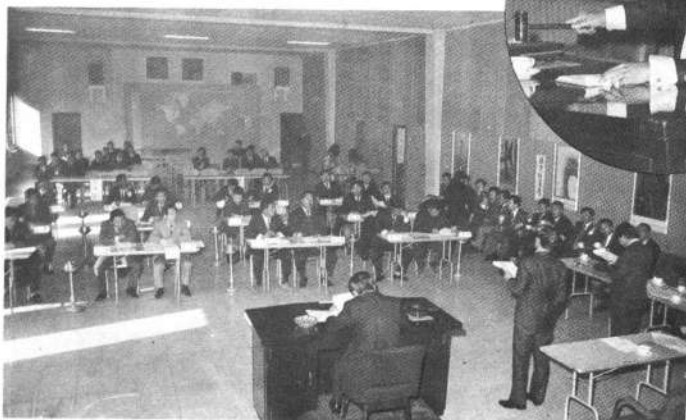
중앙도장 개관식 광경

The grand opening ceremony of the Tae Kwon Do Center



의장석에서 총회를 진행하는 金雲龍회장 (⇒)

President Kim Un-yong as chairman
presides the general meeting of delegates.



1973년 정기 대의원총회 광경 The 1973 general meeting of delegates to the Association. ㉞



제 5 기 지도자 강습회 수료증 수여광경 (⇐)

President Kim Un-yong presents a diploma to a
graduate in a completion ceremony of the instr-
uctors training course.

(⇒) 중앙모장(국기원)에
「캐비닛」을 기증했다.
주한 서독 대사 「발브리트」
「자라진」 대사가



President Kim Un-yong addressing the lockers donation ceremony
held at the Tae Kwon Do Center. Lockers are donated by Mr. W.
Sarrazin, second from left, West German Ambassador to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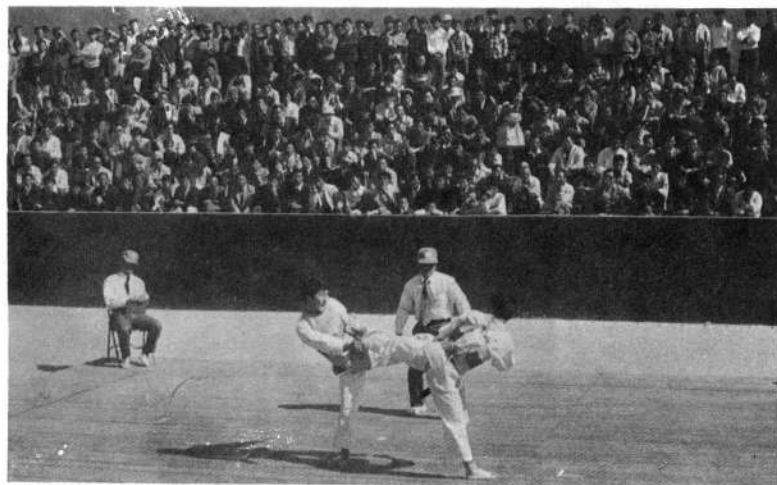
전국체육대회 스냅



A winner in Tae Kwon Do competition is receiving an award during the National Sports Tournaments.



A scene of Tae Kwon Do competition during the National Sports Tournaments.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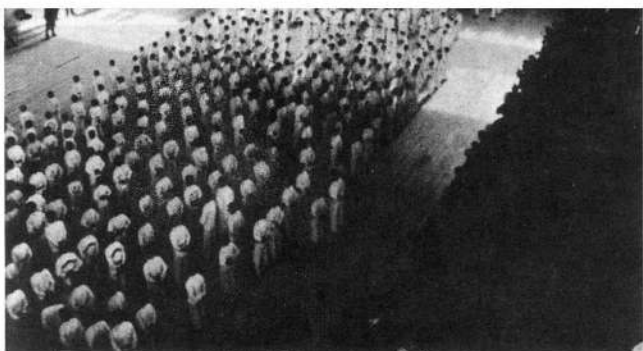
김운용 회장을 방문한 일본의 강정협 사범(우) 미국의 황작 사범(좌)

President Kim Un-yong, second from right, is pictured with Instructor Kang Jung-hyup of Japan, far right, and Instructor Jack Hwang of U. S. A. far left, after they have received appreciation awards from President Kim.



미국에서 활약중인 한국사범과 협회 임원

Officials of the Korea Tae Kwon Do Association are pictured with Tae Kwon Do instructors of U.S.A. during their promotion tour in the United States.



승단심사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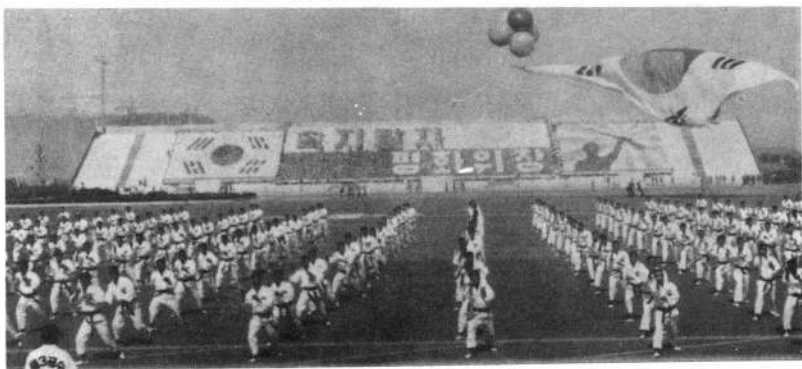
A scene of the Rank promotion Exam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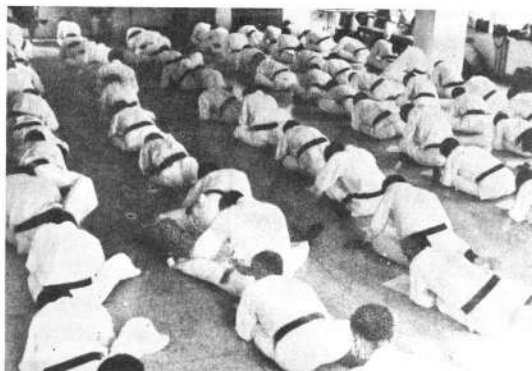
민관식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노상석 사범
Instructor No Sang-suk is receiving a letter of appreciation
from Education Minister Min Kwan-sik.

“국군의 날”에 공수특전단 용사들의 태권도 시범

A group of the Airborn Special Force demonstrates Tae Kwon Do at the
Seoul stadium in a celebration of the Armed Forces day.



이런일 저런일



제 3 기 후반기 강습회 필기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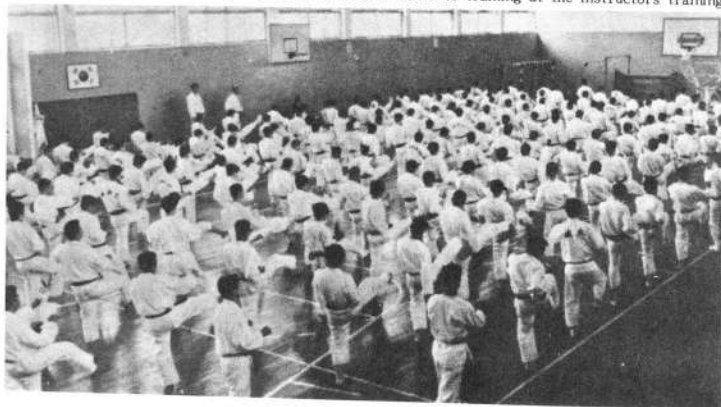
Instructors takes written tests during the instructors training course



태권도 강습을 지원한 강원도 여선생님들

Volunteered school mistresses in Kang-Won province takes Tae Kwon Do trai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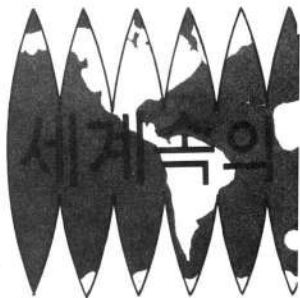
지도자 강습회 광경 A scene of training at the instructors training





미국 李俊九사범 도장의 사범들

In U.S.A., instructors of the Jhoon Rhee Tae Kwon Do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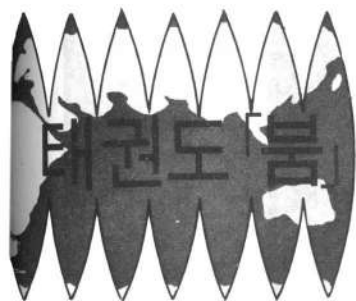
제 2 회 「프랑스」 태권도 선수권대회

In France, the 2nd France Tae Kwon Do Championship Tournament.



「시카고」의鄭碩鍾사범과 그 수련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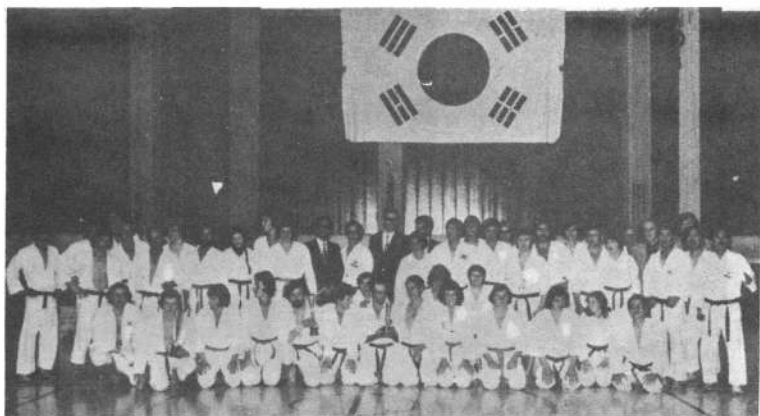
In Chicago, Instructor Joung Suk-chong and his institute memb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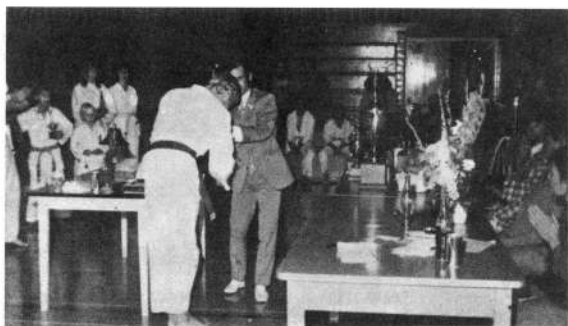
「에쿠아돌」의 이범재 사범과 그의 수련생들
In Ecuador, Instructor Lee Bum-jae and his institute member



西獨 베르린 大學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張在春 사범과
수련생들 In West Germany, Instructor Chang Zae-choong
and his institute members at Berlin University.



「오스트리아」및 남부독일 태권도 대회
At the Tae Kwon Do tournament between Austria and the southern region of the West Germany.



「캐나다」의 전덕기 사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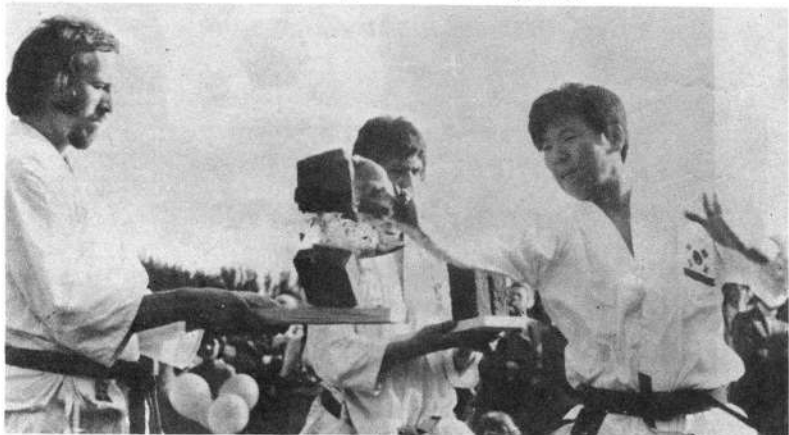
In Canada, Instructor Chun Deok-ki.



「오스트리아」의 張 淇 鉉 사범 In Austria, Instructor Chang Ki-hyun.

독일의 金光雄 사범

In West Germany, Instructor Kim Kwang-woong.





호주의 수련생 Tracy Charmaine양의 격파시범

In Australia, Miss Tarcy Charmaine of Australia shows a break demonstration.

「하와이」의 田克道 사범

In Hawaii, Instructor Chun Keuk-do.



호주의 尹英求사범

In Australia, Instructor Yoon Young-ku.

세계속의
태권도

세계속의 태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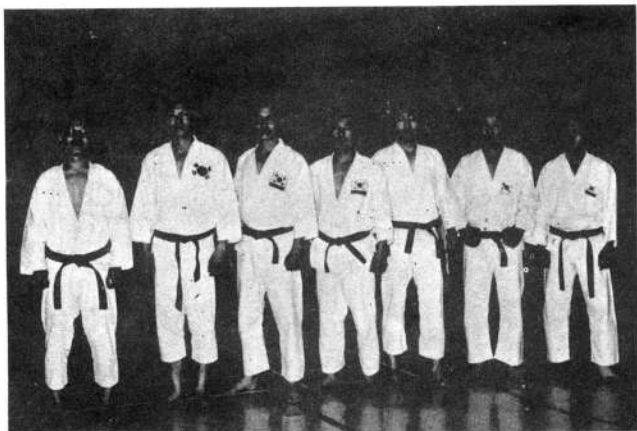
「브라질」이우재 사범과 그 수련생들

In Brazil, Instructor Lee Woo-jae and his institute memb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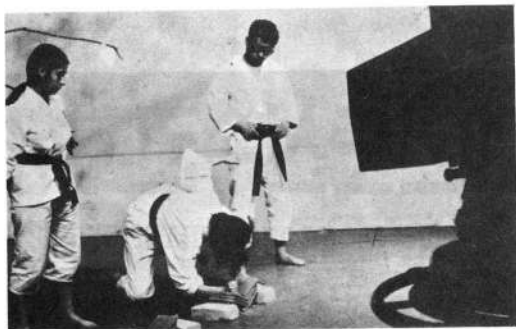
미국 「리차드·솔로몬」 사범과 그 수련생들

In U.S.A., Instructor Richard Solomon and his institute memb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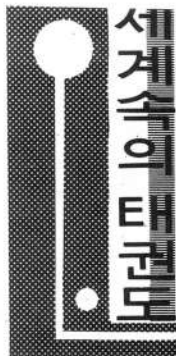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사범들

In Europe, active Korean instructors.



「콜롬비아」의 李京得 사범 In Columbia, Instructor Lee Kyong-duck



미국 「브라이드」씨와 그의 가족

In U.S.A., Mr. Bright and his Tae Kwon Do family.



이관영 사범의 시범

A demonstration by Instructor Lee Kwan-yung.



대만黃埔軍官學校跆拳道競演大會觀景

In Taiwan, a group demonstration conducted by Instructor Ro Hyo-yong in the Tae Kwon Do contest tournament held at the Hwang-Po Military Academy of the China.

제 1 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THE 1ST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일시 1973. 5. 25 - 27
장소 태권도중앙도장(국기원)
주최 대한태권도협회
후원 문교부 · 문화공보부